

지식과 교양

Knowledge and Liberal Arts

통권 제 5호, 2020년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본 학술지는 목원대학교 학술연구지원에 의하여 발행되었음.

차 례

[섹션 1: 지식과 문화]

■ 서 원 혁 ■

자기성찰과 대동세계 7

■ 이 아 람 찬 ■

영화교육의 경계를 넘어서 27

[섹션 2: 지식과 교육]

■ 김 병 정 ■

영화촬영분야의 교육과정 연구 50

■ 최 해 진 ■

물교양의 시대, 대학개혁과 교양교육 75

■ 한 우 섭 ■

교양교육의 목적과 지각의 현상화 98

- 교양교육혁신센터 『지식과 교양』 논문투고 규정 117
- 교양교육혁신센터 『지식과 교양』 논문심사 규정 128
- 교양교육혁신센터 『지식과 교양』 연구윤리 규정 131
- 교양교육혁신센터 『지식과 교양』 편집위원회 규정 140

Knowledge & Liberal Arts

VOL 5. 2020

liberal Arts Innovation Center, Mokwon University
DAEJEON, KOREA

TABLE OF CONTENTS

[Section 1: Knowledge & Culture]

┃ Suh, Won-Hyuk ┃

Self-Reflection and Daedong world 7

┃ Lee, Aramchan ┃

Beyond Film Education: Rural and Community Cinema Schemes ... 27

[Section 2: Knowledge & Education]

┃ Kim, Byeong-Jung ┃

A Study on the Curriculum in Cinematography: Focused on University Education from 1999 to 2010 50

┃ Choi, Hye-Jin ┃

Era of unbildung, University reform and liberal arts education 75

┃ Han, Woo-Sub ┃

“Parler” comme objectif de l'enseignement des arts libéraux et l'importance des cours d'utilisation du corps pour améliorer les compétences de présentation : recherches par le point de vue dans la Phénoménologie de la perception de Merleau-Ponty 98



자기성찰과 대동세계

서원혁*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자기반성적 성찰
3. 포스트 코로나 세상 - 대동세계
4. 결말

1. 들어가는 말

현 시대는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된다. 특히 코로나 19라는 바이러스의 창궐은 일반적인 회의는 물론 최근에는 교육 분야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동영상을 통한 일반적 교육이나 실시간 교육은 물론 영상을 통한 의료진료 서비스까지 이뤄지는 등 그 활동 영역은 한계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은 그 특유의 개방성과 비대면성이라는 특징을 가지

* 충남대학교

고 있다.¹⁾ 이 공간에서 사람들은 서로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기도 한다. 이때 그 관계는 긍정적일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 아직은 정의내리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다양한 활용성에도 불구하고 사이버공간의 익명성으로 인한 사이버 범죄 또한 그 양상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며 무섭게 다가오고 있다. 최근 ‘n번방 사건’²⁾은 아마도 이러한 범죄의 일부를 나타내고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인격을 훼손시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아 존중감이나 자아 정체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³⁾ 특히 누구나 언제든지 가능하다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강력한 법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법이라는 것은 그것을 피하려고만 한다면 얼마든지 피하며 변종된 다른 범죄를 저지러 수 있다. 이에 대한 윤리적 성찰이나 인간 본성에 대한 근본적 물음을 통한 인간에 형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어린 시절부터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교육이 진행되어야 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해 동양의 인성론적 측면에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동양적 사고는 서양의 논리적, 비판적 사고보다는 자신에 대한 수양을 강조하는 수양론에 더욱 비중을 두고 발전해 왔다. 이에 대한 논의를 한 축으로 전개하면서 코로나 19로 인해 팬데믹 상태에 빠진 세계적 어려움을

1) 양해림외, 『사이버공간과 윤리』,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55쪽 참조
2)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진 성범죄의 일종으로 텔레그램이라는 사회관계소통망(sns)을 활용한 범죄이다. 특징은 알바를 구하는 학생이나 단기간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돈을 준다는 식으로 유인한 후 스폰알바 등을 시킴. 처음에는 위험하지 않다고 속이나 나중에 가학적이고 점점 변태적인 요구로 진화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응대하지 않거나 탈퇴하면 n번방에 신상을 공개하거나 성착취 영상물을 공개함. 변태적, 가학적 동영상 촬영과 이를 안 할 시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범죄에 가담시키는 형태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힘. 이런 영상물을 돈을 주고 판매를 함으로써 범죄를 통해 수익을 올림. 피해자는 100여명에 달하고 이곳을 다녀간 사람들은 26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수사가 진전됨에 따라 더 많은 피해자와 이를 이용하거나 직접 가담한 범죄자들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네이버블로그 참조, <https://blog.naver.com/pioyoung3/221873228191>)
3) 우제태, 「사이버공간과 사이버 범죄」, 『사회과학논총』, 제16집, 2000. 참조.

극복하면서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에 대해 동양의 유학적 이상향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자기반성적 성찰

1) 사서(四書)를 통해 본 자기 성찰

우리는 항상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것의 지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공자는 인(仁)을 이야기 하며 '인간다움'에 대해 말한다. 그가 살던 시대는 춘추전국 시대로 중국고대에서 가장 혼란스럽던 시절이다.⁴⁾

당시 사회는 나라를 서로 뺏기 위해 싸움이 벌어지는 등 매우 혼란스러웠으며 이와 맞물려 세상을 구하겠다는 수많은 학파와 학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사상과 학문을 펼쳤던 시기로 이를 제자백가시대라 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자와 맹자, 순자 등도 당시의 인물들이다.

공자(孔子)의 제자 중 증자(曾子)는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인 수신(修身)에 집중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자기의 잘못을 하루에 세 번씩 반성하니 남을 위하여 일을 도모함에 있어 내 마음을 다하지 않았는가 친구들과 더불어 사귀에 있어 믿음이 없지 않았는가 자기 몸에 아직 익히지 못한 것을 남에게 전가시키지 않았는가⁵⁾

증자는 그의 스승인 공자에게 둔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매일 세 번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반성과 성찰로 후대에 귀감이 되었다. 특히 공자의

4) BC 221년 중국은 최초로 진시황에 의해 통일을 이루었다. 그 이전 시대를 진나라 이전시대로 선진시대라고도 부른다. 아울러 BC 770년, 고대 중국의 주(周)왕조가 낙양으로 수도를 천도하면서 그 이전을 서주(西周), 이후를 동주(東周)시대라고 한다. 동주시대 이후 진시황이 전국을 통일하기 전까지의 시기를 춘추전국시대라고 한다.

5) 『論語』, 「學而」 “曾子曰 吾日三省吾身 爲人謨而不忠乎 與朋友交而不信乎 傳不習乎”

사상을 그의 손자인 자사에게 전달했으며 이어 맹자에게까지 이어지면서 유가사상이 더욱 번성할 수 있도록 했다.

공자가 말하길 “어진사람을 보고 자신도 그와 같이 되기를 생각하며 어질지 않은 사람을 보면 나 자신을 스스로 살펴야한다고 말했다.” 6)

어진사람을 보면 나 자신도 그 사람과 같이 어질게 되려고 노력을 해야 하고 만일 어질지 못한 사람을 보더라도 상대방을 탓 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같은 허물이 없는지 살펴라는 반면교사의 교훈을 드러내고 있다.

자료가 군자에 대하여 묻자 공자가 말하길 “마음을 경건히 하여 자기를 수양하는 것이다.” 또 묻길 “그 같이 할 뿐입니까” 말하니 “자기 수양을 하여 남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다.” 또 말하길 “그 같이 할 뿐입니까” 물으니 “자기를 수양해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다. 자기 수양을 해서 백성을 편하게 해주는 것은 요순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겼다” 7)

공자의 이상적 인간상은 군자이다. 자료가 공자에게 군자에 대해 묻자 공자는 경건하게 자신을 수양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는 성심껏 학문과 도덕을 체득하라는 의미이다. 다시 묻길 이것뿐입니까 하니 자신을 수양하여 남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라 하였다. 또 다시 묻길 이것뿐입니까 하니 자기를 수양해서 백성 모두를 편안하게 해주는 일이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다. 태평성대를 이루었다고 칭찬받는 요임금과 순임금도 자신을 수양해서 백성을

6) 『論語』, 「里仁」 “子曰 見賢思齊焉 見不賢而內自省也”

7) 『論語』, 「憲問」 “子路問君子 子曰 修己以敬 曰 如斯而已乎 曰 修己以安人 曰 如斯而已乎 曰 修己以安百姓 修己以安百姓 堯舜其猶病諸”

편안하게 해주는 일에 자신의 힘이 부족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여기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수양을 바탕으로 제가, 치국, 평천하를 이룩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공자가 말하길 “나는 15세에 학문에 뜻을 두었고 30세에 모든 기초를 세웠으며 40에는 어떤 일에도 흔들림이 없었고, 50세에는 천명을 알았다. 60세에는 남이 말을 들어도 화내지 않고 순하게 들렸고 70세에는 마음 가는 데로 따라가도 이치에 어긋나지 않게 되었다”고 하였다. 8)

이 말은 70에 다다른 공자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한 말이다. 매우 짧은 회고록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안에는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다. 자신의 삶을 몇 단계로 나누어 함축적이고 간결하게 보여 주고 있다. 초반기에는 학문에 대해 이야기함으로 학문의 이루기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 하지만 후반부에는 자신에 대한 성찰을 술회하고 있다. 40에 이미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은 자기 수양에 있어 일정 경지에 이르렀음을 말하는 것이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노여워하지 않아야 한다”⁹⁾고 말하고 있어 자기 성찰에 매진하였음을 알게 해준다. 또한 육십에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뭐라고 말하여도 이에 화내지 않고 순하게 들렸다고 하니 일반인으로써는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수양이라 하겠다. 특히 칠십에는 마음 가는 데 따라가도 이치에 어긋남이 없었다고 하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로써는 이를 본받을 만하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지 못하는 어른 세대들이 너무나 많은 현실에서 한번쯤 되새길 만한 교훈이다. 이런 모두는 자기 수양과 성찰을 위한 시도이자 완성이라 하겠다.

8) 『論語』, 「爲政」 “子曰 吾十有五而志于學 三十而立 四十而不惑 五十而知天命 六十而耳順 七十而從心所欲 不踰矩”

9) 『論語』, 「爲政」 “子曰 …… 人不知 而不愠 不亦君子乎”

안연이 仁에대해 묻자 공자가 말하길 “자기를 극복하고 예로 돌아감이 곧 인(仁)이 되는 것이니 자기를 극복하여 예(禮)로 돌아가게 된다면 온 천하가 다 인(仁)을 따르게 될 것이다. 인이 되는 것은 자기로 말미암은 것이 어찌 남으로 말미암은 것이겠는가?” 안연이 말하길 “그 조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니 공자가 말하길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고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도 마라”고 하였다. 안연은 “제가 비록 우둔하나 그 말씀을 받들어 실천할 것을 고합니다.”하였다. 10)

공자가 제일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 안연이 인(仁)에 대해 묻자 극기복례(克己復禮)라고 말한다. 이는 자기 욕망과 감정을 이겨내고 사회적 규범인 예를 따라야 함을 말한 것이다. 극기는 바로 자기를 극복한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인간의 끊임없는 욕구 욕망과 사악한 감정을 없애야 함을 말하고 있다. 이 또한 수기의 한 방편이라 하겠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에 대해 예가 아니면 보거나 듣지도 말고 말하거나 움직이지도 말라고 하였다. 즉 실천함에 있어서도 예가 아닌 것은 어느 것에도 의미를 두지 말고 행하라고 하고 있다. 극기복례를 극기운동 등 육체적 측면에서 부각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본래적 의미는 자신의 마음 속 욕망과의 끊임없는 싸움이고 이를 이겨내는 것이라 하겠다. 공자의 중심 생각이 담겨있는 『論語』 어 속에서 자기성찰인 수기(修己)에 대해 살펴보았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성선설을 주장하고 그 근거로써 사단(四端)을 말한다.

10) 『論語』, 「顏淵」 “顏淵問仁 子曰 克己復禮爲仁 一日克己復禮 天下歸仁焉 爲仁由己 而由人乎哉 顏淵曰 請問其目 子曰 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 顏淵曰 回雖不敏 請事斯語矣”

맹자가 말하였다. “사람은 누구나 다 남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까닭은 지금 사람들이 어린애가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면 다들 놀랍고 측은한 마음이 생긴다.” “측은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요. 수오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요. 사양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요. 시비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요. 측은지심은 인의 단서요. 수오지심은 의의 단서요. 사양지심은 예의 단서요. 시비지심은 지의 단서이다. 사람은 이 네 가지 단서를 가지고 있느니라.”¹¹⁾

맹자는 사람으로서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서 우물에 빠지려는 어린아이를 예로 든다. 우물에 빠지려는 아이를 구하려는 이유가 그 부모와 친분을 쌓아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동네 사람이나 친구들에게 칭찬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만약 구해주지 않았을 때 돌아올 비난의 목소리를 듣기 싫어서도 아니다. 다만 인간은 본성이 착하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마음 즉 측은지심(惻隱之心)에 따른 당연한 도리라고 밝힌다. 나아가 옳지 못한 것을 행하였을 때 가지는 부끄러워하는 마음과 겸손하여 남에게 사양할 줄 아는 마음, 옳고 그름에 대해 분간할 줄 아는 시비의 마음 등 네 가지 모두를 본성으로 보고 있다.

이 네 가지는 모두 중요하다. 그중에서 수오지심에 해당하는 ‘부끄러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현대인들은 이 ‘부끄러움’에 대해 언제부터인가 감각이 무뎠진 듯싶다. 자기 성찰의 근본은 바로 이 부끄러움에 대한 자각에서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짐승이나 여타 동물들의 최대 목표는 살아남아 생존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모든 힘을 다하여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할 것

11) 『孟子』, 「公孫丑」 “孟子曰 人皆有不忍人之心 所以謂人皆有不忍人之心者 今人乍見孺子 將入於井 皆有怵惕惻隱之心 無惻隱之心 非人也 無羞惡之心 非人也 無辭讓之心 非人也 無是非之心 非人也 惻隱之心 仁之端也 羞惡之心 義之端也 辭讓之心 禮之端也 是非之心 知之端也 人之有四端也

이다. 인간도 일정부분 먹고 사는 경제적 문제를 일차적으로 중요하게 여긴다. 하지만 이러한 일차적 삶에 매몰되어 염치없음을 자랑하는 경우까지 생기니 과히 '부끄러움'없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¹²⁾ 수오지심(羞惡之心)은 자신 행동에 대한 성찰을 통해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작동 시킴으로써 금수의 차원이 아닌 인간다움의 세계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부끄러움에 대한 자각과 실천은 자기 수양의 중요한 도구라고 판단된다.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 방심하게 된다면 하지 못할 것이 없을 정도로 파렴치한이 되어 있을 것이다. 부당하고 부정한 일이라도 한순간 부끄러움을 버리면 바로 저지를 수 있고 남의 부당한 일에도 쉽게 용인하게 된다. 또한 내가 부끄럽지 않는데 남에게 부끄러움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맹자가 성성선의 근거로 내세우는 사단 중 수오지심(羞惡之心)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부끄러운 마음을 끌어내라는 것으로 자기수양의 덕목 중 하나로 반드시 지켜야할 것이다.¹³⁾

대학의 도는 덕(德)을 밝히는 데 있고, 백성을 새롭게 하는 데 있고, 지극한 선(善)에 머무르는 데 있다. 옛날 명덕을 천하에 밝히려는 자는 먼저 그 나라를 다스렸고, 그 나라를 다스리려는 자는 먼저 그 집안을 다스렸고, 그 집안을 바로 잡으려는 자는 먼저 그 몸을 닦았다. 또한 몸을 닦으려는 자는 먼저 그 마음을 바르게 했고, 그 마음을 바르게 하려는 자는 먼저 그 뜻을 성실하게 했고, 그 뜻을 성실하게 하려는 자는 먼저 그 앎을 지극히 했는데, 앎을 지극히 함은 사물을 구명(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탐구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하는 데 있다.¹⁴⁾

12) 박승현, 「공자의 인仁 사상과 공감능력회복」, 『동서철학연구』 84집, 한국동서철학회, 2017. 46쪽 참조.

13) 박승현, 「공자의 인仁 사상과 공감능력회복」, 『동서철학연구』 84집, 한국동서철학회, 2017. 47쪽 참조

14) 『大學』, 「大學章句 1章, 4章」 “大學之道 在明明德 在親民 在止於至善 古之欲明明德於

위의 내용은 『대학』 15)의 3강령과 8조목에 대한 설명이다. 이것은 학문하는 사람이 지켜야할 3가지 강령과 이를 실천하기 위해 쌓아야 하는 8가지 조항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여기서도 천하를 다스리고자 하는 자는 먼저 나라를 먼저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자하는 자는 먼저 그 집안을 잘 다스려야 하며 집안을 잘 다스리려면 먼저 자기 자신부터 잘 수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자기성찰과 관련되어 四書중 『대학』, 『중용』에는 ‘신독(愼獨)’이라는 말이 나온다. 신독(愼獨)이란 홀로 있을 때에도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 도리(道理)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고 삼가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른바 그 뜻을 성실하게 하려는 것은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악(惡)을 미워하기를 나쁜 냄새를 싫어하는 것과 같이 해야 하며 착한 것을 좋아하는 것은 호색을 좋아하는 것과 같이 해야 한다. 이것을 가리켜 스스로 만족함이라 부른다. 그런 고로 군자는 반드시 홀로 있을 때 삼가는 것이다. 소인이 한가로이 있을 때는 착하지 않은 일을 하게 되니 이르지 못하는 바가 없게 되며 만약 군자를 본다면 껌연쩍어 불선함을 가리고 선함을 드러낸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 보기를 폐인 보듯이 할 것이니 그렇다면 무슨 유익함이 생기겠는가? 이것을 가리켜 ‘중심에서 진실 된다면 외면에도 나타나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天下者 先治其國 欲治其國者 先齊其家 欲齊其家者 先脩其身 欲脩其身者 先正其心 欲正其心者 先誠其意 欲誠其意者 先致其知 致知在格物

- 15) 본래 예기(禮記)의 제42편이었던 것을 宋나라때 사마광(司馬光)이 처음으로 따로 떼어서 대학광의(大學廣義)를 만들었다. 그 후 주자가 대학장구(大學章句)를 만들어 경(經) 1장(章), 전(傳) 10장으로 구별하여 주석(註釋)을 가하고 이를 존숭(尊崇)하면서부터 널리 세상에 퍼졌다.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235537&cid=51293&categoryId=51293>)

반드시 홀로 있을 때 삼가는 것이다.”¹⁶⁾

『대학』에 나오는 신독 관련 내용이다. 성실하다는 것은 스스로 속이지 않는 것인데 혼자 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함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유가적 이상적 인간상인 군자는 스스로 당당하기에 진실로 홀로 있을 때 삼가 한다고 하니 자기 수양의 최대 실천자라 할 수 있다. 이런 군자를 보기만 해도 겸연쩍어 불선(不善)함이 드러난다고 하니 이것이야말로 수기의 최고 단계라 할 만하다.

“도(道)란 잠시도 떠나지 않으며 떠나면 도가 아니다 그러므로 군자는 누구도 보지 않는 곳에서 경계하고 삼가며 그 누구도 듣지 않는 곳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한다. 숨은 곳(아무도 안보는 데)에서 보다 자신의 모습이 더 잘 드러나는 것이 없고, 은미(역시 아무도 안보는 데)한 데에서 보다 자신이 더 잘 드러나는 것이 없으니 그러므로 군자는 그 혼자 있을 때 더욱 삼가 해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린다.”¹⁷⁾

『중용』 1장에 나오는 신독 관련 내용이다. 누구도 보지 않는 곳에서 삼가야 하고 오히려 들을 사람이 없는 곳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라고 말한다. 이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럴수록 더 잘 들어날 수밖에 없으니 군자라면 당연히 혼자 있을 때 삼가 함이 근본임을 잘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신독(慎獨)은 수 많은 성현들과 학자들의 그 모범으로 삼으려 했다.

16) 『大學』, 「大學章句 6章」 “所謂誠其意者: 毋自欺也, 如惡惡臭, 如好好色, 此之謂自謙, 故君子必慎其獨也 小人間居爲不善, 無所不至, 見君子而后厭然, 揜其不善, 而著其善, 人之視己, 如見其肺肝然, 則何益矣. 此謂誠於中, 形於外, 故君子必慎其獨也.”

17) 『中庸』, 「第 1章」 “道也者, 不可須臾離也, 可離非道也 是故君子 戒慎乎其所不睹 恐懼乎其所不聞 莫見乎隱 莫顯乎微 故君子慎其獨也”

2) 성현들에게서 드러난 자기성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율곡 이이나 퇴계 이황에게서도 신독(愼獨)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다. 율곡은 20세 때 어머니 심사임당을 여의고 잠깐 금강산에 들어가 불교 공부를 하다가 돌아와 공부하는 것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는 굳은 결의를 가지고 ‘자경문(自警文)’을 지었다. 자경문은 공부함에 자기 스스로를 경계하기 위한 문장을 의미하는데 자신의 공부 원칙을 세운 것이라 하겠다.

먼저 큰 뜻을 크게 가져야 한다. 성인(聖人)을 그 본보기로 삼아 조금이라도 성인(聖人)에 미치지 못하면 나의 할 일이 끝나지 않은 것이다. 18)

항상 경계하고 두려워하며 홀로 있을 때는 삼가는 생각을 가슴 속에 담고 유념하여 게으름이 없다면 일체의 나쁜 생각들이 아예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악(惡)은 모두 ‘홀로 있을 때를 삼가지 않음’에서 생겨난다. 홀로 있을 때를 삼간 뒤에 ‘기수에서 묵묵하고 시(詩)를 외면서 돌아옴’의 의미를 알 수 있다. 19)

율곡은 ‘自警文’ 서두에 ‘먼저 뜻을 크게 가져야 하고 성인을 모범을 삼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본격적으로 공부함에 있어 유학의 최고 목표인 성인(聖人)을 모범이자 지향점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글을 시작한다. 이어 과언(寡言), 정심(定心)을 말한 후 신독(愼獨)에 대해 그 중요성을 역설한다. 홀로 있을 때는 마음속에 담고 있는 나쁜 생각들이 일어나지 않

18) 『栗谷全書』, 卷 14, 「自警文」 “先須大其志, 以聖人爲準則, 一毫不及聖人, 則吾事未了”

19) 『栗谷全書』, 卷 14, 「自警文」 “常以戒懼謹獨意思, 存諸胸中, 念念不忘, 則一切邪念, 自然不起, 萬惡皆從不謹獨生, 謹獨然後, 可知浴沂靈歸之意味”

도록 삼가야 하고 그렇지 않음으로 모든 악(惡)이 생긴다고 보고 있다. 이어 홀로 삼간다면 묵욕하고 즐겁게 시 한수를 읊조리며 돌아 올 수 있다고 하여 홀로 있을 때 마음과 언행 등의 신중함을 말하고 있다.

즉 마음과 생각은 한시도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돌아 다닌다. 이것을 아무렇게나 붙잡으려 하면 안 되고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로 모음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홀로 있을 때 도덕적인 마음가짐과 생각, 행동에 있어 삼가에 힘써야 함을 강하게 주장한다.

아울러 충청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기호유학에서 예학(禮學)의 종장으로 불리는 사계 김장생의 아들 김집은 자신의 호를 신독재(愼獨齋)라고 하여 신독(愼獨)을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고 실천하였다.

선생은 일찍이 도성에 오래 머무르지 아니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날마다 원근의 학자들과 강독하고 토론하였다. 선생은 항상 말하기를 “학문의 요체는 말과 행실을 서로 돌아보며 숨고 나타난 것을 일치시키는데 있다”고 했다. 진서산의 ‘홀로 갈 때는 그림자에 부끄럽지 않고 홀로 잠 잘 때는 이불에 부끄럽지 아니해야 한다.’는 말을 매우 사랑하여 선생 스스로 호를 신독(愼獨)이라 하였고 선생은 실제에서도 이를 애써 실현하려 하였다. 20)

위 글은 신독재 김집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와 왜 호를 신독(愼獨)으로 지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홀로 걸어가면서도 자신의 그림자에게 조차도 부끄럽지 않아야 하고 홀로 잠 잘 때에는 이불에게도 부끄럽지 않아야 할 정도로 신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것을 실천하고자 매진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그의 실천은 직접 호를 신독(愼獨)이라고 지은 것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공부에서 이론의 중요함은 말할 필요가 없지만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더욱 큰 문제일 것이다. 신독재 김집

20) 『愼獨齋年譜』, 先生 66歲 條.

은 학문에 있어 말과 행실의 일치를 몸소 실천하는 진유(眞儒)로써 신독(愼獨)의 실천가라 하겠다.²¹⁾

이밖에도 많은 사상가들과 학자들이 신독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앞으로 n번방 같은 사이버 범죄는 계속 발생할 것이다. 비대면성과 익명성으로 무장한 사이버공간에서 인간은 자신만의 혼자 있다는 착각에 빠져 어떤 행동을 해도 된다는 일탈을 지속할 것이다. 자기반성이 없으며 어떠한 윤리적 작용도 작동하지 않는 상태가 될 수 있다. 이처럼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일탈을 막기 위해서는 법도 중요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자기반성적 성찰인 신독(愼獨)의 의미를 되새기며 실천에 나서야 하겠다.

그럼 이 같은 자기반성과 홀로 있을 때 삼가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은 철저한 자기 수양을 통해 치인(治人)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조건임을 말한다. 즉 혼자 산에서 도를 터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를 실천하여 사회를 보다 건전하고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며 보다 성숙한 나라로 이끌고자 하는 것이다.

3. 포스트 코로나 세상 - 대동세계

유가에서는 수신을 바탕으로 한 치국을 이야기한다. 앞에서는 수기의 방법에서 신독(愼獨)을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하였다. 이번 장에서는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회 현상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한편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이후 세계에 대해 유가적 관점에서 말하고자 한다.

유가적 이상국가는 대동세계이다. 이는 『예기(禮記)』 「예운편(禮運篇)」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대동'이라는 말은 『장자』와 『여씨춘추』에서도 언급되고 있지만, 유가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사회적·정치적 의미는 가지고 있지 않다.

21) 『사계·신독재의 유학사상』, 한국문중문화연구원, 누마루, 2011, 32-33쪽 참조.

대도(大道)가 행해지는 세계에서는 천하가 공평무사하게 된다. 어진 자와 재주 있는 자를 등용해 신의를 가르치고 화목함을 이루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부모만을 친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 아들만을 귀여워하지 않는다. 나이든 사람들이 그 삶을 편안히 마치고 젊은이들은 쓰여 지는 바가 있으며 어린이들은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다. 홀아비나 과부, 고아, 자식 없는 노인, 병든 사람들이 모두 부양되며 남자는 모두 일정한 직분이 있고 여자는 모두 시집갈 곳이 있도록 한다. 땅바닥에 떨어진 남의 재물을 자기가 가지려 하지 않는다.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일들은 자기가 하려하지만 반드시 자기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하기 때문에 간사한 모략이 끊어져 일어나지 않고 도둑이나 폭력배들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대문을 열어 놓고 닫지 않아도 되니 이를 대동이라 한다.²²⁾

유가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세계가 바로 위 글과 같은 세상이다. 가장 먼저 어진 사람을 등용하고 재주 있는 사람이 정치에 참여해 신의를 지키게 하니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나 가족만을 위하지 않게 되니 타인과 함께 하는 삶이 된다. 특히 홀아비나 과부, 고아, 자식 없는 노인, 병든 사람들이 모두 부양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이 펼쳐진다. 떨어진 물건 하나라도 집어가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지려하는 모습 등은 공평한 세상의 본보기라 하겠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간사한 모사가 없어지니 도둑이 없어 굳이 대문을 닫아 놓을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되어 버린다. 이런 세계가 대동세계이다.

이상세계는 서양 사상에도 있고 불교나 도교 등에도 나타난다. 하지만

22) 『禮記』, 「禮運篇」 “大道之行也 天下爲公 選賢與能 講信脩睦 故人不獨親其親 不獨子其子 使老有所終 壯有所用 幼有所長 矜寡 孤獨 廢疾者 皆有所養 男有分 女有歸 貨惡其棄於地也 不必藏於己 力惡其不出於身也 不必爲己 是故謨閉而不興 盜竊亂賊而不作 故外戶而不閉 是謂大同也。”

유가의 이상세계는 현실에 바탕 한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으며 우리의 복지 문제와도 많은 부분이 관련되어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으로 나뉘지고 이후의 삶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 말한다. 포스트 코로나의 세계는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 미래학자들은 그동안 진행되어왔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적 세계에서 벗어난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다. 몇몇 전문가들은 공동체주의, 국가다운 국가, 안전 등 다양한 테마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때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시대의 근본정신을 유가의 대동세계에서 찾아 활용할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그동안 진행되어 온 신자유주의에 바탕 한 자본주의와 글로벌화는 인종·지역·국가·세대 간 심각한 불평등을 유발해 왔다. 그 정점은 양극화라는 극단적 체제로 편입되어 가는 것이었다. 앞으로 세상은 모두가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하겠다는 점에서 대동세계에서 그 모습을 가져와야 하겠다.

4. 결말

앞으로 전개될 사이버 세계 속에서 포스트휴먼, 트랜스휴먼, AI 등 다양한 개념이 전개되고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수준의 시대가 오면 그 속에서 범죄는 어떤 형태로든 발생할 것이다.

‘n번방 사건’ 같은 사이버 성범죄도 지속될 것이다. 법을 강화해서 사건이 일어나면 이를 엄벌로 다스리려 할 것이다. 하지만 범죄가 일어났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 ‘n번방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겠지만 그로 인해 얻는 것은 피해자들의 이중 고통일 것이다. 법은 이런 유형의 범죄를 막겠다고 제정되겠지만 n번방 속의 수많은 가해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지속적인 법을 만들어야 할지도 모른다. 사후약방문 보다는 예방에 우선해야 한다.

아이러니 하게도 디지털 시대는 우리에게 또 다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

다. 우리는 어항 속의 금붕어와 다름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핸드폰, CCTV, 블랙박스, 각종 SNS 등이 우리를 감시하며 언제 어디서든 지켜보고 있다. 이제는 내 왼손이 하는 일을 다른 사람의 오른손도 알게 되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

앞으로 전개될 디지털 중심의 사이버 공간 속 다양한 범죄에 대해 그 해결책은 물론 자율적이든 타율적이든 감시 받는 사회가 진행되고 있다. 범죄에 대해서는 단속하는 것도 해야겠지만 이전에 교육이 필요하다. 두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서 함양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교육도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교양인이라면 항상 자신을 되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반성하며 홀로 있을 때 삼가는 신독(慎獨)의 마음가짐을 가져보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사이버 공간을 활용 하지만 결국은 혼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면 비대면성에 의한 범죄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신독(慎獨)을 비롯한 자기성찰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고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사이버 공간 안에서의 생활은 한층 더 잘 영위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도 우리가 당장 준비해야할 과제이다. 우리는 자신만을 위한 개인주의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남에 대한 배려가 매우 부족했다. 세계화는 어쩌면 지구라는 커다란 우리를 만들고 그 안에서 서로 싸우도록 만들어 놓은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있었다.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우리에게 한발 앞서 나갈 수 있는 준비 시간을 주었다고 볼 수도 있다. 새로운 시대의 근본정신은 유가의 대동세계를 바탕으로 할 때 보다 안정적이며 행복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는 소박한 의견을 피력한다. 어쩌든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공정하고 공평하며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하기에 더욱 그러하다고 말할 수 있다.

■ 참고문헌

『禮記』

『論語』

『孟子』

『大學』

『中庸』

『栗谷全書』

『愼獨齋年譜』

양해림외, 『사이버공간과 윤리』,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55쪽 참조
우제태, 「사이버공간과 사이버 범죄」, 『사회과학논총』, 제16집, 2000. 참조.
한국문중문화연구원, 『사계·신독재의 유학사상』, 누마루, 2011, 32-33쪽 참조.
박승현, 「공자의 인仁 사상과 공감능력회복」, 『동서철학연구』 84집, 한국동서철
학회, 2017. 46쪽 참조.

<https://blog.naver.com/pioyoung3/221873228191>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235537&cid=51293&categoryId=51293>

■ 국문초록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은 사이버 세상과 함께 나아가고 있다. 천천히 다가오던 새로운 세상은 아이러니 하게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더욱 가까워졌다. 우리 주변의 일상은 이미 인터넷으로 연결된 하나의 커다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 학교를 갈 수 없는 학생들과 이로 인해 교육을 해야 하는 교육자 모두 사이버 세상에서 만나고 소통하고 있다. 이렇게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사이버 공간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반면 ‘n번방 사건’과 같은 엄청난 범죄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이에 대한 다양한 대책 마련하느라 정부와 사법당국은 다양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한편으로는 코로나 19로 인해 전 세계가 이전과는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을 비롯한 서유럽의 국가마저도 국민 의료서비스의 한계에 부딪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교양으로써의 자기 성찰과 유학에서 추구했던 이상세계인 대동세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윤리적인 측면에서 인성을 추구하는 자기 성찰은 현 시대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 여겨진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준해해야 할 세상에 대해 유가에서 전통적으로 꿈꿔왔던 대동세계를 제시코자 하며 이를 통해 모두가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는 세상으로의 변환을 기대해 본다.

주제어 ● 판자기성찰, 사이버 공간, 인성, 포스트 코로나, 대동세계

■ Abstract

Self-Reflection and Daedong world

Suh Won-Hyuk

Humans living in modern times are moving in tandem with the cyber world. The new world, which was coming closer and closer, ironically, was brought closer to the Corona 19 virus. Our daily life is already living in one big world connected to the Internet. Both students and educators are meeting and communicating in the cyber world. This Internet-based cyberspace helps us a lot. On the other hand, it can be a hotbed of crimes like the N-BunBang incident. The government and law enforcement authorities are busy working on various measures to cope with this. On the other hand, Corona 19 is causing the world to live in a different world than before. The U.S. and other Western European countries, called advanced countries, are struggling to meet the limits of national health care services. In this situation of the times, I would like to take a look at the culture that we should have and the Daedong World, the ideal world that we pursued in studying abroad. In terms of ethics, self-reflection in pursuit of personality is considered a very important factor in the present era. In addition, let's present the Daedong world that we have traditionally dreamed of Confucianism about the world that we should follow in the post-corona era. Through this, we look forward to a transformation into a world where everyone lives well together.

지식과 교양 제5호

Keyword ● Self-Reflection, Cyber World, Personality, Daedong World,
Post-Corona

■ 논문투고일 : 2020. 04. 28. ■ 심사완료일 : 2020. 05. 20 ■ 게재확정일 : 2020. 05. 25



영화교육의 경계를 넘어서: 참여영화를 통한 영화교육의 확장성 연구

이아람찬*

목차

1. 들어가는 글
2. 영화적 경험 확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
 - 1) 영국의 농촌극장과 디지털 스크린
 - 2) 영국의 창의적 파트너십
 - 3) 한국의 예술강사 지원사업
3. 참여영화 형태의 공동체영화
4. 신지승·이은경 감독의 돌탑영화
 - 1) 공동체영화로써 돌탑영화
 - 2) 돌탑영화의 실제
5. 나오는 글

1. 들어가는 글

일반적으로 지식이란 자신에게 도달되기 전에 전문가들에 의해 수없이 수정되고 확인하는 과정을 밟게 되기 마련이다. 이처럼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느 문화권에서든지 고대에서부터 깊게 뿌리박혀 있는 우리 전통은 특정

* 목원대학교

지식이 연구되거나 전파될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허가나 승인을 요청하게 된다.¹⁾ 그러나 위키피디아(Wikipedia)에서는 누구나 특정 주제어와 관련해서 글을 쓰거나 편집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나이, 교육, 지역, 성별, 그 어느 것으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지식의 생산과정과는 사뭇 다르다.²⁾ 브리태니커(Britannica)는 1768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발행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백과사전 분야에서 가장 명성이 높다. 전문가 주도의 편집 과정을 거친 브리태니커와 같은 백과사전과 대중의 집단 지성 중심의 위키피디아 같은 백과사전 사이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전문가 주도의 시스템 상에서는 정확성과 신뢰도가 높게 나타난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 주도의 시스템에서는 누구나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독자나 편집자들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대두된다.³⁾ 이들의 또 다른 차이점은 브리태니커는 올드미디어(Old Media)이고, 위키피디아는 뉴미디어(New Media)라는 점이다. 올드미디어에서는 정보제공자와 수신자의 위치가 확고한 반면, 뉴미디어에서 정보제공자와 수신자가 수시로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정보제공자가 수신자가 될 수도 있고, 수신자가 새로운 정보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영화 만들기는 언제나 전문가집단만이 누리왔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경향이 변하고 있다. 기존 상업영화의 형태와 다르게 참여영화(Participatory video)는 개인의 관심 영역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협동적인 담론과 공동의 주제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 지역 사회가 형성된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모임과 활동이 진행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참여영화는 지역 사회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릴 수 있고, 기존 상업영화와는 다르게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없는 경우도 나타난다.⁴⁾

1) Paul Levinson, *New New Media*, Allyn & Bacon, 2009. 폴 레빈슨, 설잔아·권오후 옮김, 『뉴뉴미디어』, 피어슨에듀케이션코리아, 2011, 147.

2) 위의 책, 148.

3) 위의 책, 149.

이와 관련해서, 영화적 경험의 확대라는 점에서 공동체적 참여영화의 개념을 알아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지승·이은경 감독의 돌탑영화라는 마을 영화운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공동체영화의 실재를 다룰 것이다.

2. 영화적 경험 확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

1) 영국의 농촌극장과 디지털 스크린

영국 영화진흥위원회(British Film Institute)가 추진한 '농촌 지역 극장 3년 지원사업(Three-year Rural Cinema Pilot Scheme)'과 '디지털 스크린 네트워크(Digital Screen Network)'를 통해서 문화적으로 소외된 농촌에서 영화적 경험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영국 정부의 이노베이션 펀드(Innovation Fund)를 받아 2013년까지 진행했던 단기 프로젝트였다. 이 계획안은 농촌 지역인 슈롭셔, 윌트셔, 북요크셔 지방에 수준 높은 디지털 시네마 장비를 설치함으로써 이곳에 거주하는 관객들이 최신 영화를 즐길 수 있게 하려는 시책으로 3D 영화 상영까지 포함하고 있다. 한편 2007년 시작한 '디지털 스크린 네트워크'는 이 사업은 영국 전역의 201개 극장 240개

4) 본 논문에서 참여영화는 지역 또는 단체를 기반으로 다수가 참여하여 만든 영화로 비상업성과 비전문성을 가지며, 지역 또는 단체의 현안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는 영화를 의미한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공동체영화, 마을영화, 돌탑영화 등이 있다. 여기서 공동체영화와 참여영화의 차이점을 굳이 언급하자면, 강조점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공동체영화는 영화제작이 공동체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참여영화는 참여자가 영화의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직접적인 생산자라는 점이 특히 강조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을영화와 돌탑영화는 신지승·이은경 감독이 만들어낸 개념으로 참여영화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공동체 참여자의 직접적인 생산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공동체영화보다는 참여영화로 통일해서 사용할 것이다. 마을영화와 돌탑영화의 개념은 신지승·이은경 감독의 개념화 과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스크린에 디지털 프로젝트 시설을 설치한 사업이었다.⁵⁾

구체적으로, 스크린웨이브스(Screenwaves)는 정부와 지자체 자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시골 영화 프로젝트이다. 이 사업은 북요크셔 지역의 시골마을에 스크린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영화 관람을 돕기 위한 것이다.⁶⁾ 그리고 대안영화 어드벤처(Adventures in Alternative Cinema)는 슈롭셔 지역의 영화관람 프로그램으로 특히 19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영화 관람뿐만 아니라 영화만들기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상업영화를 접할 기회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⁷⁾

2) 영국의 창의적 파트너십

창의적 파트너십(Creative Partnerships)은 영국 잉글랜드 지역 전역에 걸쳐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운영했던 문화예술교육 진흥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젝트는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을 기르고, 많은 학생이 양질의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돕는 것을 목표로 진행했다. 창의적 파트너십은 지역의 학교와 예술가, 그리고 예술기관을 연결해줌으로써 학교에서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지난 10년 동안 잉글랜드 전역에 걸쳐 34개의 지부를 운영했고, 5,000 여 개 학교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⁸⁾

5) 최상희, 「British Film Institute의 기능과 지원사업」, 『KOFIC 해외통신원 리포트』, 2012, 3.

6) Screenwaves, [<http://www.reelsolutions.co.uk/index.php/screenwaves/>] 2020년 2월 20일 방문.

7) Adventures in alternative cinema, [<http://www.shropshiremedianetwork.com/latest/adventures-in-alternative-cinema/>] 2020년 2월 20일 방문.

8) Creative Partnership, [<http://www.creative-partnerships.com/>] 2019년 8월 20일 방

1997년 토니 블레어 노동당 정부가 들어선 이래로 영국의 문화 정책의 방향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문화향유권의 저변 확산과 개발을 위하여 “문화예술”과 “교육”의 연결이 가져오는 효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인식 변화는 가장 눈에 띄는 점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와 궤를 같이하여, 1998년 문화부와 교육부는 공동으로 “문화와 창의적 교육을 위한 국가 자문위원회(National Advisory Committee on Creative and Cultural Education)”를 선임하였다. 자문위원회는 “우리들의 미래: 창의성, 문화 그리고 교육 (All Our Futures: Creativity, Culture and Education)”라는 제목의 제안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는 달라진 사회경제적 변화에 발맞추어 문화예술과 창의성의 문제를 교육과 접목시켜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공조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이 제안들에 대한 답변으로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십 (Creative Partnerships: 이하 CP)’이 고안되었다. 1-2년의 구상시기를 거쳐, 2002년부터 문화부와 교육부의 공동지원을 바탕으로 문화와 교육을 아우르는 프로그램으로서 탄생하여 올해로 4년째를 맞고 있는 CP는 현재 영국 내에서 창의성과 교육을 결합시킨 대표적인 정부정책지원 시범사업으로 일컬어지고 있다.⁹⁾

2006년 영국의 시장조사기관인 영국시장조사국(British Market Research Bureau)이 창의적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과 교사들을 조사한 결과 92%의 학생들이 자신감이 향상되었고, 80%의 학생들이

문.

9) 최보연, 「창의성과 교육의 만남-크리에이티브 파트너십(Creative Partnerships)」, 『아르떼진』, 2006년 8월. [<http://nuri.arte.or.kr/foreign/view.jsp?articleIdx=286>] 2019년 9월 30일 방문.

학교생활의 즐거움을 경험했으며, 91%의 학생들이 자신의 언어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밝혔다.¹⁰⁾

3) 한국의 예술강사 지원사업

앞서 언급한 창의적 파트너십과 유사한 내용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2000년도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으로 시작해서, 2002년 연극분야, 2004년 영화분야까지 확대되었다. 이어서 2005년부터는 기존 국악, 무용, 연극, 영화와 더불어 만화애니메이션까지 5개 예술 분야로 확대되어 시행되었다. 그리고 2010년부터는 기존 5개 분야와 더불어 공예, 사진, 디자인이 추가되어 현재는 총 8개 예술 분야에서 예술강사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¹¹⁾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주요사업은 예술현장과 공교육 연계, 분야별 전문 인력의 학교 방문 교육을 통한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와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통한 문화적 소양인 및 창의적 인재 양성에 있다.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국악, 연극, 영화, 만화애니메이션 등 8개 분야 예술강사 선발 및 학교 배치, 교육 실행 및 교육활동 평가를 제공한다. 2013년의 경우 전국 초·중·고등 및 특별·대안학교 7,254개교에 예술강사 4,485명 지원을 지원하고 있다.¹²⁾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전국 16개 국악운영단체 및 광역센터에서 예술강사 사업 관리와 운영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운영기관은 교육진흥원의 업무에 준하여 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예술강사 교육활동관리 추진, 문화예술 원격교육시스템을 활용한 강사관리, 학교 선정 및 강사선발 등을 담당하고 있다.

10) Creative Partnership, [http://www.creative-partnerships.com/]

11) 이아람찬, 「문화예술교육으로서 영화교육: 예술강사 지원사업과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모드니 예술』, 2011, Vol. 4, 92.

1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3 예술강사 지원사업 효과분석 연구 제안요청서」, 2013, 14.

3. 참여영화 형태의 공동체영화

처음으로 참여영화(Participatory Video)를 기획한 사람은 캐나다의 돈 스노우든(Don Snowden)으로 그는 인간중심의 공동체개발에 관해 수많은 연구를 진행했다. 그의 대표적인 연구는 1967년 캐나다 포고섬(Fogo Islands)의 작은 어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주변 다른 마을사람들의 영화를 봄으로써, 그들은 자신들이 직면한 유사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고, 공동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¹³⁾ 다시 말해서 주민들이 자신의 영화를 만들면서 영화를 통해 공동체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노력을 함께 했다.

1970년대 들어 전통적으로 문화적 타자를 대상으로 영상작업을 해왔던 민속지영화(Ethnographic film) 감독들은 재현의 정치학, 다시 말해서 누가 이미지의 생산과 배급에 대해 헤게모니를 가지는가에 대한 논의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1980년대에는 전통적으로 서구의 이국적인 타자로서 민속지영화를 비롯한 많은 영상매체의 대상이 되어왔던 원주민들이 영화나 TV와 같은 현대 영상매체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미지를 직접 생산하고 배급하는 원주민 미디어(Indigenous media)에 관여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저개발국과 제3세계에서 서구 학자들에 의한 참여영화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도되기 전에 몇몇 인류학자에 의해 주도된 나바호 프로젝트((Navajo Project)와 호주 및 브라질의 원주민에 의한 원주민 미디어를 참여영상의 초기 시도로 볼 수 있다.¹⁴⁾

구체적으로 1996년 영상 커뮤니케이션 학자인 솔 워스(Sol Worth)와 나바호 인디언(Navajo Indians)을 오랫동안 연구해 온 존 어대어(John Adair)는 여섯 명의 나바호 인디언에게 기초적인 영화제작기술을 가르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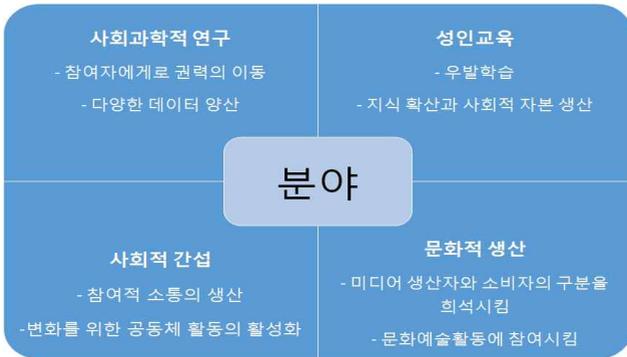
13) Nick Lunch, Chris Lunch, Insights Into Participatory Video: A Handbook for the Field, InsightShare, 2013, 11.

14) 김명준·이기중,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의 새로운 영상 패러다임으로서 '참여 영상(Participatory Video)'의 의미에 대한 고찰」, 『한국방송학보』, 20(2), 2006.4, 49.

고 나바호 인디언들에게 그들이 제작하게 될 영화의 소재나 주제, 작업방식, 촬영방식, 편집방식 등에 대한 논의는 의도적으로 피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영화를 제작하게 하는 영상실험을 실행했다.¹⁵⁾

이렇게 참여영화를 통해 지역 공동체가 지닌 문제점을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된다. 따라서 참여영화는 기본적으로 참여자에게 영화를 찍을 수 있는 매우 기초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이후 참여자가 직접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소통과 의견 제시를 통해 공동체가 지닌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참여영화는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굳이 참여영화를 다큐멘터리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일부는 극영화 형식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림 1] 참여영화의 잠재적 기여¹⁶⁾



한편 양경화는 『성인교육에서의 참여영화』에서 지역 사회에서 공동체 교육과 참여영화 제작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에 따르면, 참여영화의

15) 김명준·이기중,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의 새로운 영상 패러다임으로서 '참여 영상 (Participatory Video)'의 의미에 대한 고찰」, 『한국방송학보』, 20(2), 2006.4, 50.

16) Yang Kyung-Hwa, Participatory Video in Adult Education: Cultivating Participatory Culture in Communities, Springer, 2016, 22.

잠재적 기여를 크게 4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다. 첫째, '사회과학적 연구'로 참여자에게로 생산 권력이 이동하고, 다양한 데이터 양산하게 되는 것. 둘째, '성인교육'으로 우발적 학습이 가능하고, 지식 확산과 사회적 자본을 생산하는 것. 셋째, '사회적 간섭'으로 참여적 소통의 생산과 변화를 위한 공동체 활동의 활성화. 마지막으로, '문화적 생산'은 미디어 생산자와 소비자의 구분을 희석시키고 지역 문화예술활동에 주민을 참여시킨다는 의미한다. 이처럼 참여영화는 참여자가 영화를 만드는 과정을 학습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육적이고 활동중심적이다. 참여자가 영화 만들기를 통해서 그들의 경험을 들어냄으로써 참여영화는 사회조사의 장치가 될 수 있다.¹⁷⁾

한국에서도 신지승·이은경 감독이 지난 18년 동안 전국의 마을 다니면서 마을영화를 제작했고, 주민들과 함께 제작한 영화를 마을극장을 만들어서 상영하고 있다. 신지승·이은경 감독에 대해서는 이후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권우정 감독은 주로 농촌과 관련된 다큐를 찍어왔으며, 통해 경남 지역 농촌으로 이주해 살고 있는 세 명의 여성농민을 카메라에 담았다. 권우정 감독의 <땅의 여자>는 나고 자란 도시를 떠나 농촌에 들어온 이 세 명의 여자들은 청춘을 함께 했던 대학 동창생들이다. 더 나은 삶의 미래를 꿈꾸며 농촌에 정착한 이들은 어머니로서, 농민으로서, 때로는 그들이 일 귀낸 땅의 결과물들을 지켜내기 위해 농민 운동을 하는 운동가로서 자못 버거운 일상을 그리고 있다.¹⁸⁾

4. 신지승·이은경 감독의 돌탑영화

1) 공동체영화로써 돌탑영화

17) Yang Kyung-Hwa, *Participatory Video in Adult Education: Cultivating Participatory Culture in Communities*, Springer, 2016, 22.

18) 김수연, 「2009 한국 다큐멘터리 기상도」, 『Cinno』, 2009, 30.
[http://files.kofic.or.kr/eng/publication/Special_7.pdf]

신지승·이은경 감독¹⁹⁾의 마을영화는 ‘돌탑영화’라는 개념으로 특징지어진다. 그는 돌탑영화와 함께 보석영화와 수석영화라는 개념도 변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먼저 보석영화는 일반적인 상업영화를 의미하며, 수석영화는 예술영화를 일컫는다. 보석영화와 수석영화의 공통점은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전문적인 감독이라는 점이다. 이와 다르게 돌탑영화는 비전문적인 연기와 함께 영화를 만드는 감독을 비롯해서 다수의 참여자들이 모두 비전문 영화인이라는데 있다.

보석영화와 수석영화는 예술의 상품화라는 흐름에 맞는 영화이며, 돌탑영화가 추구하는 것은 영화의 생활화를 지향하고 있다. 하지만 돌탑영화는 마을주민과 더불어 그 지역에서 공동체를 중심으로 함께 주민들이 어울리면서 이야기를 짜고 연기하면서 정을 나누는 즐거운 축제의 장이다. 마을주민들이 직접 감독이나 카메라 촬영 등에 참여하며 굳이 그 작품을 내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지는 않는다. 하지만 지역과 공동체를 위한 치열한 창작적 과정과 완성도를 위한 노력이 개입되어야 한다. 보석이나 수석의 희귀한 아름다움보다 평범하게 흩어져 이루어가는 순박한 생존 가치를 되살려내는 것이 돌탑영화의 가장 중요한 철학적 가치이다.²⁰⁾

이들은 농촌의 아이들, 노인들, 마을주민들이기도 하며 가출소녀, 장애인, 미혼모, 소년원생들, 러시아 고려인, 이주노동자, 백수들 등 주로 극영화의 대상, 소재만으로 다루어져 왔던 특수한 계층들이다. 소수의 연예인

19) 신지승·이은경 감독은 지난 1999년부터 전국 80여개 마을주민과 함께 60여편의 작품을 제작했다. 그리고 경기도 양평의 구둔영화축제와 같은 마을단위영화제, 흥천아시아다문화영화제 등 지역단위영화제를 창설했으며, 영화진흥위원회 주최 영화산업 정책 제안공모에서 “국민모두가 참여하고 만드는 마을영화”로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2010년 세계최초로 마을을 주제로 하는 세계마을영화축제를 만들기도 했으며, 2012년에는 생활창작, 공동창작 활동을 인정받아 일맥문화재단의 일맥아트상을 수상했다. 고려대 문과대 교수회, 『시계탑』 22호, 2012, 16에서 참고함.

20) 신지승·이은경, 『떠돌이 감독의 돌로 영화만들기: 마을영화 그리고 돌탑영화』, 아름다운사람들, 2009, 46.

과 투기적 자본이 만들어가는 개인 감독 중심의 극단적 이야기 구조가 아니라 작가와 참여자의 동반 작업을 통해 전문가적인 완성도와 아마추어의 영감적 통합성을 이루어가면서 만들어지는 색다른 창작방식을 보여주고 있다.²¹⁾ 신지승·이은경 감독은 그의 돌탑영화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돌탑영화는 평범한 생활인들이 영화인들과 동반하여 영화의 전 과정에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제작방식을 말한다. 공동체 혹은 마을, 참여자들의 개개인 간의 어울림을 통해 자신들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커뮤니티 콘텐츠를 뜻한다. 여기서 평범한 생활인이란 <스타킹> 같은 프로그램에 나가 자신의 끼를 내보이고 싶어 안달인 사람들 혹은 평범하게 살기에는 스스로가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소위 독립영화나 미디어교육을 통해 미디어산업의 후계자를 꿈꾸는 사람들이 아니다.²²⁾

기존 상업영화의 대안으로 독립영화, 실험영화 등이 나왔듯이 돌탑영화는 상업영화, 독립영화, 실험영화의 대안영화로써 등장하게 되었다. 기존의 영화는 비전문적인 사람들은 영화제작에 참여하는데 많은 제한을 둔 것이 사실이다. 영화를 만들고 싶어도 오랜 도제교육을 거치거나 대학 등에서 영화를 전공하지 않은 이상, 일반인들에게 영화만들기는 그들의 일상이 아니다. 하지만 신지승·이은경 감독의 돌탑영화는 그들에게 영화가 일상처럼 느껴지게 했다.

그들의 마을이나 생활공간 속으로 찾아가서 저랑 영화 한번 찍어볼래요? 하고 시작된 이 영화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관계와 마을, 그리고 공동으로 처한 상황에 대해 고민하기도 하고 함께

21) 위의 책, 36.

22) 위의 책, 35-36.

카메라 앞에서 웃고 떠들고 잘 하지 못하는 연기를 꽤나 노력하면서 도전해보기도 하고 긴 잠자리채 같은 붐마이크를 들고 더 또렷하게 소리를 잡기위해 힘을 써가면서 동시녹음이란 것을 난생 처음 해보기도 하고 혹은 진짜 감독들처럼 레디, 액션, 컷을 외치면서 웃고 떠들면서 만들어 가는 영화라는 예술로 하나 되는 것이다.²³⁾

이처럼 돌탑영화는 마을단위 영화만들기 프로젝트로 마을주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담아내게 되었다. 신지승·이은경 감독에 따르면 “돌탑영화는 개인 브랜드 시대에 개인의 콘텐츠가 목적이 아닌 마을 혹은 공동체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어울림의 영화’이다”라고 주장했다.²⁴⁾ 그러므로 돌탑영화는 잘 만드는 영화보다는 여러 돌맹이 하나하나 쌓여가는 돌탑처럼 공동의 영화, 어울림의 영화가 된다. 그래서 두 감독은 돌탑영화의 가치를 “우리가 지향해야 할 돌탑영화의 가치는 최고의 의미로서의 Top이 아닌 수많은 평범한 돌들이 모여서 하나의 탑을 이루는 탑(塔)의 가치인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²⁵⁾

그렇기 때문에 돌탑영화는 영화제 출품을 위해 작품성에 치중한 영화만들기가 아니다. 두 감독이 수차례 언급했듯이,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즐거워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하다가도 자신이 즐겁지 않으면 나오지 않아도 되는 자율성이야말로 공동체영화의 최고의 불문율이다.”²⁶⁾ 다시 말해서 영화만들기 과정은 어울리며 즐기는 자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즉흥적 창작, 예술적 영감의 자리이기도 하다. 따라서 영화제작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영화가 바로 돌탑영화다.²⁷⁾

23) 위의 책, 36-37.

24) 위의 책, 3.

25) 위의 책, 44.

26) 위의 책, 57.

27) 위의 책, 57.

돌탑영화는 그동안 많은 이름들이 공존해온 것이 사실이다. 굳이 이름이 통일성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상황에 맞게 다양한 이름이 불리는 것도 이 영화의 매력일 것이다. 그 독특한 과정들이 들꽃영화, 마을영화, 공동체영화, 달빛영화, 길거리영화, 돌탑영화, 조각보영화, 야생화영화, 심청이젓동냥영화, 이발소영화, 품앗이영화 같은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²⁸⁾ 이러한 가운데 신지승·이은경 감독은 기존 상업영화, 독립영화, 시민영화 등과 비교를 통해 돌탑영화의 구분을 제시했다.

[표 1] 돌탑영화의 구분을 위한 분류²⁹⁾

구분	생산 및 참여방식	연기	예산 규모	작품성향	배급	생산방식	구구성 방식 및 소재, 생산 가치
대중, 상업영화	직업영화인-관객, 개인감독 중심	직업적 연기자	고기능 고예산	친대중성 (20-30대 미혼남녀를 타겟)	극장 DVD TV	수직적 지배	1-2인의 주인공, 연애, 폭력, 물질적 가치
독립, 예술영화	아마추어영상인-관객	준직업인 비전문생 활인	저예산	친작가성	극장 영화제 전용극장	수직 수평	정신적, 형이상학적 (수석에 비유)
시민영화, UCC	영상접근권이 있는 개인-관객	비전문생 활인(주로 다큐멘터리)	초저예산	친대중성과 작가성 혼재	영화제 인터넷	수평	정치적, 공동체적 가치와 이슈(쌍둥, 모의법정에 비유)
공동체영화(돌탑영화)	생활인의 시나리오, 연기, 촬영, 감독 참여-관객 일체	비전문생 활인(주로 드라마)	저예산	지역성 친대중성	마을극장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성 수평	탈정치, 지역, 일상적 소재 (돌탑, 국민참여제관 혹은 마을토속주에 비유)

28) 위의 책, 47.

29) 위의 책, 49.

2) 돌탑영화의 실제

지난 1999년 이후 신지승·이은경 감독이 마을주민들과 함께한 작품으로 <고추전쟁>(경기도 양평), <행복하시네요?>(대구), <우리 마을에 횡단보도가 생겼어요>(경기도 용문), <노란 상자의 주인을 아세요?>(부산), <금광속의 송아지>(강원도 홍천), <곡성의 아이들>(전남 곡성), <포도밭의아이들>(경기도 가평), <엄마가 되어주세요>(경기도 부천), <반딧불 축제를 찾아온 외계인>(전북 무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경남 통영), <사과 꽃 피고 지고>(경북 문경), <노자천하지대본(老子天下之大本)>(경기도 양평), <안녕, 나의 눈부신 非行記>(경기 안양), <하늘학교>(경기 화성),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경기도 성남), <영화 한번 만들어보실래요?>(강원도 태백), <비닐하우스의 고추처럼>(충남 공주), <월운리 인삼대소동>(강원 홍천), <가재 가래 그리고 삼각김밥>(강원도 홍천), <등대마을 아이들>(강원도 주문진), <옥수수 감자, 파들의 운동회>(강원도 홍천), <우렁이의 하루처럼>(전남 무안), <유라의 시간여행>(경기도 안산), <엄마, 예술이 뭐예요?>(경기도 포천), <하늘에서 날아온 닭>(전북 완주), <강끝 마을 올챙이, 개구리 되다>(경기도 가평), <어느 늙은 남자 이야기>(경기도 양평), <친구를 위하여>(경기도 가평), <생태영화>(경기도 양평) 등이 있다. 공동체 참여자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영화감독 자리에 지역명을 통해서 특정 지역의 공동체영화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들 영화에서 다루는 주제는 다양한데, 특히 농촌주민, 이주여성, 장애인, 독거노인 등 소외된 우리 이웃들이 주요 등장인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인간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 일상의 공간이 이들 감독의 주요 공간이 되고 있다. 이들 영화의 차별성에 대해 감독은 개별 “마을마다 다른 시간과 공간, 사람, 자연 등을 같이 만들고 보는 행태다 보니 색다른 보람이 있다”³⁰⁾고 한

30) 신준섭, 「환경생태영화 전문감독 '신지승', 영화 밖서 자연을 노래하다」, 『그린포스트 코리아』, 2013년 4월 22일.

인터뷰에서 밝혔다.

2012년 오프엔프리영화제에 초청되었던 <선비가 사는 마을>(2010)는 오백년 된 한옥 전통 마을주민들이 좌충우돌해가며 체험마을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그린 영화로 한 할머니와 떠돌이 암캐를 주인공으로 시작하여 전통 달집태우기라는 마을 전통행사를 함께 담고 있다.³¹⁾ 선비가 사는 마을은 마을 전체가 한옥으로 만들어진 전통 마을이다. 20년전 까지도 무섬마을은 외나무다리 하나로 통해 외부로 통하는 강변 마을이었다. 영화는 이 마을에 사는 개 한 마리와 할머니들을 통해 유교사회에 살아가는 넓은 범위의 여성성을 주제로 삼았다.³²⁾ 그리고 <숲속의 엄마>(2011)는 한 숲속에서 10마리의 개, 4마리의 고양이, 오리와 닭, 새들이 함께 살고 있다. 남자는 3년간 그 동물들을 찍어간다. 고양이, 개, 그리고 오리가 새끼를 낳는다. 또 한 나이 많은 여자가 쌍둥이를 낳는다. 이렇게 숲은 많은 엄마들로 넘쳐나게 된다.³³⁾

한편 <금광 속의 송아지>(2013)는 2009에 제작된 영화를 재편집을 거쳐 다시 개봉하게 되었다. 흥천으로 시집온 이주여성들의 삶을 그린 영화로 그들의 꿈은 미처 올리지 못한 결혼이기도하고, 또는 노래자랑에 나가 상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이에게는 딸에게 멋진 엄마가 되는 것이기도, 어느 누구는 한국에서 돈을 모아 고향에 가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녀들은 UCC공모전에서 상금을 타보려고 마을에 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우연히 마을의 아이들에게 주워들은 일제시대의 금광을 알게 된다.³⁴⁾ 이 영화는 중국, 태국, 몽골, 필리핀, 베트남 등 이웃 아시아에서 흥천으로 시집온 이주여성들과 마을 주민이 함께 제작에 참여한 다문화화를 주제로 하고 있다. 기존 영화와 사뭇 다른 대도시에서 촬영한 영화 <행복하시네요?>(2013)는 시

31) 오프엔프리, [<http://www.offandfree.blog.me/>]

32) 신지승, 「무섬마을 선비가 사는 마을」
[<http://vimeo.com/42322387>]

33) 오프엔프리, [<http://www.offandfree.blog.me/>]

34) 오프엔프리, [<http://www.offandfree.blog.me/>]

민, 학생, 지체장애우 등이 대구 두류공원에 모여 만든 작품이다. 대구라는 공간에서 전혀 사전에 알지 못했던 이들이 모여 시작된 영화작업은 지체장애우의 존재와 그림을 두고 벌어지는 태도와 생각들을 담았다. 2007년 제작된 극영화에 메이킹필름을 추가해 구성했다.³⁵⁾ 감독은 이렇게 지난 십여년의 돌탑영화를 한 편의 다큐멘터리로 만들었다. <돌로 영화만들기, 10년의 기록>(2013)은 마을주민과 함께해온 공동창작 과정을 연대기적으로 구성했다.³⁶⁾

신지승·이은경 감독의 영화만들기 프로젝트가 상설화되면서 농촌과 도시의 연결고리를 만들기도 했다. 다시 말해서, 도시인들에게 영화체험과 농촌체험을 함께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구둔마을은 영화라는 새로운 테마로 새로운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곳 주민들이 사용하는 카메라는 가정용 캠코더가 아닌 6mm 디지털카메라 장비다. 주민들이 영화촬영을 배우게 된 계기는 2004년 마을영화를 제작하는 신지승·이은경 감독이 찾아오면서부터 시작됐다. 구둔마을 주민은 영화제작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 뒤로 마을에서는 '구둔영화축제'가 열렸다. 2008년부터는 구둔마을 주민들이 직접 영화제를 이끌었고, 현재 외부의 도움 없이 구둔영화마을을 꾸려가고 있다. 영화축제 기간이 아니어도 마을 주민들은 아마추어를 대상으로 영화제작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영화 찍고, 별 보고, 자연을 느끼는 즐거움은 체험 마지막 날 직접 만든 영화를 감상하는 시사회로 마무리되었다. 추억을 담은 영화는 마을을 떠날 때 고스란히 DVD에 담을 수 있다.³⁷⁾ 이렇게 구둔영화마을의 체험 프로그램은 농산물체험과 영화제작체험으로 구분된다. 봄에 딸기부터 자두와 복숭아, 멜론, 배 및 감자나 옥수수 등을 수확하는 농산물 체험과 방문자 본인 마을을 배경으로 영화를 찍을 수 있도록 장비를 대여해주는 영화만들기체

35) 오프엔프리, [http://www.offandfree.blog.me/]

36) 오프엔프리, [http://www.offandfree.blog.me/]

37) 이윤정, 「영화 찍고 별도 보고, '이색체험' 양평 구둔마을」, 『경향닷컴』, 2010년 02월 23일.

힘이다.³⁸⁾

주로 마을 공동체단위에서 제작되어지는 마을영화는 어린이나 청소년, 노인단위에서 만들어지는 제작방식과는 다르다. 기존의 어린이, 청소년영화제, 노인영화제가 존재하지만 어린이, 주민, 노인 등 마을의 대다수와 세대통합적인 참여를 그 주요한 차별성으로 가진다. 전국마을영화제는 제주도 3개 마을의 마을영화부터 경기도 28개 마을, 강원도 10개 마을, 전라도 14개 마을, 제주 3개 마을, 인천 23개 마을, 서울 8개 마을, 연해주 고려인마을들의 마을극영화, 다큐멘터리, 마을UCC가 망라되어 펼쳐지는 귀한 자리가 될 것 같다.³⁹⁾

지난 18년 동안 5톤 트럭을 가지고 전국 마을 곳곳을 방문해서 돌담영화를 만들어왔던 신지승·이은경 감독은 2010년 7월 31일부터 8월 8일까지 경기도 양평에서 세계마을영화축제를 개최했다. 그리고 2010년에 이어 전국 60여개 마을과 재외국 마을을 대상으로 2013년 12월 30일에 세계마을영화축제가 개최되었다. 그동안 다문화영화를 통해서 국가 간 이해를 시도하려는 감독의 이 영화제를 통해 구현되었다. 이 영화제는 국간의 영역에 얽매이지 않고 전지구라는 큰 틀에서 공동체적 마을의 의미를 확인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영화제라고 할 수 있다.

5. 나오는 글

지금까지 영화적 경험의 확대라는 거대 명제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영화적 경험의 확대라는 점에서 공동체적 참여영화

38) [<http://blog.ggtour.or.kr/archives/454>]

39) 양평토박이신문. 2015. 12. 21.

의 개념을 신지승·이은경 감독의 돌탑영화를 통해서 조명해보았다. 스타도 자본도 없는 영화제작환경에서 지난 십여 년 동안 꾸준히 마을영화를 만들어왔던 두 감독의 노력으로 이제 마을영화라는 개념이 아주 낯설게 보이지는 않는다. 신지승·이은경 감독의 돌탑영화는 상업영화나 예술영화 중심의 전문적인 영화만들기의 문제를 인식하고 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비전문적인 영화제작의 목적으로 대안적 영화만들기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참여영화의 한 영역인 이러한 마을영화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마을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소외된 지역의 영화적 경험을 확대하고 있다. 영화를 만드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공동체영화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양한 영화적 경험을 제공하게 된다. 셋째, 영화만들기 과정을 통해서 협동심뿐만 아니라 자신감 그리고 의사소통능력도 향상될 수 있다. 이는 이미 학교교육에서 진행된 영화교육과 영국의 사례에서도 충분히 밝혀진 사실이다. 넷째, 돌탑영화는 즐거운 영화작업이다. 영화를 만들어서 수많은 영화제에 출품하려고 만드는 영화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서 감독의 지적처럼 영화만들기에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면 스태프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오고 나갈 수 있다. 다섯째, 세대 간의 소통을 통해 단절을 극복할 수 있다. 돌탑영화는 세대 간의 구분 없이 영화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1. 단행본

신지승·이은경, 『떠돌이 감독의 돌로 영화만들기: 마을영화 그리고 돌탑영화』, 아름다운사람들, 2009.

Levinson, Paul. *New New Media*, Allyn & Bacon, 2009. 설진아·권오휴 옮김, 『뉴뉴미디어』, 피어슨에듀케이션코리아, 2011.

Lunch, Nick and Lunch, Chris. *Insights Into Participatory Video: A Handbook for the Field*, InsightShare, 2013.

Yang Kyung-Hwa, *Participatory Video in Adult Education: Cultivating Participatory Culture in Communities*, Springer, 2016.

2. 논문 및 보고서

김명준·이기중,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의 새로운 영상 패러다임으로서 '참여 영상 (Participatory Video)'의 의미에 대한 고찰」, 『한국방송학보』, 20(2), 2006.4, pp. 44-81.

이아람찬, 「문화예술교육으로서 영화교육: 예술강사 지원사업과 교직과정을 중심으로」, 『모드니 예술』, 2011, Vol. 4, pp. 87-100.

이윤정, 「영화 찍고 별도 보고, '이색체험' 양평 구둔마을」, 『경향닷컴』, 2010년 02월 23일.

최상희, 「British Film Institute의 기능과 지원사업」, 『KOFIC 해외통신원 리포트』, 201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3 예술강사 지원사업 효과분석 연구 제안요청서」, 2013.

Elder, Sarah. "Collaborative Filmmaking: An Open Space for Making

Meaning, A Moral Ground for Ethnographic Film,” *Visual Anthropology Review* 11 (2), 1995, pp. 94 - 101.

3. 인터넷 자료

김수연, 「2009 한국 다큐멘터리 기상도」, 『Cinno』, 2009.

[http://files.kofic.or.kr/eng/publication/Special_7.pdf] 2014년 4월 20일 방문.

신준섭, 「환경생태영화 전문감독 '신지승', 영화 밖서 자연을 노래하다」, 『그린포스트코리아』, 2013년 4월 22일.

신지승과함께영화만들기,

[<http://blog.naver.com/ofia22?Redirect=Log&logNo=140110566160&from=postView>]

오프앤프리, [<http://www.offandfree.blog.me/>]

최보연, 「창의성과 교육의 만남-크리에이티브 파트너십(Creative Partnerships)」, 『아르떼진』, 2006년 8월.

[<http://nuri.arte.or.kr/foreign/view.jsp?articleIdx=286>]

Adventures in alternative cinema,

[<http://www.shropshiremedianetwork.com/latest/adventures-in-alternative-cinema/>]

Creative Partnership,

[<http://www.creative-partnerships.com/>]

Creative Partnerships Brochure,

[http://creative-partnerships.com/wp-content/uploads/Creative_Partnerships_brochure.pdf]

Screenwaves,

[<http://www.reelsolutions.co.uk/index.php/screenwaves/>]

■ 국문초록

본 논문은 참여영화를 통한 영화교육의 확장성에 대한 연구이다. 그동안 학교라는 울타리에서만 진행된 영화교육의 경계를 뛰어넘어 지역 공동체 중심의 참여영화에 대해 접근하고 있다. 올드미디어에서는 정보제공자와 수신자의 위치가 확고한 반면, 뉴미디어에서 정보제공자와 수신자가 수시로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정보제공자가 수신자가 될 수도 있고, 수신자가 새로운 정보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영화만들기는 언제나 전문가집단만이 향유해왔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경향이 변하고 있다. 기존 상업영화의 형태와 다르게 참여영화는 개인의 관심 역영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협동적인 담론과 공동의 주제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소외된 지역의 영화적 경험을 확대하려는 영국 정부의 노력과 문화예술교육으로써 영화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영화적 경험의 확대라는 점에서 공동체영화의 개념을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신지승·이은경 감독의 돌탑영화라는 마을영화운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공동체영화의 실재를 살펴보고 있다.

주제어 ● 참여영화, 신지승, 창의적 파트너십, 디지털 스크린, 돌탑영화, 이은경

■ Abstract

Beyond Film Education:
Rural and Community Cinema Schemes

Lee, Aramchan

This paper explores collaborative filmmaking by Director Shin Jiseung and Lee Eunkyung's rural and community cinema schemes focusing on community cinema. Generally speaking, Britannica is old media, and Wikipedia is new media. In the old media, information providers and recipients are totally distinctive, while the providers and recipients in the new media are not distinctive at all or their relation can be swap each other. In other words, the information provider may be a receiver sometimes, and the receiver is able to produce new information. Making films has always been only enjoyed by the experts, but this trend has been changing in recent years. Unlike commercial films, so-called community cinema is to focus on cooperative and collaborative discourse rather than individual interests. In this context, the nematic experience of marginalised areas in the UK, British government tried an efforts to expand filmic audiences with a few pilot projects. Also in South Korea, Korea Arts and Culture Education Service expands film education to the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students. Most of all, this paper looks at he expansion of a cinematic experience in the community by Shin Jiseung and Lee Eunkyung as a non-governmental organisation.

Keyword ● Collaborative Film, Shin Jiseung, Creative Partnership,
Digital Screen, Stone Tower Film, Lee Eungyeong,
Participatory Video

■ 논문투고일 : 2020. 04. 30. ■ 심사완료일 : 2020. 05. 17 ■ 게재확정일 : 2020. 05. 25



영화촬영분야의 교육과정 연구:

1999년부터 2010년까지의 대학교육을 중심으로

김 병 정*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영화관련 학과의 영화촬영분야 교육현황
3. 영화산업 현장의 변화
4. 영화촬영분야의 수요 지향적 커리큘럼
5. 맺음말

1. 들어가는 글

1999년 영화'쉬리'의 흥행은 영화산업 지형에 몇 가지의 변화를 가져왔다. 영화의 흥행은 자동차 1만여 대의 생산효과에 비견될 만큼 한국영화의 경제적 가치를 주목하게 했으며, 예술과 엔터테인먼트 중간 어디쯤으로 인식되어지던 영화도 하나의 산업으로서 다시 보게 했다.¹⁾ 뒤를 이어 '공동경비구역JSA(2000년)', '친구(2001년)'등 연이은 한국영화의 흥행으로 한국

* 목원대학교

1) '실미도와 '태극기 휘날리며' 두 편의 흥행수입은 당시 인기 승용차였던 SONATA 1만2천여대의 생산의 부가가치 유발효과와 비교되었다.

부산일보, '[눈높이 경제이야기] 영화와 경제학', 황문성, 2005.10.2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2&aid=0000066519>

영화의 역량에 대한 희망적인 전망들에 힘입어 영화산업의 자본과 투자구조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이러한 인기를 바탕으로 2000년을 전후하여 무수히 많은 영화관련 학과들이 경쟁적으로 생겨났으며 높은 인기와 더불어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나 200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학과의 인기도, 경쟁률도 전처럼 높지 않았고 이내 여러 가지 이유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통폐합 되는 등 구조조정되면서 사라져갔다.

이 글은 1999년 이후 대학에 우후죽순 생겨났던 영상관련 학과들이 도태되어 가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화촬영 분야를 중심으로 한 대안적이고 수요지향적인 영화실기 교육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 순서로 우선 현재 영화산업현장의 시장상황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전국의 영화관련 학과들에 개설되어있는 영화촬영관련 커리큘럼과 장비보유현황을 살펴보고, 현장의 다양한 수요와 현장시각에서 제안하는 수요지향적 커리큘럼의 직접적인 모델을 만들어보고자 한다.

2. 대학의 영화촬영분야 교육현황

1) 영화관련 학과의 교육현황과 문제점

2000년을 전후부터 한국영화에 대한 기대와 인기에 힘입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영화관련 학과들은 이들이 처음 만들어질 때의 원대한 포부에 비해 현재에 와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한국영화의 인기를 업고 생겨난 이들 학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먼저, 영화관련 학과를 만들어 안정된 커리큘럼을 구축할 때까지의 시간과 초기 투자비용을 정확히 예측하는데 실패하여, 대략의 모호한 청사진만

을 가지고서 막상 학과를 만들어 놓고 보니 예상보다 큰 비용이 필요하게 되어 재정적인 문제에 봉착한 경우가 있다. 이들 학과들은 나름대로 원대한 포부를 갖고 일단 학과를 만들어 교수진을 구축하고 일이 년 정도의 커리큘럼을 나름대로 운영해보고 나서야 뒤늦게 제대로 된 영화교육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비용이 계속해서 소요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로 인해 예상보다 훨씬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인 재정적자를 겪게 되고 또 이러한 재정적인 문제가 학과 커리큘럼의 안정화에 걸림돌이 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처하게 된다. 이 학교들에게서 영화관련 학과는 이미 많은 비용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요비용은 그 어느 학과보다도 큰, 학교 입장에서 보면 계류과 같은 학과가 되어 버렸다. 많은 학교들은 당장 실적이 나지도 않는 학과에 학과간의 형평성을 무너뜨리면서까지 무리해서 지원을 계속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많은 비용이 이미 소요된 학과를 쉽게 포기할 수도 없는 난처한 입장에 고민하고 있다.

영화관련 학과가 처한 재정적인 어려움은 보다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유발시킨다. 크게 보면 대부분의 사립학교에서 학과가 갖는 어려움은 사실 재정적인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것은 사실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다. 학과의 재정적인 문제가 유발시키는 세부적인 문제들을 큰 틀에서만 몇 가지 살펴보자면 우선 시설과 기자재와 관련된 문제를 들 수 있다. 이들 학교들이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을 전후로 도입한 장비들은 이후 급격한 영상기술의 변화로 인하여, 특히 디지털영상분야에서는 그리 길지 않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이미 현장에서 도태되어 가고 있다. 또한, 한두 가지의 장비로 영화의 모든 파트를 교육할 수도 없거니와 영화제작을 위해서 학교에서 모든 파트의 전문적인 장비를 갖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혹, 과감한 투자로 이들 장비들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급변하는 영상기술로 인하여 불과 수 년 만에 새로운 장비를 도입해야하는 지경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시설투자에 이러한 시행착오를 거치기에는 영화관련 학과는 투자비용이 너무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때문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뒤늦게 영화관련 학과를 포기하는 학교들도 생겨나는 실정이다.

시설 및 기자재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은 장비의 유지보수에 관련된 부분이다. 먼저, 장비에 덜 숙련된 학생들이 사용하는 장비들은 장비 원래의 수명보다 현저히 수명이 짧은 게 사실이다.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들에선 고장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장비들을 상당수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비들을 각각의 회사에 보내 수리하기에는 비용과 시간, 인력이 과도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쌓아놓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영화관련 장비들을 생산하는 국내 업체가 적기 때문에 해외의 업체로 간단한 수리를 의뢰하는 경우에 원래의 장비가격에 맞먹는 수리비를 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장비의 수리를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업체도 전무한 실정이다. 장비의 종류도 많고 이들 장비에 관한 분야도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상 한 업체에서 이 모든 것을 전문적인 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보수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굳이 해외 본사의 A/S를 요하는 정도가 아닌 경미한 고장 정도라고 하더라도 이들 장비를 유지, 보수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추기도 어렵다. 어쨌든 폭넓은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어느 정도 갖춘 인력도 많지 않거니와 인건비 또한 학과에서 장비관리에 소요하는 비용의 규모에 비해 상당히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갑자기 늘어난 영화관련 학과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 또 다른 원인은 학과의 투자와 실적에 관한 손익분기점을 너무 짧게 잡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들 학과들은 영화관련 교육이 초기시설투자비용이 다른 학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학교가 이들 학과에 투자한 시간과 비용대비 학과의 실적에 대한 예측이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예술교육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경제논리로만 접근하여, 단기간에 예상처럼 쉽게 가시적인 실적을 얻을 수 없자, 뒤늦게 몇 년간의 계속된 투자비용의 효율성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된 것

이다. 갑자기 치솟은 한국영화의 인기에 고무되어 산업현장과 시장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학과의 미래에 대해 막연히 핑크빛 청사진을 꿈꾸었다가 뒤늦게 현실의 벽에 부닥치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커리큘럼의 노하우가 다른 학과와는 현저히 다른 영화학과의 특수성을 미처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종합예술인 영화의 특성상 여러 가지 교과목들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최종적으로 영화작품을 완성해 내는, 교과목과 전체 커리큘럼이 하나의 유기적인 체계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각각의 교과목들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평가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근래에 만들어진 영화관련 학과들은 학과가 생긴 지 오래 되지 않아 거의 매년 커리큘럼이 새롭게 바뀌는 경우가 많다. 학과에서는 신생 학과의 특성상 미처 안정화되지도 않은 커리큘럼을 급변하는 영상기술에 발맞추어 수정하면서도 그야말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장상황의 눈치도 보아야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이다. 학과들 이상으로 학생들도 매 학기 큰 틀이 바뀌는 이러한 커리큘럼의 변동에 우왕좌왕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학과에서 배출하려고하는 인력이 정확히 영화산업의 어느 부문을 담당할 인력을 창출할 것인지에 대한 학과의 목표설정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과들 스스로도 몇 년간의 교육 시행착오를 통해서 학과의 정체성에 의문을 갖게 된 점이 있다. 많은 영화관련 학과에서 비슷비슷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개성 없는 인력들을 대량 배출하게 됨으로써 졸업생은 많으나 영화산업 현장에선 항상 인력난에 시달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에 대한 학과들 스스로의 발전적인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 부분은 4장의 '영화촬영분야의 수요지향적 커리큘럼 개발을 위한 제안'에서 자세히 살펴 보고자 한다.

2) 전국 영화관련 학과의 개설현황

우리나라 대학에서 영화관련 학과가 만들어진 것은 1953년 서라벌예술

학교에 연극영화과가 생기면서이다. 4년제 대학으로는 1959년 처음으로 중앙대학교에 연극영화과가 개설되었다. 이어 1960년 동국대학교에 연극학과가 만들어진 후 1962년 문학부소속의 연극영화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한양대학교는 1962년 영화과를 개설하여 영화교육을 보다 전문화하고자 했다. 그로부터 서울예술전문대학 영화과(1964), 청주대학교 연극영화과(1981), 경성대학교 연극영화과(1983), 단국대학교 연극영화과(1988)가 개설되었다.

그 후 상명여대, 용인대, 영상원 등이 영화관련 학과를 개설하고 90년대 후반부터 많은 대학에서 경쟁적으로 영화관련 학과를 개설하여 2006년에는 전국에 4년제 대학의 경우 74개 대학에 영화관련 학과 또는 학부가 개설되었고, 2·3년제 대학의 경우 29개 대학에서 영화관련 학과(부)를 개설되었다.²⁾³⁾

3) 대학의 영화촬영 관련 교과목 개설현황 및 주요 촬영기자재 보유현황

2002년도 문화컨텐츠교육기관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각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영화관련 학과들에서는 [표1], [표2], [표3], [표4]에 정리된 바와 같이 영화촬영전공의 유무와 관계없이 영화제작실습을 진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커리큘럼 안에서 영화촬영과 관련된 학과목을 마련하고 있었다.⁴⁾ 경우에 따라 커리큘럼에 영화촬영 학과목을 직접 마련하지 않고 영화연출이외의 제작실기과목을 제작실습이나 영화제작워크샵 등의 수업에서 포괄적으로 교육하는 형태도 있었다.

대학의 영화촬영 관련 교과목은 각 학교의 커리큘럼 중에서 영화촬영과

2) 2006학년도 신입생 모집 학교 기준.

3) 각 대학 영화관련 학과제열 및 학부제도의 변동이 잦아 학과의 명칭 등에 변동이 많다.

4) 한국문화컨텐츠진흥원, “문화컨텐츠 교육기관 현황조사”, 2002. 02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과목들 이외에도 ‘사진실습’, ‘색채학’ 등 영화촬영을 공부하기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미술기초과목 등이 별도로 개설되어 있는 학교도 있었다.

[표1], [표2]의 영화관련학과 중에서 연기과, 애니메이션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각 학교의 영화촬영관련교과목 현황과 주요 촬영기자재 보유현황은 각 학교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커리큘럼과 교과목 개설현황은 거의 매년, 매학기 각 학교의 실정에 맞게 유동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2007년 현재 커리큘럼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주요 촬영기자재 보유현황은 영화용필름카메라, 비디오카메라, 스틸카메라 등 촬영용 카메라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 1] 4년제 대학 영화관련 학과의 영화촬영관련 교과목 개설현황 및 주요 촬영기자재 보유현황

대학명 및 학부	영화촬영관련 교과목	주요 촬영기자재 보유현황
가야대학교 연극영화학과		Arri 16BL(2)
강원대학교 영상문화학과		
경기대학교 다중매체영상학부 매체전공	촬영과 조명	
경성대학교 연극영화학과	촬영실습	Bolex EBM(3), Arri 16ST(4), Canon Scoopic(2)
경주대학교 예술학부 영상예술 학전공	기초사진실기, 흑백압실기초, 색채학, 스튜디오실기, 컬러사진	
경희대학교 예술디자인학부 연극영화전공	촬영과 녹음 기초, 촬영조수/그립 /일렉트리션, 촬영과 조명	
국민대학교 공연예술학부 연극영화전공	사진실습, 촬영 및 편집1·2	
단국대학교 예술조형학부 연극영화전공	촬영/조명1·2	Arri 3(1), Arri 2C(1), Arri 16BL(1), Arri 16ST(4), Canon Scoopic 16M(1)
대진대학교 연극영화학부	촬영	K-3
동국대학교 연극영상학부 영화영상전공	촬영조명실기1·2	Eclair, Aton 16, Arri 16BL, Arri 16ST, Canon Scoopic 등 총 11대
동신대학교 예술학부 연극영화 TV전공	영화촬영이론과 실습	영화카메라(4), 디지털비디오카메라(2)

상명대학교 영상학부 영화전공	영화촬영1·2	Arri 16(8)
서경대학교 연극영화과	영화촬영, 사진	
성균관대 예술학부 영상학전공	촬영기초1·2,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과	촬영1·2	
수원대학교 연극영화학부 연출이론전공	사진실습	
용인대 영화영상학과	촬영/조명1·2, 필름현상 및 프린트	Arri 16ST(3), Arri 16BL(1), Arri 16SR2(2)
우석대학교 공연예술학부 영화전공	촬영기초, 촬영실습, 사진학개론, 영화조명	Arri 16M(1), Arri 16BL(1), Arri 16SR2(1)
전주대 예체능계열 영상학부 영화전공	비디오촬영기초	
중앙대 영화학과	사진, 촬영, 특수촬영	Arri 16BL, Arri 16ST
청주대학교 공연영상학부 연극영화전공	사진, 촬영	
한양대학교 연극영화학과	사진실습, 영화촬영이론과 실습	Arri16ST(8), Arri 16M(3), Arri 16BL(1)
한서대 영상연출학과	조명실습, 영화촬영실습	
호남대 다매체 영상학과 영상전공	사진실습1·2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영화과	촬영기초1·2, 촬영초급1·2, 촬영중급1·2, 촬영고급1·2, 사진실습1·2, 스튜디오WS	Arri 16ST(10), Arri 16SR2(6), Arri 16SR3(3), Arri 16SR3 HS(1), Arri 35BL-E(1), Betacam(4), 비디오캠코더(20)

[표 2] 3년제 대학 영화관련 학과의 영화촬영관련 교과목 개설현황 및 주요 촬영기자재 보유현황

대학명 및 학부	영화촬영관련 교과목	주요 촬영기자재 보유현황
공주영상정보대 방송영상제작계열 촬영조명전공	정사진실기, 영화촬영기초, 영상색채연습, 촬영조명실습, TV촬영기법	
대구과학대 연극영상과	촬영실기	
백제예술대 방송연예과	촬영	베타캠, DV카메라
서울예술대 영화과	촬영1·2·3, 영상조명디자인	

[표 3] 2년제 대학 영화관련 학과의 영화촬영관련
교과목 개설현황 및 주요 촬영기자재 보유현황

대학명 및 학부	영화촬영관련 교과목	주요 촬영기자재 보유현황
부산경상대학 방송연예과	ENG촬영실습	
대경대학 연극영화방송계열 방송제작전공	영상촬영	
동아방송대 영상제작계열	사진학, ENG카메라, 스튜디오카메라	Arri, Ikegami H-323, VY27B, Panasonic AJ-D200, Panasonic VGEX1, Panasonic NV-DJ1, Panasonic NV-DJ100, Shotoku TE-12, Nikon FM-10, CAMBO 대형스틸카메라
동아방송대 영화방송계열	촬영	
부산예술문화대 영화영상과	촬영과 조명	
서일대학 연극영화과	영화촬영 및 조명론	

[표 4] 대학원 영화관련 학과의 영화촬영관련
교과목 개설현황 및 주요 촬영기자재 보유현황

대학명 및 학과	영화촬영관련 교과목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연극영화과	촬영/조명
용인대학교 영화영상제작	필름현상 및 프린트, 영화/영상촬영조명1·2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연극영화과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연극영화과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영상예술학과	영상이미지와 색채, 촬영실습, 촬영연구, 조명연구
서강대학교 영상대학원 영상미디어학과	촬영워크숍1·2, 사진학
청주대학교 예술대학원 연극영화학과	

3. 영화산업현장의 변화

1) 산업구조와 시장의 변화

90년대 후반의 한국영화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이후 한국영화의 투자 제작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영화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투자조합이 생겨났으며, 금융자본들이 영화 제작에 투자되고, 이는 또 소규모의 가내수공업형태였던 제작사가 주식회사와 같은 형태를 갖추고 상장회사로 성장하기도 했다. 그것은 영화산업에 대한 인식이, 금융자본이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을 만큼의 시장성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도 있고, 또한 그만큼 제작시스템이 객관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표준 형태를 갖추기 위해 노력한 결과이기도 했다.

또한, 근래에 이르러서는 대기업의 거대자본이 영화산업에 유입되어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투자, 제작, 배급 및 극장산업까지를 아우르는 거대 메이저영화사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현재의 산업형태가 어느 정도 안정된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시장상황과 수익률의 변화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몇몇 거대기업의 투자전략에 따라 영화산업의 구조자체가 휘둘릴 수도 있을 만큼 시장상황이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는 형태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재 시장상황의 특수성을 지나치게 낙관적이거나 또는 비관적인 한쪽의 시각만으로 보려하는 것은 잘못이다. 급변하는 디지털기술과 한국영화와 관련한 정책 등의 변화에 따라 시장상황은 유동적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고, 이 결과에 대해서는 각각의 정치적 견해에 따른 정책적 논의가 있을 것이다.

2) 제작시스템의 변화

영화제작에 금융자본이 도입되면서 투자사와 제작사에서는 그 수익성에 대한 안정적인 모델링을 추구하고자 객관적인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표준화된 제작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 결과 90년대 후반이후부

터 한국영화 제작시스템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사실, 그 이전에는 객관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제작시스템의 모델이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각각의 제작사들이 가진 저만의 노하우들로, 다분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투자와 제작이 진행되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표준화된 제작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노력은 영화제작현장의 스태프들의 역할과 구성에도 필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업무는 보다 세분화되고 전문화 되었으며, 이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하던 '비주얼 슈퍼바이저'나 '디지털 프리덕션 슈퍼바이저'등과 같은 신종 역할도 생겨났다. 수직 계열화되었던 스태프들의 역할 관계도 이전보다 약화되어, 역할 중심의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변화되었고, 역할간의 업무분담도 보다 체계적으로 변화하였다.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기술 역시 제작시스템의 변화에 큰 몫을 차지한다. 디지털 인터미디에이트 기술의 도입은 포스트프리덕션 단계의 양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으며 기존의 필름워크중심에서 디지털작업으로 무게중심이 확실하게 변화하게 했다. 현재 제작되고 있는 대부분의 영화들은 영화의 일부 혹은 전체에 걸쳐 컴퓨터그래픽을 포함한 포스트 프리덕션 과정에서 디지털 인터미디에이트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의 도입은 역시 새로운 역할들을 창출해 내었으며, 이러한 시스템과 스태프 역할의 변화는 특히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도입된 포스트프리덕션 분야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3) 산업인력구조의 변화

영화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산업인력분포의 변화를 살펴보면, 기존의 영화제작현장에서 오랜 조수생활을 거쳐 성장한 인력들 중심의 구조에서, 대학에서 영화를 전공한 인력들이 배출되면서 초대졸이상 고학력자들의 진출이 보다 많아지게 되었다. 2005년 12월에 조사된 영화산업인력의 교육수준별, 인구학적 특성별 표본분포(표5))를 살펴보면, 전체 영화산업인

력중에 초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인력은 전체 남성의 75%, 전체 여성의 84%에 이른다.

[표 5] 영화산업인력의 교육수준별, 인구학적 특성별 표본분포5)

(단위: 명, %)

구분	전체	교육수준				전공					
		고졸	전문대	대졸	석사	영화 관련	예술 계	인문 사회계	이공계	기타	무관
전체	455	100	86	246	23	160	79	66	53	39	58
남성	304	76	61	154	13	110	40	44	45	19	46
여성	151	24	25	92	10	50	39	22	8	20	12
연령층											
19~24	66	28	17	21	0	23	17	2	6	6	12
25~29	186	36	43	104	3	81	32	26	17	11	19
30~34	131	20	20	79	12	36	19	24	21	12	19
35+	72	16	6	42	8	20	11	14	9	10	8
남성											
19~24	31	18	9	4	0	12	2	2	3	2	10
25~29	122	30	32	58	2	53	19	15	15	4	16
30~34	98	15	15	61	7	30	12	17	18	7	14
35+	53	13	5	31	4	15	7	10	9	6	6
여성											
19~24	35	10	8	17	0	11	15	0	3	4	2
25~29	64	6	11	46	1	28	13	11	2	7	3
30~34	33	5	5	18	5	6	7	7	3	5	5
35+	19	3	1	11	4	5	4	4	0	4	2
전체		22.0	18.9	54.1	5.1	35.2	17.4	14.5	11.6	8.6	12.7
남성	(66.8)	25.0	20.1	50.7	4.3	36.2	13.2	14.5	14.8	6.3	15.1
여성	(33.2)	15.9	16.6	60.9	6.6	33.1	25.8	14.6	5.3	13.2	7.9
연령층											
19~24	(14.5)	42.4	25.8	31.8	0.0	34.8	25.8	3.0	9.1	9.1	18.2
25~29	(40.9)	19.4	23.1	55.9	1.6	43.5	17.2	14.0	9.1	5.9	10.2
30~34	(28.8)	15.3	15.3	60.3	9.2	27.5	14.5	18.3	16.0	9.2	14.5
35+	(15.8)	22.2	8.3	58.3	11.1	27.8	15.3	19.4	12.5	13.9	11.1
	(0.0)										
남성											
19~24		58.1	29.0	12.9	0.0	38.7	6.5	6.5	9.7	6.5	32.3
25~29	(26.8)	24.6	26.2	47.5	1.6	43.4	15.6	12.3	12.3	3.3	13.1
30~34	(21.5)	15.3	15.3	62.2	7.1	30.6	12.2	17.3	18.4	7.1	14.3
35+	(11.6)	24.5	9.4	58.5	7.5	28.3	13.2	18.9	17.0	11.3	11.3
여성											
19~24	(7.7)	28.6	22.9	48.6	0.0	31.4	42.9	0.0	8.6	11.4	5.7
25~29	(14.1)	9.4	17.2	71.9	1.6	43.8	20.3	17.2	3.1	10.9	4.7
30~34	(7.3)	15.2	15.2	54.5	15.2	18.2	21.2	21.2	9.1	15.2	15.2

또한, 90년대 중반부터 해외의 명문 영화학교 등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유학파 인력들이 제작현장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한다. 이들은 각 파트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영화제작현장에 유입되었으며 이들의 활동은 제작시스템과 기술의 발전을 촉매하기도 했다.

현재 영화산업현장의 인력은 크게 나누어 제작현장에서 도제식의 교육을 통하여 경험적으로 기술을 습득한 기존 인력과 학교 등에서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지식을 갖춘 인력들이 함께 공존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기존 도제식교육을 통해 성장한 인력은 90년대 후반이후로는 새로운 인력으로 계승되는 정도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어, 현재 파트의 감독급 직급을 제외하고는 소수의 인력만이 남아있는 형편이다. 이들 소수의 인력은 대부분 5~10년차 정도의 경력자들이며, 새로 영화현장에 진출하는 신입 인력의 대부분은 학교에서 영화를 공부한 인력이다.

영화촬영분야의 산업인력분포에서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변화는 기존 도제식 교육을 통해 성장한 인력들이 팀을 이루어 지속적으로 작업하던 형태에서 충분한 경력을 얻으면 상급직위를 얻게 되는 형태가 무너졌다는 점이다. 지금도 하나의 팀이 지속적으로 결속력을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는 몇몇 남아있으나 이전처럼의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며, 개인 간의 유대관계정도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지금도 영화산업현장의 구직형태는 개인 간의 유대관계를 통한 소개가 상당수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경력과 함께 지인의 평가가 능력과 성향을 평가하는 데에 여전히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미로 분석해 볼 수 있다. 영화촬영분야에서도 이처럼 프로젝트별로 개인적 능력과 경험치에 맞게 팀이 유동적으로 구성되어, 같은 분야에서 활동하는 인력 간에 폭넓은 유대가 펼쳐져 있다는 점이 이전의 작업형태와 크게 달라진 점이라 할 수 있겠다.

5) '영화·TV 스텝진 근로조건 실태 및 관련제도 연구', p81, 한국노동연구원, 2005.12

4. 영화촬영 분야의 수요지향적 커리큘럼

1) 제작현장의 상황과 학교교육

한국영화의 시장규모와 상관없이 갑자기 늘어난 영화관련 학과들은 근래에 많은 인력들을 졸업생으로 배출하였다. 이들 학과들에서 배출된 많은 인력들을 영화산업현장에 포화상태를 넘어 수요와 공급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여 산업인력으로써의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영화현장의 견습생으로 걸돌다가 재풀에 지쳐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제대로 발휘해 보지도 못한 채 자괴감과 실패감을 안고 영화계를 떠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현상은 영화산업으로써도 큰 손해일 뿐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로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들은 개인의 경험과 시행착오의 노하우가 전수되지 못하고 반복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산업인력들이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문제는 한 동안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조건과 함께 한국영화산업의 성장과 제작시스템의 발전에 심각한 저해요인이 되어왔다.

이렇게 양적으로 늘어난 인력에도 불구하고 영화계는 영화계대로 여전히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영화관련 학과들의 교육목표와 커리큘럼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를 위해 영화산업현장의 수요와 현장상황에 대한 다각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2) 전문화, 특성화된 교육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화교육은 학교별로 그 종류와 성향이 다양하다. 어떤 학교에서는 연극영화과에서, 어떤 학교에서는 공연영상학부에서, 또는 방송연예과에서 영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영화교육이 다양한 형태

로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나 이와 같은 점은 영화교육의 다양성차원이 되기 보다는 전문성의 부재로 오히려 특성화된 교육이 어려워진다고 볼 수 있다.

영화관련 학과들의 교육 커리큘럼의 전문화와 관련해서 보완해야 할 점은 크게 두 가지의 방법론적 해결책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하나, 학과의 목표를 명확히 하여 학과가 배출하고자 하는 인력이 정확히 영화와 관련한 산업의 어느 분야에서 활동하게 될 것인지를 고려하여 그에 맞는 커리큘럼을 구축하는 것이다. 많은 학과들에서는 그 목표를 학문으로서의 영화, 예술로서의 영화, 산업으로서의 영화 그 사이에서 어중간하게 설정하여 정작 졸업 후에 그 어느 곳에 진출하게 되더라도 재교육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커리큘럼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다.

영화관련 교육에 있어서 후발주자가 된 학교들은 영화와 관련된 학과목을 골고루 개설하여 균형을 맞추는 정도로 평균적으로 무난한 커리큘럼을 갖추고자 노력하는 경우가 많다. 그 보다 더 어려운 케이스는 전공교수의 부족이나 시설미비 등의 제반문제로 인하여 기본적인 모양새를 갖추기도 어려운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영화제작실무를 위한 학과이나 실제로는 이론중심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된 경우이거나 학과목의 균형을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니 다양하게 교양과목 수준의 포괄적인 기초개념수업에 그치는 전공과목들도 있다.

각 학과들은 영화이론가나 영상정책가로 진출할 영화학자를 양성할 것인지, 영화제작실무를 익힌 영화예술인을 교육시킬 것인지, 산업동향과 시장상황을 읽어 낼 수 있는 비즈니스와 경영능력을 갖춘 제작경영인을 배출할 것인지를 목표를 정확히 세우고, 학과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다른 학교들과 차별화된 특성화된 교육으로 경쟁력을 가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문화된 커리큘럼을 위한 방법론적 제안으로서 다른 하나는 전공분리와 그에 따른 세분화된 맞춤 커리큘럼을 갖추는 것이다. 같은 영화연출수업

이라도 연출전공이 공부해야할 영화연출과목과 촬영전공이 공부해야할 영화연출과목은 다를 수 있다. 각각의 전공에 맞는 특성화된 커리큘럼을 갖추는 것은 다른 학교들과의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차지하는 좋은 방법론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영화촬영분야에서는 촬영기술이외에도 촬영전공이 공부해야할 미학, 미술이론, 연출과 시나리오 등의 학과목이 촬영전공을 위해 맞춤식으로 설계된 커리큘럼을 통해 제공될 수 있다면 이상적이라 할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4년제 대학의 졸업이수학점을 140점으로 볼 때, 한 학기에 해당되는 학점은 17.5학점으로 과목당 3학점으로 보면 약 6과목정도를 한 학기에 이수한다고 할 수 있다. 그 안에서 교양필수과목등을 포함해서 커리큘럼을 구성해야 하는데, 연극영화 학과의 경우 전체 교과목의 50%정도를 연극과목이 차지하고 있으므로 영화전공수업의 경우 한학기당 겨우 2~3과목정도를 개설된다고 보면 된다. 때문에 전공분리 없이는 실기중심의 교육보다는 전반적인 기술을 이해하는데 그치는 커리큘럼을 갖추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⁶⁾

3) 영화산업현장의 촬영분야 수요

앞에서 살펴본 문제의식을 가지고 영화촬영분야의 수요지향적 커리큘럼에 대해 살펴보자면, 먼저 영화산업현장에서 영화촬영분야의 수요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많은 대학과 수험생들은 영화관련 학과들이 모두 영화감독을 양성해내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오해하고 있거나 기껏 영화촬영이라는 분야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고 해도, 영화 촬영 분야의 산업현장의 수요가 영화촬영감독을 배출하는 것이라고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기도 하다.

6) 이충직, '사립대학 영상관련 학과의 현황 및 문제점, 한국영화학회 춘계 심포지엄, 1999, P. 8~9

영화제작 현장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영화관련 학교들이 갖추고 있는 커리큘럼보다도 이미 훨씬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있으며 몇 몇 특성화된 세부분야는 국내 교육과정이 전무하기도 하다. 제작현장에서 영화촬영 분야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인력들은 매우 다양하고 많다. 영화촬영감독과 영화촬영 전문조수 외에도 대부분의 필름처리공정에서는 영화촬영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인력의 역할들은 각각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영화촬영감독을 교육하고자 하는 학과에서 갖추어야 할 커리큘럼과 전문조수를 교육하고자 하는 학과에서 갖추어야 할 커리큘럼은 엄밀한 의미에서 다르다. 하지만, 영화촬영분야에서 전문조수의 양성은 한국영화산업에서 전문조수의 역할이 아직 구체적으로 보장되어있지 않으므로 당장은 대학에서 영화촬영 전문조수를 양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문조수의 교육은 영화산업노동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영화인 재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정도이다. 이 부분은 추후 전문조수들의 역할이 확보되고 이들의 근로여건이 보장됨에 따라 전문조수의 양성프로그램도 훨씬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4) 미래지향적인 미술교육

현재 영화촬영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배 영화촬영감독들은 수요중심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언을 한다.

먼저 촬영감독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한 가지는 예상외로 영화촬영커리큘럼의 전문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미술교육의 필요성이다. 영화촬영분야에서 그동안 이룩한 대부분의 미학적 성과는 이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연구되고 개발되어온 회화에 빚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영화예술의 역사는 불과 100여년에 불과하지만 회화는 훨씬 오래전부터 시각적인 효과와 미학적인 고민들을 발전시켜 왔기 때문이다. 영

화제작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촬영감독들이 입을 모아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부분은 영화제작현장에서 재교육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이다. 영화제작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재교육은 당장 실무에 필요한 기술에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다. 때문에 미술이론이나 미술사, 미학과 관련된 교과들은 유일하게 대학교과과정에서만 가능한 분야라는 점 때문에 제작현장의 촬영감독들이 대학교육의 커리큘럼을 이야기할 때 특히 강조하고 있다.

전 장에서 언급한 영화관련 학과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모든 것을 대학에서 교육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대학에서 4년 동안 전문적인 커리큘럼으로 통한 교육과정을 마치고 현장에 나온다고 할지라도, 제작기술은 교육과정의 개발보다 한 발 앞서 발전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감안하면, 제작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위한 모든 분야의 커리큘럼을 대학이 모두 책임지기에는 그 효율성을 논하기 이전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역시 앞서 논의되었던 것처럼 제한된 커리큘럼 안에 모든 분야를 억지로 우겨 넣었을 때 피상적인 수업이 되어 오히려 전문적인 교과과정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화된 교육을 위해서는 학과의 목표설정을 확실히 하고 목표에 맞는 전공을 분리하여 특성화된 커리큘럼을 운영해야만 경쟁력 있는 학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에서도 학교의 특성에 맞지 않는 분야는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영화제작현장에 필요한 모든 인력을 하나의 대학이 모두 양성할 수는 없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많은 대학들은 이와 같은 원대한 포부를 세워놓고 하향 평준화된 비슷비슷한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5) 공동작업을 통한 실습위주의 커리큘럼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영화제작현장의 업무체계가 현저하게 다른 점 하

나는 작업의 형태가 매번 프로젝트 구성원들의 능력과 성향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때문에 영화제작현장에서는 공동작의 특성을 작업결과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적응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개인을 성향차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영화제작현장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공동작업 형태는 그 중요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개인의 성향에 맡기기 보다는 이를 경험적 노하우로 축적하게끔 하는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학생들은 마찬가지로 공동작업의 형태로 운영되는 실습위주의 커리큘럼을 통해 스태프들과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해가면서 작품을 완성해나가는 과정을 학습하게 될 것이며 오로지 스스로의 능력만으로 작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재능을 가진 인력들이 모여 서로의 능력을 상호 보완해 가면서 영화작품을 완성하게 된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실습위주의 커리큘럼을 구축하는 것은 말처럼 간단한 것은 아니다. 실습기자재를 확보하고, 영화제작의 노하우를 가진 교수진을 확보하여야 하며, 학생들이 각자의 실습작품의 제작과정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실기 중심의 커리큘럼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 위해서는 타 전공수업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 실습과목은 그 과목 자체만으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전공수업들의 교육효과가 집중되어 결과물로 나타나게 되는 총체적인 수업으로 전체 커리큘럼이 매 학기별로 하나이상의 주요 제작실습과목을 중심으로 유기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커리큘럼은 제작현장에서 촬영감독들이 강조하는 '타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문적인 영화촬영능력'을 함양할 수 있게 한다. 영화제작현장에서 맡고 있는 역할이 촬영부문이라고 하여 영화를 촬영부문의 관점에서만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영화작품 안에서 시나리오를 독해하고 연출의 의도와 제작의 방향을 이해하는 가운데에

서 맡은 바 촬영부문의 스타일과 미학적 상승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촬영능력이야말로 영화제작현장에서 활동하는 촬영감독들이 후배 영화인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덕목이다.

6) 고가의 영상장비와 교육기자재

일부 영화관련 학과에서는 각 학과에서 배출된 학생들이 졸업 후에 현장에 빠르게 적응하여 산업인력으로써의 역할을 즉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사용하는 장비의 매뉴얼을 익히는 것이 기초학문을 교육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리하여 현장에서 사용하는 장비와 같은 모델의 기자재를 갖추느라 무리한 투자를 하고, 빠르게 발전하는 영상기술로 인하여 불과 2~3년 만에 이미 현장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고가의 장비를 끌어안고 딜레마에 빠지기도 한다.

이 같은 이유로 인하여 이처럼 빠르게 발전하는 일부 영상장비나 디지털장비와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전망으로 학과에서 보유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산학협동의 가능성에 그 효과에 관한 연구조사'를 통해 영화관련 학과들이 기자재확보에 갖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학교들의 과도한 기자재도입 경쟁으로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는 대안적 사고가 필요하다.

또한, 빠르게 발전하는 영상장비와 관련하여 이 같은 장비의 실무교육은 산업인력의 재교육차원에서라도 검토되어야 한다. 끊임없이 새로운 장비가 계속 도입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인력들이 산업현장에 나올 때에는 이미 새로운 장비가 도입되어 사실상 추가 교육 또는 재교육이 실질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대학에서 장비교육이 불필요하다고 선불리 주장해서는 곤란하다. 장비의 시스템을 모르는 상태에서 현장에서 기초부터 교육한다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대학교육에서도 이들 장비가 향후 몇 년 안에 사라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교육을 등한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이다. 산업인력의 재교육은 대학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 하는 기능이지 대학교육을 산업인력의 재교육이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영화산업노동조합이 영화진흥위원회와 한국영화아카데미의 지원으로 시행하고 있는 산업인력의 재교육에 관한 책임은 관련 정책부서인 영화진흥위원회와 관련 대학, 직접적인 수요가 있는 영화산업현장, 영화산업노동조합 등의 이해당사자들 간에 상호 협력적이고 발전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7) 변화하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적응력을 키울 수 있는 커리큘럼

빠르게 발전하는 영상기술은 직무교육과 관련한 책임을 대학에만 미루어 놓을 수 없게 만들었다. 교육 실수요자와 영화산업현장에서도 이와 같은 직무교육의 필요성이 여러 차례 대두되어 현재 영화인재교육사업이 시행 중이다. 이처럼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는 첨단기술과 관련한 학과에서는 스스로의 교육의 목표와 학과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여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상황과 산업기술의 발전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적응력을 갖추어야 한다. 때문에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당장 필요한 단순기능인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탄탄한 기본기와 변화하는 기술에 대한 적응력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5. 맺음말

현재 전국에 개설되어있는 영화관련 학과들의 현황과 이들 학과들이 운영하고 있는 커리큘럼 현황은 매년, 매학기 크게 바뀌고 있다. 때문에 이처럼 유동적인 학과들의 현황은 정기적으로 보다 자주 조사될 필요가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수의 영화관련 학과들이 새로이 만들어지고, 서로 통합되거나 세분화되는 등 몇 년 사이 크게 바뀐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디지털 장비의 도입으로 영화관련 학과들이 보유한 시설 및 기자재 현황 또한 매년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때문에 지속적인 연구조사를 통해 신생 영화관련 학과들이 빠르게 안정적인 커리큘럼을 구축하고 수요중심적인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맞춤형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조사와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앞으로 학교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일부 고가의 영상장비의 교육적 활용과 관련하여 산학협력의 가능성과 그 효율성에 관한 연구와 영화산업 인력의 재교육에 대하여 관련 당사자들의 발전적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대학은 산학협동 등에 관한 연구조사를 통해 새롭게 도입되는 영상제작기술에 대하여 학회와 산업현장, 영상장비 업체와 연계하여 영상기술의 발전에도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관련 정책부서에서는 영화관련 학과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의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한국노동연구원, '영화·TV 스텝진 근로조건 실태 및 관련제도 연구', 노동부, 2005.12
- 최영순, '영화·방송·공연 산업의 직업변화', 「고용동향분석」,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2004
- 정진화, '대학의 산학연계교육 현황과 활성화 방안', 「KIET 산업경제」, 산업연구원, 2002.02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문화콘텐츠 교육기관 현황조사', (2002.02)
- 김창유, '국내 영상 전문 일력에 대한 인적자원 통계조사 및 분석', 「조형논총」, 용인대학교 조형연구소, 2001.12
- 김창유, '국내 영상 전문 일력에 대한 인적자원 통계조사 및 분석', 「조형논총」, 용인대학교 조형연구소, 2000.12
- 윤재웅, '영상인력양성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1996
- 이승구, '우리 영화교육 현실과 미래', 「영화」, 영화진흥공사, 1994.11
- 양윤모, '21세기 영상전문인 양성으로 가는 길', 「영화」, 영화진흥공사, 1994.11
- 이충직, '이론과 실기의 분리가 필요한 영화학과 교육', 「대학교육」,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94.08
- 이옥범, '고등교육의 수요에 대한 노동시장론적 분석', 「대학원 학술논문집」, 건국대학교대학원, 1993.08
- 장갑상, '영화인 양성과 영화교육', 「영화」, 영화진흥공사, 1985. 03
- 김소동, '영화인 양성과 영화 교육', 「영화」, 영화진흥공사, 1985.3
- 김기덕, '대학 영화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영화」, 영화진흥공사, 1984.07
- Chion, M.(1990), Audio-vision: Sound on screen, Gorbman, C.(Trans.),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4.

■ 국문초록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된 한국영화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영화산업의 경제효과 등을 중심으로 거론되었고, 대학간 경쟁을 가속화하는 교육정책은 대학들이 산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장기적인 안목을 미처 갖추기도 전에 입학자원인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학과를 앞다투어 개설하면서 대학마다 영상관련 학과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게 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90년대말 이후 영화산업은 디지털의 도입과 함께 제작시스템과 테크놀로지의 급격한 변화를 맞게 된다. 더욱이 한국영화산업은 투자, 제작사의 상황까지 더해져 투자, 제작구조에 더욱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면서 장기적인 교육계획 없이 급조한 각 대학의 영상관련 학과들은 큰 위기를 맞고 급기야 구조조정에 내몰리게 된다.

이 글은 90년대말부터 대학의 영상관련학과들이 본격적으로 구조조정되기 시작한 2010년까지 영화촬영 분야를 중심으로 대학의 영화실기교육 여건을 살펴보면서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주제어 ● 교육, 영화, 촬영, 커리큘럼,

■ Abstract

A Study on the Curriculum in Cinematography: Focused on University Education from 1999 to 2010

Kim, Byeong Jung

Public interest in Korean films, which began in the late 1990s, was highlighted by the economic effects of the film industry. And the education policy to accelerate intercollegiate competition resulted in universities rushing to open popular departments even before they had an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industry and a long-term insight, leading to the creation of video-related departments in each university. Since the late 1990s, however, the film industry will face a major change in production systems and technology with the introduction of digital. Moreover, the Korean film industry will experience a drastic change in its investment and production system, and the structure of the film industry will change rapidly. Therefore, the video-related departments of each university face a major crisis and are forced to restructure. The article aims to explore problems and alternatives by examining the conditions of film practical education at universities, focusing on cinematography, from the end of the 1990s to 2010 when the university's video-related departments began to restructure.

Keyword ● Education, Film, Cinematography, Curriculum

■ 논문투고일 : 2020. 04. 20. ■ 심사완료일 : 2020. 05. 19 ■ 게재확정일 : 2020. 05. 24



몰교양의 시대, 대학개혁과 교양교육

최 해 진*

목차

1. 교양 찾아 떠나기
2. 몰교양의 이론과 체계
3. 지식사회의 이상과 교양의 모순
4. 대학 개혁의 본질과 방향
5. 한국사회의 현실과 대학의 교양, 교양교육

1. 교양 찾아 떠나기

교양이 주목받는 시대가 되었으나 진정한 교양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은 세계 공통의 문제다. 21세기 제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다고 논의하는 자리에 ‘인간’은 빠져있는 것이 그 문제의 원인이다. 2010년대 이후 4차 산업혁명보다 ‘대학혁명’이 더욱 중요하다고 믿는 교육개혁이 시작되었고, 교육개혁의 중심에 바로 ‘교양’이 있다. 특히 대학에서는 ‘교양’의 비중과 중요성

*목원대학교

이 커졌고, 역량과 교수법이 여러모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제대로 된 교양의 시대를 열기 위한 성찰과 비전이 지속되고 있고, 얼마간 그것은 유용하게 정책에 반영되기도 하였다. 우리에게 교양의 정체는 무엇이며, 무엇이 인간을 진정한 교양인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화두는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 콘라트 파울 리스만의 저서가 주목되는 것은 그의 사유와 제언이 우리 한국사회에도 관통하는 공감역 안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 시대의 교양을 되물어 교양의 제자리를 찾기 위해 그의 저서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콘라트 파울 리스만의 저서, -『몰교양이론-지식사회의 오류들』을 살펴보면서 교양의 이론과 실천적 담론에 대한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논의를 위해 2018년 한울출판사에서 출간되었으며, 라영균, 서송석, 서정일, 정현경, 최성욱이 번역한 텍스트를 대상으로 삼는다.

저자 콘라트 파울 리스만은 1953년 오스트리아 필라흐에서 태어났다. 오스트리아 빈대학에서 독어독문학, 역사학, 철학을 전공했고, 현재 빈 대학의 철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리스만은 현재 독일어권에서 주목받는 인문학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미학, 예술철학, 문화철학, 사회이론 등 철학 분야의 수많은 논저를 발표했다. 일찍이 2006년 오스트리아에서 처음 출간된 『몰(沒)교양 이론: 지식사회의 오류들』은 2016년 『몰(沒)교양의 행위(Die Praxis der Unbildung)』, 2017년 『도전으로서의 교양(Bildung als Provokation)』으로 이어져 논의를 확장시켰다. 저자는 일련의 저서를 통해 자본주의 가치에 함몰되어 있는 대학 및 지식사회를 비판하고 있다. 리스만은 특히 그의 저서를 통해 대학 개혁의 허상 및 부정성을 설파함으로써 대학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현재 기업에 잠식당하고 있는 우리 대학의 현실을 되돌아보게 한다.

본 저서는 현 시대의 문제점을 살펴보면서 지식의 가치를 탐색하고 대학의 역할을 고민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하다. 교양 시리즈의 첫 시

작이라 할 수 있는 『물교양 이론』을 통해 그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분석하고, 그 지평을 넓혀 우리 사회에 적용하고 다듬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2. 물교양의 이론과 체계

먼저 리스만은 현재를 “전통적인 휴머니즘과 보편적 교육 이상을 저버린 채 정보사회의 조각화되고 파편화된 지식만 난무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사이버지식이 ‘정보’로 전도되고 물교양이 오히려 미덕으로 치부된다는 것이다.¹⁾ 그가 책 앞머리에서 설명한 이 책의 기본 전제도 바로 이러한 사유가 기본이 된 것이다.

지식사회라는 이름으로 널리 선전되고 선포된 것들 가운데 많은 것이 자세히 살펴보면 교양 이념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노골적으로 정치적 경제적인 이해관계에서 나온 수사(修辭)에 불과하다. 지식사회는 결코 새로운 것도 아니고, 산업사회를 해체하지도 못한다. 오히려 수많은 교육제도의 개혁이 지식의 산업화나 경제화를 목표로 하며, 바로 그 때문에 고전적인 교양이론의 여러 개념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잘못 이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²⁾

저자는 원래 인격(인간됨, 인간성)의 구성요소였던 것들, 즉 교양의 정신적인 내용과 관련한 표현들이 피상적으로 습득되고, 그저 사회가 요구하는 표면적이고 물화된 정보 ‘조각’들로 바뀌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현대

1) 콘라트 파울 리스만 지음, 라영균·서송석·서정일·정현경·최성욱 옮김, 『물교양이론-지식사회의 오류들』, 한울아카데미, 2018, 7쪽.

2) 위의 책, 31쪽.

의 매스미디어는 어설픈 교양 형태를 구조적으로 옹호하고 보편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교양 이념의 부재' 즉 교육을 직업교육으로 축소시키고, 지식을 인적 자본의 지표 정도로 깎아 내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곧 정신의 자본화에 따른 결과, 모든 교양은 몰교양이 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몰교양'이란 무식함이나 반문명이 아니라 지식을 철저히 교양이념의 본질과 분리해놓고 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몰교양의 현상을 저자는 9개의 항목을 통해 보여준다. 다음 항목들은 현대사회 교양과 지식의 허상을 분석하고 그 본질이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 선택된 것들이다.

01. 백만장자가 되는 사람 또는 사람이 알아야 할 모든 것
02. 지식사회는 무엇을 안다는 것인가?
03. 교양, 어설픈 교양, 몰교양
04. 국제학업성취도 평가: 랭킹 리스트의 광기
05. 지식의 무게는 얼마인가 : 참을 수 없는 지식의 가벼움
06. 볼로냐 : 유럽 대학의 허상
07. 엘리트 교육과 반(反)계몽
08. 핵심 내용 : 지식의 가치
09. 교육개혁의 중단

제1장 <백만장자가 되는 사람 또는 사람이 알아야 할 모든 것>에서 저자는 독일의 퀴즈쇼를 사례로 들면서 단편적인 지식 자체의 숭배를 고발한다. 교양은 '암기'가 아니라 '이해'인데 현대사회는 '흥미있는 지식'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죽어있는 경직된 지식만을 전파한다고 말한다..

제2장 <지식사회는 무엇을 안다는 것인가>에서는 '지식사회'의 실체를 밝히고 있다. 저자는 현대인의 지식이 '세계에 대한 통찰'이 아니라 효율적 혹은 쓸모있는 정보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정보사회로의 담론이 평생교육,

재교육을 부르짖고 있지만 무엇을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이 없다는 것이다. 지식과 정보를 구분하지 못하고 지식을 경영이나 관리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 큰 오류라고 지적한다. 그러니 대학에서조차 ‘투입’과 ‘산출’을 목표로 하는 지식경영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곧 이러한 현상이 대학교육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분석한다.

제3장 <교양, 어설픈 교양, 물교양>에서는 오늘날의 교양이 시장논리와 기업의 요구에 따라 재편되고 있다는 점을 말하면서 이에 따라 개인의 인격보다 직무능력, 인성보다 성적과 스펙이 더 중요한 사회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교육은 지식 대신 정보를 교육하는 장이 되며 직업교육 전문기관이 되어가고 있다고 비판한다.

제4장 <국제학업성취도 평가: 랭킹 리스트의 광기>에서는 ‘서열화’의 문제점을 예리하게 제기한다. 정량화, 획일화의 폐해는 평가를 위한 평가, 측정을 위한 측정을 낳고, 그것은 ‘비본질적인 것에 대한 이상화’를 만든다. 진정한 대학의 본질을 찾기 위한 경쟁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제5장 <지식의 무게는 얼마인가 : 참을 수 없는 지식의 가벼움>에서는 현 시기 대학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문제삼는다. 오늘날 대학을 짓누르는 ‘평가’의 굴레에서 대학의 질적 평가는 도외시되고 만족도나 강의평가, 논문수, 연구비 수혜 등이 기준이 되면서, 창조성, 독창성은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고 진단한다. ‘정량화’의 이상 때문이다. 이러한 세태는 대학이나 학문, 학자들이 모두 통제 메커니즘에 순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제6장 <볼로냐 : 유럽 대학의 허상>에서는 유럽의 대학교육이 변질되고 왜곡되어가고 있음을 분석한다. 1999년 ‘볼로냐 프로세스’의 발효 이후 유럽대학은 미국식 교육제도를 모방하는 개혁을 시작했다. 이로써 상호교류보다는 단일화에 초점을 맞춘 교육이 되어버렸다. 저자는 대학이 권력과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음에도 외부컨설팅이나 경영학 논리에 의존하여 ‘혁신’이라는 마법에 중독되었을 뿐 ‘학문적 호기심’은 비생산적인 것으로 폄하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은 지식공장으로서의 기능만 살아

날 뿐 고유한 학문적 질을 보장받지 못하고, 인문학은 다른 학문 틈에 끼어서 간신히 생존을 보장받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대학의 비극이라고 진단한다.

제7장 <엘리트 교육과 반(反)계몽>에서는 인문학의 위기 상황을 성찰한다. 우수니 핵심이니 하는 엘리트 학문을 자의적으로 분류하고 '선택과 집중'이라는 미명 하에 비주류 학문을 도태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인문학 내부에서조차 카르텔이 형성되어 엘리트 담론 세력의 기득권이 점차 거대해지고, 결국 학문적인 공공성에 역행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제8장 <핵심 내용 : 지식의 가치>에서는 진정한 지식의 '가치'가 무엇인지 탐색한다. 저자는 현재의 지식이 오로지 경쟁을 위해 포장된 지식이라 말한다. 그것은 오직 활용가능성이 있느냐에 따라 유통 여부가 갈리는 재료로 취급받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의 지식은 '수치로 합산되어 자본화지표를 만들고, 수치와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프레젠테이션으로 압축'된다고 하면서, '지식과 깨달음, 호기심과 이상, 탐구적인 배움과 가르침을 통한 연구, 학문의 자유'가 없는 대학은 자멸할 것임을 경고하는 동시에 대학 본연의 교육 이상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9장 <교육개혁의 중단>에서 저자는 개혁이 본질을 되돌아보지 않고 비판도 허용하지 않는 이데올로기가 되었다고 비판하면서, 돌아보기를 하지 않는 개혁의 결과는 '몰교양'뿐이라고 외친다.

저자는 오늘날의 교양이론은 모두 '몰교양 이론'인데, 이는 우리가 정신조차 '자본화'하는 시대의 함정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교양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사유'와 '내면의 성숙'을 바탕으로 진정한 '지식의 가치'를 찾아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저자 리스만은 현대사회에서 다루는 지식의 가벼움과 그로 인한 몰교양의 행태를 나열하고 있는데, 혁신이나 개혁을 부르짖는 대학에서 오히려 그러한 몰교양을 주도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에서 다루는 '교양'조차 철학적 반성을 바탕으로 두지 않고 오로지 '자본의 통제' 하

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 리스만이 주장하는 핵심적인 개념과 내용을 중심으로 현대사회 우리의 주소를 함께 생각해보는 일이 필요하다.

3. 지식사회의 이상과 교양의 모순

리스만의 몰교양 이론의 첫머리에 ‘지식’ ‘지식사회’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여기서 ‘지식’은 단순히 안다는 것이 아니라 가치와 의미를 창출하고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무엇이다. 곧 분별력이나 현명함, 지혜의 덕목들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따라서 ‘지식사회’는 ‘지식’을 통해 자신을 규정하는 사회공동체로서 규정되어야 한다. 그러니 제대로 된 지식사회는 이성과 분별, 고민과 신중, 오랜 사색과 지혜로운 숙고, 학문적인 호기심과 비판적인 자기 성찰, 가설에 대한 검증으로 비합리성이나 무지, 탐욕 등을 다스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저자는 현재는 지식사회가 아니라 ‘잘못된 정보사회’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보는 깨달음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식에 대한 저자의 견해는 다음과 같은 말에서 잘 드러난다.

지식은 정보 그 이상이다. 지식은 수많은 데이터에서 정보 가치가 있는 것을 길러내기만 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지식은 세계에 대한 통찰이며, 세상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다. 주로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 관점에만 의미를 두는 정보와 달리, 지식은 당연히 단선적인 의미만을 목표로 삼지 않는다. 지식은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하는데 그것이 쓸모없는 것인지 아닌지는 지식이 만들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그 순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사건에 대한 관점에만 초점을 맞추어 데이터를 분석하는 정보와 달리, 지식은 인과관계의 연관성과 내적인 논리적 연결성

에 따라 데이터를 해석하는 것이다.³⁾

지식의 활동과 획득이 이루어지는 사회로 전환된 현대에는 지식노동자가 출현하여 '자신들의 지식을 현재에 적용하고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활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식노동자는 지식의 원리를 따르는 게 아니라 산업화의 원리를 따라가면서 지식인이 아닌 노동자가 되어가고 있다. 대학이 점차 기업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의 지식은 과거 '교양'이라 일컬었던 것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경제논리에 종속된 지식'만을 의미하는 것이다.

현재 대학은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시대를 비판하거나 저항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대학 자체가 기업화하면서 생산을 극대화하는 경쟁에 휩싸이고 있다. 대학생들을 소비자로 모시고, 지성의 공동체를 지식산업사회로 변질시켜버리면서 대학이 자유시장이 되어 산업사회의 도구나 노예를 양산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고 비난받는 것이 현실이다. 아마도 그곳에는 '상품'만 있지 '인간'은 상실된 지 오래일지도 모른다.⁴⁾ 인간이 보이지 않는 대학, 인간을 생각하지 않는 대학, 인간을 가르치지 않는 대학, 꿈이 있는 인간, 희망이 있고 믿음이 있고, 사랑을 갈망하고, 고민하고, 기뻐하고 슬퍼하는 인간,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각하는 인간이 없는 대학은 이미 대학의 존재의미를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⁵⁾

이러한 상황 하에서 지식이 '권력'이 되었기 때문에 근대사회 이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도 이에 따라 재편되었다. 교육은 하층민, 여성, 이민자, 아웃사이더, 장애인, 억압받는 소수자들을 해방시키고 통합할 수 있는 수단이며, 정보사회의 기득권을 둘러싼 투쟁 과정에서 누구나 열망하는

3) 콘라트 파울 리스만, 앞의 책, 54쪽.

4) 이재성, 「대학의 기업화와 인문학-대학의 파국과 인문학의 몰락」, 『한국학논집』 74, 계명대학교한국학연구원, 2019, 262쪽.

5) 윌리엄 J. 베넷/데이비드 와일즐, 이순영 역, 『대학은 가치가 있는가』, 문예출판사, 2014. 참조.

자원이 되었고, 편견, 차별, 실업, 기아, 에이즈, 비인간성, 민족학살을 예방하는 수단으로 행복과 가능성을 가진다⁶⁾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교육은 성실한 유토피아를 보장하지 않았다. 오히려 세속화된 사회의 이데올로기가 되어 지속적인 교육 개혁의 대상이 되었다. 그 결과 교육은 19세기의 낡은 교육에 맞서 직무능력과 유연성을 요구받았고, 성과와 경쟁력의 도구가 되었다. 한편으로는 통합, 감성, 학교성적의 폐지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혁신을 부르짖고 있다. 한쪽에서는 상호 연대와 갈등이 없는 목가적인 통합 공간으로서 학교를 꿈꾸는가 하면, 다른 쪽에서는 경쟁, 테스트, 국제순위, 평가,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효율성 중심의 교과과정을 끝없이 요구하는 것이다.⁷⁾ 리스만은 지금의 교육 논쟁에는 자기 기만과 모순이 있다고 선언한다.

전통적인 교양은 목적을 떠나 자유로운 연관성 속에 문화 전통을 지향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식은 개인의 인성 형성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시류의 강요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개인의 잠재력을 계발하고 지향하는 교양 대신 '지식 경영'을 위한 교육이 현재의 목적이 되고 있다는 것이 리스만의 생각이다. 원자재처럼 생산, 거래, 구매, 관리, 폐기 처리가 되는 지식이 중요해지고, 사람들은 노동과정에 편입시켜 오락산업에나 어울리는 정서를 갖게 하는 '단편지식'을 중요하게 다룬다. 이로 인해 엄청난 교육의 '기만'이 생기는 것이고, 거창한 거짓으로 진정한 교육의 기능과 목적을 상실하도록 속이고 있다는 것이 리스만의 주장이다.

저자는 개인이 공동체 속에서 성숙한 개성과 자의식을 가진 구성원⁸⁾으로 성장하게끔 도와주는 교육, 그로 인해 달성되는 교양의 수준은 시대의 활용가치와는 다른 엄숙하고 숭고한 것이며, 시대를 초월한 것이어야 한다

6) 콘라트 파울 리스만, 앞의 책, 75~76쪽.

7) 콘라트 파울 리스만, 앞의 책, 77~78쪽.

8) 콘라트 파울 리스만, 앞의 책, 80쪽.

고 믿는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적 이상을 흄볼트에게서 찾는데, 다음과 같은 말로 정리된다.

1793년 흄볼트는 보편과 특수, 개인과 공동체가 교양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교양을 통해 인간성을 획득하고 장려하게 되면 주체의 전인적 형성과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교양 이념이 낳은 성과가 인문주의 김나지움과 흄볼트식 이상을 좇는 대학이다.⁹⁾

그러나 오늘날의 교육은 휴머니즘, 인간성, 인간존엄을 다루는 인문교양을 교양의 본질로 다루지 않는다. 현재의 대학은 노동을 준비하고, 사회적 인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가르치는 직업교육기관이 되어가고 있다. 니체는 일찍이 교육의 공간이 삶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곳과는 '정반대'의 공간이라는 점을 역설했는데, 니체의 말에 따르면 학교는 자유의 공간이며 여유로움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니체는 '말하기'와 '사유'를 교육의 핵심으로 꼽았다. 그는 공동체나 역사의 개체들은 언어를 통해 자기 내면뿐만 아니라 외부 대상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언어가 타락하면 관계도 몰락한다고 보았다. 언어는 표현과 창조의 통로라는 것이다. 또한 엄격한 인간의 사유는 판단과 추론을 가능케 하며, 정신의 자유를 보장하는 인간다움의 핵심이라 본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학문 중 '현실적인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분야는 '혐오'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예컨대 고전어, 철학, 수학, 고전문학, 예술, 음악 등이 그러하며 이들은 스스로 자신의 '유용성'을 증명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현대의 언어적 이해란 표면적인 데 불과하며 학생들은 영상 이미지와 시각적 자극에 익숙해져 있어 '새로운 유형의 문맹'¹⁰⁾을 보여주고 있다. 교양

9) 콘라트 파울 리스만, 앞의 책, 82쪽.

10) 손종업, 「반교양 시대의 교양교육을 위한 제언」, 『교양학연구』4, 다빈치미래교양연구

의 영역 중 취업이나 성취 등에 직접 영향을 주기 어려운 인문학 계열의 학문들은 이제 고사 직전이거나 아주 가벼운 형태로 ‘소비’되고 있다. 과거 교양의 이념을 구축한 ‘교양시민계급’은 몰락했고, 그 자리를 막강한 부르주아지들이 대체하면서 교양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기형적 엘리트 교육이 생겨났다. 저자는 이러한 과정에서 교양시민계층의 이상과 규범이 미디어 사회와 만나면서 ‘어설픈 교양’이 나타났다고 설명한다.

어설픈 교양의 풍토에서는 교양 속에 담긴 진리의 내용뿐만 아니라 교양과 살아있는 주체 간의 생생한 관계는 희생되고 상품처럼 물화된 교양의 즉물적인 내용만 남게 된다... 맥락이나 연관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정전을 몇몇 중심 개념으로 축소하고 교수법에 맞게 정리해 습득하는 것을 아도르노는 어설픈 교양의 단면이라고 주장했다. 어설픈 교양은 몰이해로 남는다. 왜냐하면 몰이해는 교양의 전통적인 범주를 고수하면서 자신이 더 이상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위엄있게 명령하기 때문이다.¹¹⁾

곧 교양의 정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단편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고전 혹은 교양의 위엄을 얻은 척 권위적 위엄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어설픈 교양’이 우리 시대의 교양을 대표하고 있으니 진정한 교양은 사라지고 유행이나 산업, 자본주의에 휩쓸려 타락하는 결과를 맞이하는 것이다. 요즘 유행하는 ‘한권으로 읽는~’ ‘깊고 얇게 읽는~’ ‘대신 책을 읽어드립니다’ 등의 시리즈는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그런데 모순적이게도 교양의 상업화, 자본화는 사실 교양의 중요성을 인

소, 2016, 41쪽.

11) 콘라트 파울 리스만, 앞의 책, 96쪽.

식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활용하려는 저의가 깔려있는 것이므로 사실 교양을 인간 본연의 자질로 본다는 점은 다행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의 물질적 이념은 절대로 교양이 과학이나 자본의 우위에서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적절한 '몰교양'을 앞세우면서 교양의 정신을 훼손하며 상품으로 떠돌게 하거나 환호받는 우매함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이를 교양이념의 '포기'로 간주하고 이러한 현상은 교육현장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주장한다. 특히 현 시기 교육목표가 '능력과 역량(스킬)'으로 바뀐 것이 그 대표적인 것이라 본다. 팀워크 능력, 유연성,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인격적인 개성의 사라짐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지식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팀 업무와 네트워크에서 행동할 준비를 갖추지 못한 사람이며, 세계와 미래에 유연하게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¹²⁾ 이것이 바로 '몰교양'의 증거라고 말한다. 이는 인간 이성과 감성이 자신의 주체적 자율성, 주권, 성숙과 함께 하지 못하고 외부로부터 주어진 타율적 인간관에 순응해가는 과정을 교육해가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정신적 전통과 고전적인 교양을 포기하기 때문에 오는 재앙이라는 것이다.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랭킹이나 리스트에 대한 광기어린 집착이다. 학생들과 대학은 평가 기준에 맞춘 만들어진 대학이 되기 위해 힘쓰고 그 기준이 옳은가에 대해서는 의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랭킹 리스트는 교육기관의 질과 가치를 '규정'할 뿐만 아니라 교육정책과 조직, 예산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의 대학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학 역시 이러한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부의 국책 사업은 대학의 현실적 조건이나 특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평가'¹³⁾를 통한 예산지원으로 전국의 대학을 조종

12) 콘라트 파울 리스만, 앞의 책, 97쪽.

13) 평가란 용어는 현대 교육산업의 핵심 개념으로 등장했다. 일례로 미국에서는 대학협의 회와 같은 기관이 각 대학이 그 대학 내부의 교육과 행정을 비롯한 모든 분야를 어떻게 자체적으로 평가하는지를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한다. 한국 같은 경우는 특정 언

하고 호령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성화라는 이름으로 많은 대학에서 특화전략을 구성하고 있지만 그조차도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거의 대부분이다. 몇 년 전 시행한 ‘프라임산업’이 바로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나아가 계량화된 지표들은 정부와 대학, 한국연구재단같은 전문기관과 연구자들이 모두 공유하는 공통의 존재양식이 되어가고 있다. 논문게재 편수, 단행본 저술 수, 학술대회 개최 수 등의 나열로 이어지는 천편일률적인 형식과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런 존재양식에는 다양성보다 획일성을, 자율성보다 종속성을, 순수학문보다 실용 학문을 중시하는 위계질서가 강하게 녹아 있다. ‘평가하는 권력’이 제시하는 지표에 자신을 맞추고자 노력한다. 인문사회 분야의 통폐합이 중심이 된 대학 구조조정, 비정규직 연구자의 확산, 논문 양산 및 연구 성과 부풀리기 등은 모두 이런 환경에서 나온 부산물이다.¹⁴⁾

이에 비해 인문학은 대중화가 활발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초학문으로서의 위상은 점차 사라지고, 전통적인 인문대학이나 문과대학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교육의 환경은 누가 구성하는 것인가, 학문간의 순위나 우열은 어떻게 평가되는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 4차 산업혁명을 외치며 대학이 미래를 대비하는 최첨단 산업기지가 되고자 할 때 인문교양의 위상과 역할을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진지하게 다시 묻고, 교육의 본령이 무엇인가를 성찰해보아야 한다.

4. 대학 개혁의 본질과 방향

저자 리스만은 4장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 이후 교육의 자본화 타락에 대해 경고하면서 현재 교육이 학문적인 양심, 호기심, 자유 등에 대한 탐구

론사가 대학을 평가하여 대학서열화를 부추기면서 교육산업의 팽창을 유도하고 있다. 이재성, 「대학의 기업화와 인문학-대학의 파국과 인문학의 몰락」, 『한국학논집』 74, 계명대학교한국학연구원, 2019, 264쪽.

14) 이재성, 위의 논문, 257~258쪽.

가 아니라, 망상, 활용가치, 통제, 성과 등을 재촉하고 있고, 이것이 모두 '몰교양'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후 본격적으로 대학과 대학교육의 문제를 짚어나가는데 5장 <지식의 무기는 얼마인가>에서부터 9장 <교육개혁의 중단>에 이르기까지 성토를 이어나간다. 현재 대학의 평가는 '질적 향상, 국제화, 효율성, 엘리트 교육, 연구역량 강화, 경제, 지식 자본 지표, 외부 연구비 수혜, 프로젝트' 등으로 개념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지수, 지표, 점수제, 피인용 지수, 상승률, 비용 편익 계산, 투입 및 산출, 설문조사, 조직 분석' 등으로 평가 기준을 산정하고 있는 것¹⁵⁾에 대한 부당함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로 대학의 황폐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리스만은 대학이 추구하는 교양은 특정분야의 전공 세분화 단계에 진입하기에 앞서 근본적으로 지식이론, 지식사, 지식철학적인 방향을 설정해주는 것이 대학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첫단계라고 보았다. 대학의 본질과 의미는 결코 직업교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학문에 대한 몰두, 학문의 발전과 전달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흄볼트의 견해를 지지한다. 대학의 중심 역할은 학문의 발전과 전수에 있다는 것이다.¹⁶⁾

하지만 이러한 인문교양적 대안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현대의 대학교육은 그 사명을 최소한의 노력만으로 얻으려고 지식을 조정하고 그 조건들을 정의하며 몰교양을 드러내고 있다고 있기 때문이다. 곧 지식조차 경영될 수 있다고 보는 현 세태 속에서 지식은 그 사회의 목표를 충족시킬지언정 '인식능력'은 쇠약해지고 말 것이라는 것이 저자의 경고라 할 수 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 우리는 지식사회대신에 오히려 '통제 사회'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으며,¹⁷⁾ '자율성'이라는 미명 하에 보이지 않는 조종을 받는다는 것이다. 바로 경쟁으로 조종되는 통제, 평가, 검증, 규정된

15) 콘라트 파울 리스만, 앞의 책, 118~119쪽.

16) 콘라트 파울 리스만, 앞의 책, 178~179쪽.

17) 콘라트 파울 리스만, 앞의 책, 211쪽.

목표, 성과에 대한 합의, 조절된 메커니즘 속에서 이루어지는 네트워크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물교양에 함몰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비판한다. 저자는 이러한 물교양 사회로의 진입을 ‘교육개혁’이라는 미명으로 대학사회에서 앞장서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여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히려 ‘교육개혁의 중단’이라고 일갈하고 있다.

애초에 대학은 중세 유럽에서 자유로운 지성의 네트워크로 탄생했지만 이후 근대 국민국가 형성기에 대학은 교양교육을 통한 지적 자원의 공급을 그 역할로 삼았다. 그러나 오늘날의 대학은 자본주의적 이념과 시스템이 깊숙이 들어와 있어서 기업화는 물론 관료적 경영체제로 변모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을 기업으로 학생을 소비자로 간주하는 패러다임 속에서 대학은 과연 스스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수 있을 것인가¹⁸⁾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리스만의 주장은 결국 우리의 현실 속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현재 대학은 새로운 ‘대학혁명’을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는 또다른 이론에 주목해보자. 대학 혁명은 대학의 이념을 비롯하여 교육 목적, 교육 내용 및 방법, 학사 구조와 운영 방식 등 대학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¹⁹⁾하는데 다음과 같은 변천 단계를 이루어 왔다는 것이다.

1차 대학혁명은 자유학문교육 중심 대학교육 체제를 구축하고 대학의 기본형을 제시했다. 고전읽기, 질문, 토론 중심의 학풍으로 교양교육의 원형을 형성했다. 2차 대학혁명은 19세기 초 본격화된 연구중심대학의 태동과 전개이다. 근대 대학의 효시로 일컬어지는 훔볼트 대학은 교육, 연구, 학습의 통합을 추창하면서 연구와 교양교육을 위한 새로운 대학 모델을 구축했다. 특히

18) 이재성, 앞의 논문, 257쪽.

19) 백승수, 「4차 대학혁명과 교양교육의 미래」, 『교양교육연구』13-3, 한국교양교육학회, 2019, 13쪽.

보편적 인간 형성으로서 ‘빌둥(Bildung)’을 교양의 개념으로 제시했다. 빌둥을 통해 교양의 이념은 지적 자유 지향에서 바람직한 인간 형성을 추구하는 인격 지향으로 확장되었다. 학문과 교양의 일치, 학문을 통한 교양의 형성이라는 빌둥의 학풍은 학식과 교양을 두루 갖춘 전문직 지향의 ‘교양시민계층’을 창출하였다.²⁰⁾

3차 대학혁명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중적 종합대학의 등장과 확산이다. 대학의 대중화, 학문의 세분화, 지식의 실용화, 연구의 전문화 등 오늘날의 대학 유형으로 일반화된 종합대학 모델은 교육과 연구와 봉사라는 3대 이념을 정착시켰다. 20세기에 들어서 기업적 이데올로기가 교육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으며 교육과정의 효율화를 위한 과학적 경영의 원칙이 도입되었고 정보통신의 발달은 대학교육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동하고 있다.²¹⁾

제4차 대학혁명은 새로운 대학을 요청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4차 대학혁명을 추동하고 견인한다. 4차 산업혁명은 지식 총량의 폭발적 증가, 지식 수명의 급격한 단축, 지식 융합의 가속화, IT기반 스마트 학습의 확산, 인공지능의 활용 확대 등 지식 지형의 원천을 변화시키면서 대학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고 있다.²²⁾

위와 같은 이론을 중심으로 포스트 휴먼 사회 미래대학의 특징을 ‘플랫폼 대학’ ‘융합대학’ ‘혁신대학’ ‘기업가 대학’으로 정리할 수 있다면 이 중

20) 이광주, 『대학의 역사』, 살림, 2008. 참조.

21) 백승수, 「4차 대학혁명과 교양교육의 미래」, 『교양교육연구』13-3, 한국교양교육학회, 2019, 16쪽.

22) 백승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양교육의 방향 모색」, 『교양교육연구』11-4, 한국교양교육학회, 2017, 273~305쪽.

혁신대학은 대학의 첨단화, 실용화, 융합화, 맞춤화, 유연화의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교양교육의 혁신이 필요한 지점에 와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양교육에 대한 혁신은 가르치는 방식과 배우는 방식의 혁신에 국한되지 않고 교육의 내용마저도 바꾸고 있다.²³⁾

진정한 대학 개혁은 곧 교육 개혁이라는 말에 다름 아니다. 21세기 우리는 혹은 대학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협의가 교양교육을 중심으로 일어나야 할 때인 것이다.

5. 한국사회의 현실과 대학의 교양, 교양교육

리스만의 분석은 변하는 시대와 교양의 본질을 다시 성찰하게 한다. 또한 유럽사회의 변화와 한국사회의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21세기에 접어든 한국이 급속한 대학개혁에 몸살을 앓는 이유는 대학의 역할이 기업이나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음을 몸소 증명하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직업교육의 최전선이 되고 있는 대학에서 '교양'의 역할이 부상하고 '전공'에서 다룰 수 없는 다양한 정신과 체험을 하도록 발전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전공이 우리를 한정하고 심화하는 반면에 교양은 또다른 세계의 경계로 우리를 이끌고 통섭적인 존재로 만들며 새로운 지성과 삶을 꿈꾸게 한다. 그러나 기이하게도 형식적인 차원에서 대학교육이 세련미를 더해감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삶의 힘'을 부여하고 낯선 세계(유토피아/타자)에 대한 동경에 이르게 하는 교양교육은 점점 더 소실되어 간다²⁴⁾고 비판받고 있다.

23) 백승수(2019), 위의 논문, 17~18쪽

24) 손종업, 「반교양 시대의 교양교육을 위한 제언」, 『교양학연구』4, 다빈치미래교양연구소, 2016, 31쪽.

그간 물교양을 교육하고 있는 현실을 자각하면서 우리 대학 사회의 현주소를 뼈아프게 자각하는 노력이 이어져 왔음도 주목할 만한 일이다. 다음 의견은 대체로 대학의 교육적 사명에 대해 공감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학은 무엇보다 생활과 인생에 대한 통찰 사이의 균형을 잡는 곳, 다시 말해 문명 발전의 열쇠가 되는 곳이어야 하며, 연구를 통해 지식을 생산하는 창조성,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과 나누기 위한 권위를 갖춘 곳이어야 한다. 또한 이와 동시에 일반적 통념에 도전하는 비판적 사고를 보호하는 장소이어야 한다. 지식의 보고이자 비판적 사고의 보루라는 대학의 두 가지 책무 사이에는 긴장이 내재한다. 이 내재적 긴장이야말로 대학을 살아 생동하는 장소로 만드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²⁵⁾

대학은 궁극적으로 “인성을 갈고 닦아 인간을 길러내는 곳이다. 이는 것만 많은 현자나 단순한 장인, 교활한 궤변론자나 잘난 체하는 전문가만 키워냈다면 대학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것이다. 대학은 지식을 전하기보다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하고 배움의 방법을 제시하며, 힘과 판단력을 길러주고 지성과 도덕성을 북돋아주어야 한다. 대학은 학생들이 어떤 학과에서 무엇을 탐구하든 현명하고 사려깊으며 진보적인 지도자가 되어 사회에 이바지하도록 이끌어야 한다.”²⁶⁾

이미 전 시기 아도르노는 1959년 발표한 『어설픈 교양 이론』과 이후 『아우슈비츠 이후의 교육』에서 파시즘과 유대인 학살의 참혹한 비극의 원인은 정치, 경제적 문제보다는 올바른 교육이 확립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

25) 이재성, 앞의 논문, 265~266쪽.

26) 마이클 로스, 최다인 역, 『대학의 배신』, 지식프레임, 2016, 129~130쪽.

적²⁷⁾한 바 있다. 학교가 교육적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때 세계적 인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현대 사회의 많은 부정적 사고와 인물들의 출현은 ‘올바른 인간’을 길러내지 못한 교육의 책임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올바른 인간’에 대한 지속적인 철학적 문화적 사회적 성찰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탐구하고 진리를 세우는 역할을 대학의 학문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본질을 외면하고 성과와 수치에 종속되는 한 대학의 역할이나 사명 역시 ‘통제’와 ‘경영’ 속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에 진입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4차 대학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주장도 새겨들을 만하다. 특히 첨단인 과학기술들이 또다른 통제의 양상으로 기능할 부정적 영향²⁸⁾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대학 천년의 역사는 교양교육을 발명하고 교양교육의 가치를 확산한 교양교육 진화의 역사²⁹⁾라는 말을 다시 새기면서 대학의 교육과 올바른 교양교육의 확립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개척해야 할 시점이다.

리스만은 바로 이러한 거대한 변화의 시기를 날카롭게 분석하고, 그의 글을 통해 유럽은 물론 세계 대학의 현실을 자각하게 했으며, 진정한 대학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27) 서정일, 『포스트휴먼 사회에서의 대학 인문교양』, 『지식과교양』4호, 목원대학교양교육 혁신연구센터, 2019, 61쪽.

28) 수학, 데이터 IT기술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알고리즘들이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 막강한 권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빅데이터 시대에 인간의 편견과 무지, 오만을 코드화한 프로그램들이 차별을 정당화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대량살상수학무기(Weapons of Math Destruction), 축약해서 WMD라고 부른다. 캐시 오닐은 WMD에 의해 학교와 학생들이 어떻게 데이터의 노예가 되는지 분석하였다. 캐시 오닐, 김정혜 역, 『대량살상수학무기』, 흐름출판, 2017, 93~147쪽.

29) 백승수, 「4차 대학혁명과 교양교육의 미래」, 『교양교육연구』13-3, 한국교양교육학회, 2019, 21쪽.

■ 참고문헌

- 마이클 로스, 최다인 역, 『대학의 배신』, 지식프레임, 2016, 129~130쪽.
- 백승수, 「4차 대학혁명과 교양교육의 미래」, 『교양교육연구』13-3, 한국교양교육학회, 2019, 11~29쪽.
- 백승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양교육의 방향 모색」, 『교양교육연구』11-4, 한국교양교육학회, 2017, 273~305쪽.
- 서정일, 「포스트휴먼 사회에서의 대학 인문교양」, 『지식과교양』4호, 목원대학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2019, 61쪽.
- 손종업, 「반교양 시대의 교양교육을 위한 제언」, 『교양학연구』4, 다빈치미래교양연구소, 2016, 29~50쪽.
- 앤서니 T. 크론먼, 한창호 역, 『교육의 종말』, 모티브북, 2009.
- 윌리엄 J. 베넷/데이비드 와일즐, 이순영 역, 『대학은 가치가 있는가』, 문예출판사, 2014.
- 이광주, 『대학의 역사』, 살림, 2008.
- 이재성, 「대학의 기업화와 인문학-대학의 파국과 인문학의 몰락」, 『한국학논집』74, 계명대학교한국학연구원, 2019, 255~283쪽.
- 제니퍼 위시번, 김주연 역, 『대학주식회사』, 후마니타스, 20111.
- 캐시 오닐, 김정혜 역, 『대량살상수학무기』, 흐름출판, 2017, 93~147쪽.
- 콘라트 파울 리스만 지음, 라영균·서송석·서정일·정현경·최성욱 옮김, 『물교양이론-지식사회의 오류들』, 한올아카데미, 2018.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콘라트 파울 리스만의 저서 『물교양 이론-지식사회의 오류들』을 대상으로 하여 지식사회의 허상과 물교양의 등장, 이로 인한 대학과 교육의 문제들을 살펴본 것이다. 저자는 일련의 저서들을 통해 대학 개혁의 허상 및 부정성을 살피고, 현재 대학 교육의 갈 길을 모색하고 있다. 유럽은 물론 세계 전역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대학사회의 문제점들을 공감하면서 이 시대 교양의 정체와 본질을 성찰하고 있다.

콘라트 파울 리스만의 저서가 주목되는 것은 그의 사유와 제언이 우리 한국사회에도 관통하는 공감역 안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 시대의 교양을 되물어 교양의 제자리를 찾기 위해 저자의 분석과 전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 21세기 한국사회 역시 급속한 대학개혁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방향은 기업이나 수요자들의 요구와 맞닿아 있다.

그러나 대학이 지식과 교양의 본래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올바른 인간을 길러내기 위한 교육적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대학의 학문이 자유와 성숙을 위한 성찰을 통해 진리를 세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현재 우리의 대학 개혁은 여전히 '통제'나 '경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반성과 새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물교양, 교양, 대학 개혁, 지식, 혁명, 교육

■ Abstract

Era of unbildung, University reform and liberal arts education

Choi, Hye Jin

This study examines the problems of college and education resulting from the emergence of virtual society and knowledge of the knowledge society, based on Konrad Paul Liessmann's book [Theory of Unbildung-Errors of Knowledge Society]. The author examines the illusions and negativity of university reform through a series of books, and is currently seeking a path to university education. It reflects on the problems of the university society that are common in Europe and around the world, and reflects on the essence and essence of culture in this era. Conrat Paul Lissmann's book is noticed because his thoughts and suggestions are in sympathetic terms that penetrate our Korean society. It is necessary to consult the author's analysis and prospects to recapture the culture of our time and find the place for it. Currently, the 21st century Korean society is also undergoing rapid university reform, and its direction is in line with the needs of companies and consumers. It is clear, however, that it is important for universities to keep the original values of knowledge and liberal arts, and to fulfill the educational mission to cultivate the right humans. It means that university studies should play a role in establishing truth through reflection for freedom and maturity.

In this regard, we can say that the reform of our university is still in 'control' or 'management', so we need to reflect on it and start anew.

Keyword ● **Unbildung, Liberal Arts, University Reform, Knowledge, Revolution, Education**

■ 논문투고일 : 2020. 04. 25. ■ 심사완료일 : 2020. 05. 19 ■ 게재확정일 : 2020. 05. 24



교양교육의 목적으로서의 ‘말하기’와 발표 역량 강화를 위한 신체 활용 수업의 의의에 대한 소고: 메를로-퐁티의 신체 현상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한 우 섭*

목차

1. ‘자유인’을 위한 전통적 교양교육과 현대 국내 대학에서의 교양교육
2. 수사학에 대한 이해와 소통으로서의 말하기
3. ‘말하기’에 있어서의 신체
4. ‘말하는 신체도식’을 위한 신체 활용 수업의 예시
5. 결론 : 새로운 가치관의 성립과 신체의 자유

1. ‘자유인’을 위한 전통적 교양교육과 현대 국내 대학에서의 교양교육.

‘인문학의 위기와 인문학적 가치에 대한 기대 사이의 모순’. 아마도 현대 우리 사회의 인문학적 지적 풍토를 단적으로 말하고자 한다면 이 한 문장으로 이야기 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즉각적이고 높은 생산성과 가시적인 결과물을 요구하는 현대 사회의 풍토에서 오랜 숙고와 작업이 요구되는 인문학적 결과물과 그 가치는 그 의미에 대한 깊은 반추를 동반한다

* 중부대학교

는 점에서 ‘즉각적’이고 ‘높은’ 생산성을 갖는다고 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속도’와 ‘변화’를 중시하는 현대인들에게서 인문학은 끊임없이 존재의 타당성을 질문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동시에 지식의 기하급수적인 증가와 증가된 지식의 정보화 속도는 그 폭발적인 양상 속에서 더 이상 개별적 연구, 독립된 학문 분야로서는 전체를 조망할 수 없는 지식의 지형도를 형성하기에 이르렀고, 따라서 현대의 지식 활동이란 하나의 학문, 하나의 연구로서가 아닌, 학제 간 상호 연구와 융합을 통해 창조적 가치를 찾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때 그 융합과 창조적 가치의 모색을 위해 인문학에 눈을 돌리는 태도 또한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우리 사회의 대학은 바로 현대의 이러한 지적 양상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다시 말해, 이미 수없이 진행된 인문학과의 폐과 또는 통합은 우리가 직면한 인문학의 위기를 더 없이 명확하게 보여준다. 그러나 그러한 흐름과 동시에 진행된 교양학부 혹은 교양전문대학의 설립과 운용, 그리고 현재 활발하게 논의되는 교양교과목의 개선 노력 및 교양교육의 목표에 대한 논의는 인문학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인문학이 갖는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가치로 인해 인문학을 저버릴 수 없는, 지적 지형도의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대학의 정체성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 이는 인문학에 대한 평가 절하와 중시 사이에서 나타나는 대학의 지형도 변화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의 대학들은 약화 혹은 쇠퇴하는 인문학과의 역할과 의미를 교양교과목에 대한 설계와 투자를 통해 고수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구조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단적으로 말해 현재 국내 대학에서의 교양교과목과 교양교과목을 설계·운용하는 교양학부 내지는 교양대학은 현대적 모습¹⁾의 인문학 교과목이자 인문학과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교양교과목에 대한 증대되는 증대성에 비추어, 과연 우리는 교양교육에 대한 나름의 정의와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슬프게도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1) 여기서 현대적 모습이란 다분히 자본주의적 가치관에 종속된 교육의 양상을 의미한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교양’이라는 단어는 그것이 대학의 교과과정을 지칭하게 될 때, 그 일상적 용례의 단순함과 달리 명쾌하게 정의하기가 쉽지 않은 개념인 듯하다. 만일 우리가 ‘교양교과’라는 개념을 대학에서의 ‘전공교과’라는 개념과 대비되는 것으로 사용한다면, ‘학문, 지식, 사회생활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품위 또는 문화에 대한 폭넓은 지식’이라는 ‘교양’의 사전적 정의는 전공지식과 대비되는 지식인으로서의 기본 소양교육이라는 관점에서의 교양교과의 의미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교양교과가 대학의 교육 목표가 내재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체계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면, 교양교과에는 필연적으로 대학의 교육 정체성에 따른 특정한 목적이 투영되게 되고, 따라서 그 특정한 지향점은 교양교과를 단순한 ‘폭넓은 지식, 품위’ 내지는 ‘기본적 소양’으로만 그치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필자의 관점에서 현재 대학의 교양교육에 대한 논의는 모두 바로 이러한 교양에 대한 접근 방식의 차이에 대한 문제로 귀결되는 듯이 보인다. 다시 말해 건강한 시민으로서의 지적, 비판적 능력 향상이라는 가치를 지니는 전통적 교양 교과목의 목적, 즉 비판적이고 구체적인 사유가 가능한 자유인의 양성이라는 목적을 위한 전통적 교양의 지향점이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실무 능력을 강조하는 ‘역량 강화’라는 대학의 교육 목적에 따라 체계화될 때 나타나는 문제가 곧 전통적 의미에서의 교양 교과목적 가치와 역량 강화적 가치를 강조하는 교양 교과목적 가치와의 충돌인 것이다.

그러나 필자의 시각에서 교양 교과에 대한 전통적 시각과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현대적(혹은 실용적) 시각이 과연 상충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이 둘을 대립되는 것으로 보는 관점이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교양교과에 대한 전통적 가치 속에는 실용적 측면이 부재한다는 생각, 혹은 역량 강화에 주목하는 교양 교과목의 가치 속에는 비판적이고 종합적인 사유 능력의 배양이라는 의미가 부재한다는 생각이 자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고에서는 먼저 현대 사회에서 교

양 교육이 핵심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바를 앞서 언급한 지적 풍토의 변화에 대응하는 '소통'이라고 전제한 후, 현대 대학 교육에서 '소통'의 능력을 배양하는 주된 교과로 자리 잡고 있는 '말하기'류의 수업을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수사학적 관점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이는 '말하기'류의 수업이 추구하는 목적과 그 목적 수행에 요구되는 방법이 결국 전통적 의미에서의 교양 교육의 가치와 구체적인 역량 강화라는 현대적 의미의 교양 교육 가치를 종합적으로 추구하기 때문이며, 이는 곧 교양 교과 개선의 노력에서 핵심적인 문제로 드러나는 '지식인으로서의 교양 능력'과 '실무적인 역량 강화'라는 지향점이 사실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교양 교과에 대한 현대적인 관점의 해석에 따라 절충될 수 있음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2. 수사학에 대한 이해와 소통으로서의 말하기

주지하다시피 우리말 교양(教養)이란 독일어 'Bildung'에 대한 일본식 번역으로서 “나무를 쪼이거나 깎아서 어떤 형상을 만든다는 뜻과 ‘잘 들어맞아 적합하다’는 뜻을 갖는 'bil-'이라는 인도유럽어 음절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²⁾. 이는 곧 교양이 '기르다'와 '가르침'을 포함하는 '교육'³⁾의 가치와 분명하게 구분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이상적인 인간상을 추구하는 인위적이고, 부차적인(기르라는 가치를 포함하는 교육의 원본적 내용과 비교할 때 부차적인) 수단이라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현대적 의미에서의 교양 교과와 맥을 같이하는 '자유학예과목(arts liberalis)'으로서의 교양교과 또한 그것이 자연과 대비되는 것으로서의 문화⁴⁾적 덕목의 실현을 위해 성

2) 손동현, 「교양교육의 새로운 위상과 그 강화 방책」, 『교양교육연구 3(2)』, 한국교양교육학회, 2009, 6쪽.

3) 『孟子』 「盡心上篇」에서 맹자는 교육을 '得天下英才而教育之'라 하여 '교육'이라는 개념 속에 '기르다'와 '가르침'의 덕목이 동시에 내속해 있음을 주장한다.

4) 교양의 독일어 원어인 'Bildung'은 문명, 문화를 의미하는 Kultur와 구분되지만 발을 가꾸고, 가축을 기르는 것을 의미하는 라틴어 cultura로부터 유래하는 culture를 교양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하는 프랑스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인간 고유의 지적 수

립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이상적 인간상에 맞추어 시민을 길러내는 기술적 측면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⁵⁾. 이때 이상적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자유학예과목이란 곧 '문법', '수사학', '변증론(논리학)'으로 구성되는 3학(trivium)과, '산술', '기하학', '음악', '천문학'으로 구성되는 4과(quadrivium)을 의미하며, 이 중 특히 문법, 수사학, 변증론으로 이루어지는 3과란 4과의 학습 이전에 시행되는 기초 학문적 성격을 지닌다 할 수 있다. 즉 사유의 방식으로서의 언술이란 자유인의 덕목으로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자질이자 4과적 지식의 토대이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자유학예교과에 접근할 때 우리는 수사학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의미부여를 할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문법과 논리학과 관계되며, 4과에 대한 필수요건으로서의 수사학이란 단순히 '잘' 말하는 기술, 즉 온갖 미사여구를 동반해 말에 '색'을 입힐 수 있는 기술인 것만이 아니라, 말을 하는 개인의 사유의 정합성과 설득의 논리성을 드러낼 수 있게 하는 지적 역량임과 동시에 그러한 정합적, 논리적 사유를 4과로 확장하여 그 결과물을 상호주관적 세계로 투영하게 하는 기초 역량이 되기 때문이다. 즉 우리는 전통적 자유학예교과로서의 수사학에 '총체적 학문으로서의 수사학'이라는 의미부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⁶⁾

그러나 우리가 수사학에 주목하는 것은 수사학이란 그러한 기초 학문적 성격에 더해 수사학을 활용하는 화자의 소통 능력을 강화하는 학문이라는 사실에 의해서이다. 다시 말해 수사학은, 앞서 우리가 언급한 현대의 지적 지형도가 복잡, 다면화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혹은 우리가 사는 현재

준을 의미하는 교양이란 일차적으로 있는 그대로의 자연과 대비되는 속성, 즉 자연적 속성에 인위적인 힘을 가해 변형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 5) 교양에 담긴 이상적인 인간상의 추구에 관해서는 손동현, 앞의 논문 참조. 라틴어 원어 cultura로부터 파생되는 문화라는 의미에서의 교양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는 이기라, 「프랑스 교양교육의 역사와 이념 : 공교육을 통한 시민교육과 한국적 함의」, 『한국교양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교양교육학회, 2012. 307-308쪽.
- 6) 호세 안토니오 에르난데스 게레로, 마리아 델 카르멘 가르시아 테헤라, 『수사학의 역사』, 강필운 옮김, 문학과 지성사, 2001, 196쪽.

가 복잡한 지적 지형도로부터 파생되는 다양한 가치들이 상존하는 세계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설득과 소통의 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이 보다 증대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현대에 있어서의 수사학의 이러한 특징을 전통 수사학에서 강조하는 수사학의 3요소인 ‘로고스(Logos)’, ‘에토스(Ethos)’, ‘파토스(Pathos)’적인 관점에 대한 이해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⁷⁾. 단적으로 이야기할 때, ‘로고스’란 화자의 말, 나아가 필자의 글 자체에 내재하는 정합적인 체계로서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설득의 논리라고 할 수 있다. 설득이란 곧 말 혹은 글 속에 얼마만큼의 개연성을 담느냐를 통해 그 목적이 달성된다고 할 때, ‘그럴 듯함’, 혹은 ‘있음직함’의 내용은 소통을 위한 기본 조건이 된다. 왜냐하면 의사소통이란 그 말과 글 속의 내용이 청자 혹은 필자가 받아들일만하다고 인정할 때,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에토스’와 ‘파토스’는 글이나 말 자체에 내재하는 내적 성질이라기보다 화자 혹은 청자에게 내재하는 소통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에토스’란 화자의 말에 담기는 설득의 요소로서 화자의 말투, 화법 등에 담기는 ‘믿음직스러운 인상’을 의미한다. ‘화자가 말을 통해 드러내는 믿음직스러운 성품은 설득의 원인이 되며, 특히 정확성을 가할 수 없고 의견이 엇갈릴 때 화자의 성격⁸⁾은 화자의 말에 정확성과 신뢰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덕목이 된다. ‘에토스’와 화자에게 내속하는 수사적 요소인데 반해, ‘파토스’란 청중에게 내재하는 수사적 요소를 화자가 이용하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의사소통의 과정 속에서 설득의 방법이란 말 그 자체의 논리와 화자의 말투나 어법에 담기는 요소뿐만 아니라 청중이 어떤 지적, 심리적 상태에 놓여 있느냐와도 결부되는데, 이는 결국 설득이란 청중으로부터의 이해와 공감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수사학의 3요소를 통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말의 방식, 혹은 사유의 표현으로서의 수사학이

7)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시학』, 천병희 옮김, 숲, 2018, 31쪽.

8) 장소진, 「공감적 소통을 위한 수사적 전략」, 『한민족어문학 82권0호』, 한민족어문학회, 2018, 178쪽.

란 그 속에 맥락의 정합적 구성을 위한 논리적, 지적 성격(로고스)과 공감을 위한 소통적 성격(에토스와 파토스)을 동시에 갖는 다는 것이고, 따라서 현대적 문맥에 있어서의 수사학적 훈련이란 정보 혹은 자료의 취합 및 배열(사유의 측면)과 더불어 화자와 청중 사이의 심리적 장벽을 와해함으로써 의사소통의 장을 개방(정서적 측면)하는 능력의 향상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수사학적 방법이 요구되는 ‘말하기’류의 수업은 다음과 같은 입장 속에서 교양교과에 대한 현대적 문제제기의 해법을 암시한다. 첫째, 수사학적 방법을 요구하는 말하기 수업은 화자의 말의 설득력이란 결국 말의 정합적 체계와 정보의 취합과 배열을 논리적 일관성 속에서 구성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미 지적 교양인으로서의 자질을 요구한다. 다시 말해 말하기 수업의 핵심으로 고려할 수 있는 말의 구성이란 교양인으로서의 지적 능력과 자질, 즉 전통적 의미에서의 ‘토포이(Topoi)⁹⁾를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전통적 의미에서의 교양교육이 추구하는 ‘자유인’ 양성의 흐름 속에 위치한다. 둘째, 이러한 수사적 기법을 요구하는 말하기 수업이란 그 목적이 공감을 요구하는 소통의 장의 구체적인 개선과 실질적인 정보의 취합과 배열, 배열된 정보의 창의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이미 역량으로서의 ‘의사소통’ 강화에 이바지 한다. 따라서 적어도 말하기 수업에 있어서 현재 교양 교육에 제기되는 ‘자질’과 ‘역량’의 대립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그 대립은 오히려 ‘역량’을 가능하게 하는 ‘자질’, 혹은 ‘자질’을 부각시키는 ‘역량’이라는 상호의존적 구조 혹은 가역적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¹⁰⁾.

9) 토포이란 ‘장소’를 뜻하는 그리스어로서 이는 설득적 발언을 가능하게 하는 화자의 사유의 재료 혹은 아이디어를 뜻한다. 이는 곧 화자의 발언에 개연성을 부과하는 화자의 역량으로서 직접적으로 화자의 교양인으로서의 자질 및 역량을 의미한다.

10) 이에 더해 수사학적 능력을 요하는 ‘말하기’ 수업에서의 인성 교육적 측면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현대 교양 교육의 또 다른 화두라고 한다면, 학생들의 지적 능력 향상, 역량 강화와 더불어 어떻게 건강한 시민으로서의 인성, 즉 전인적 교육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일 것이다. 이때 말하기 수업의 수사학적 요소는 ‘에토스’적인 측면에서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에토스’란 이론적인 측면에서 화자 개인적인 태도와 윤리적 행동이라기보다 화장의 말하는 방식에서 드러나는 말의 신뢰성이지만, 사실 화자의 말의 신뢰성이란

3. '말하기'에 있어서의 신체

그렇다면 설득적인 말하기 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교양 교과가 그 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관점에 따라 매우 다양한 지향점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의식적 차원과 무의식적 차원, 사고와 정서, 느낌과 가치관까지 일체화”¹¹⁾할 때 보다 효과적인 설득수단이 될 수 있는 말하기의 특성 상 그 고려 사항이란 전인적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전인적 차원에서의 고려란 발언의 구성과 내용의 적합성에 관련되는 지적 차원과 화자와 청자 사이의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일체감, 그리고 표현의 직접적 방식으로서의 신체의 사용(말의 어조, 속도, 몸짓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적어도 필자의 선행 연구 분석에 국한할 때, 말하기 수업에 있어서의 신체의 활용에 관한 연구는 다른 차원의 분석에 비해 그 결과물이 전무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¹²⁾. 따라서 직접적인 표현의 양식으로서의 신체와 말하기 방식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에 본 논문에서는 메를로-퐁티의 지각의 현상학에 따른 세계 속의 신체라는 개념, 즉 '세계-에로-존재(Etre-au-monde)'와 '신체도식(Schéma corporel)'이라는 개념을 통해 말하기 수업에 있어서의 신체에 대한 이해와 그 활용방안을 이야기 해보도

화자의 윤리적 가치관과 도덕적 행동들과 괴리되어 설명할 수 없는 까닭이다. 따라서 수사학적 관점에서의 말의 설득력이란 말하고자 하는 사실에 대한 화자의 정확한 이해와 더불어 그 이해를 실천하는 실천적 행위를 통해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말하기 수업에서 가능한 전인적 교육의 한 예시가 될 것이다.

11) 김경애, 『어떻게 연극은 학습인가?』, 학이시습, 2013, 28쪽.

12) 국내의 데이터베이스를 참고할 경우 '사고와 표현', '발표와 토론' 등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말하기 수업에 있어 신체적 고려 사항에 대한 연구는 연극과 무용을 활용한 표현의 효과성에 대한 단 몇 편의 연구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며(대표적으로 백승무, 「대학 교양연극의 활용가치와 그 실현방」, 『겨레어문학 54권 0호』, 겨레어문학회, 2015, 123-150쪽. 유인영, 김정우, 「대학생의 건강관련 교양수업참여에 따른 신체구성 및 신체적 자기개념」, 『한국체육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 한국체육교육학회, 2013, 97-110쪽. 등), 이를 철학적으로 분석하는 논문은 찾을 수 없었다.

록 하겠다.

추상적인 인식과 의식의 차원에 선행하는 지각의 현상적 장을 강조하는 메를로-퐁티에게 있어 신체란 세계와 소통하는 직접적인 방식이자 원초적인 언어이다. 이때 신체와 세계의 직접적 소통의 방식이란 곧 신체가 세계를 지각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신체가 원초적인 언어란 신체가 어떤 특정한 자세를 취하고, 어떤 몸짓을 한다는 것은 곧 세계가 신체에게 부여하는 의미, 다시 말해 신체가 세계를 체험하고 있는 직접적 경험의 표현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신체가 세계 속에서 세계와 지각을 통해 소통하며 세계의 의미를 받아들일 때, 신체는 세계를 자신의 방식대로 조정하고, 신체를 자신의 방식대로 배열함으로써 세계와 자신의 관계를 조율하는데, 이러한 신체의 세계로의 열림을 메를로-퐁티는 '세계-에로의-존재'라는 개념으로, 그리고 '세계-에로의-존재'인 신체에 따라 이루어지는 신체의 자기 배열을 '신체도식'이라고 표현한다. 다시 말해, 그에게 신체도식이란 세계와 신체 사이에 존재하는 일종의 자율적 규칙성으로서 이때 신체도식이란 실존적인 주체로서의 고유한 몸을 가능하게 하는 '통일적 원리(le principe unificateur)'이다. 다시 말해, 신체는 신체도식에 의한 하나의 전체성(totalité)으로서 주어진다. 여기서 전체성이 의미하는 것은 나의 "사지들은 다른 부분들과 고유한 방식으로 관계되어 있다"¹³⁾는 것을 의미한다. 신체의 각 부분들이 다른 부분들과 고유한 방식으로 관계되어 있다는 것, 다시 말해 신체가 자율적인 규칙성에 의한 통일적 원리로서 주어진다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신체의 통일성이란 신체가 세계를 지향할 때, 신체가 세계에 놓인 상황에 따라 신체의 각 부분들의 관계, 즉 나의 팔과 다리의 위치, 자세 등이 신체가 놓인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조정됨을 의미한다. 이때 신체의 통일성의 상관항은 신체가 세계에 놓인 어떤 특정한 상황이고, 따라서 상황에 적응하려는 신체의 통일성은 언제나 상

13) Merleau-Ponty, *Phénoménologie de la perception*, Paris, Gallimard, NRF, 1945, p. 114.

황의 변화에 따른 신체도식의 변화에 개방된다. 둘째, 신체도식의 개방성, 변화는 원리적으로 순수한 목적론의 차원에서 형성된다. 즉 신체도식의 변화가 신체가 세계에 적응하려는 관점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때, 그것은 세계가 부과한 상황에 놓인 신체가 스스로 자신의 목적을 가장 합리적으로 완성하는 나름의 체계를 스스로에게 각인한다는 의미이다. 즉 우리의 몸에 축적된 수많은 신체도식은 우리가 세계에서 설정한 수많은 목적을 반영한다. 이를 간단히 설명해 보도록 하자. 현재 나는 노트북을 이용하여 글을 쓰기 위해 의자에 앉아 노트북을 마주하고 있다. 이때 나의 신체는 노트북을 이용해 글을 쓰기 위한 가장 적합한 자세를 취하게 되고, 그 적합한 자세란 각 사지가 개별적으로 자신의 목적에 따라 위치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체적인 신체 구도라는 관계에 따라 유기적으로 조정된다. 현재 나의 팔의 위치는 노트북과의 거리와 위치 뿐만이 아니라 의자에 앉아 있는 내 신체의 높이와 발의 위치등에 따라 가장 적합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글을 쓴다는 목적에 따라 조정된 나의 자세가 곧 지금, 여기서 내 신체가 세계의 상황에 따라 조율한 나의 신체도식이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과정이 의식의 활동 이전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신체도식은 내가 의식적으로 조정하기 이전에 지각적 차원의 세계 이해에 따라 이루어진다. 자판을 두드리는 와중 발의 위치를 조정하여 새로운 자세를 잡는 것은 내가 의식해서가 아니라 나의 신체가 신체도식적 차원에서 불편함이라는 의미를 감지하여 그것을 해소하려는 표현이며, 앉은 자세를 고치는 것은 나의 인식 이전에 나의 신체가 의사의 촉감을 불편해 함을 의미한다(실제로 우리는 의식적으로 지향하지 않는 한 발바닥에서 느껴지는 바닥의 촉감, 엉덩이에서 느껴지는 방석의 촉감 등을 의식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체가 자세를 교정하는 것은 신체에 의한 세계 인식, 신체도식의 변화가 전(前)-의식적 차원인 지각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하나의 예시일 것이다).

그렇다면 메를로-퐁티에 의해 전개되는 '세계-에로의-존재'인 신체와

세계-에로의-존재인 신체가 세계와 상관적으로 구성하고 조율하는 '신체도식'의 개념이 말하기 수업과 관련하여 가질 수 있는 함의란 무엇일까? 그것은 무엇보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의사소통 상황, 즉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세계에 대한 신체도식의 형성 필요성이다. 다시 말해, 효과적인 말하기가 결국 표현의 방식에 대한 훈련을 요구한다면 그러한 훈련이란 곧 직접적인 표현의 방식으로서의 신체의 활용에 대한 훈련이라는 의미와도 통하게 되는데, 이는 개인에게 있어서의 의사소통을 위한 신체도식의 형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만일, 신체에서 이루어지는 지각적 차원의 인식이 의식적 차원의 인식에 선행한다는 메를로-퐁티의 이론이 정당하다면 의사소통 상황 혹은 말하기의 상황에서 신체의 의사소통 상황에 대한 신체도식의 형성이란 "떨지 않을 수 있어" 혹은 "잘 말할 수 있어"라는 의식의 자기암시에 선행하여 자신의 내면에 있는 정서, 주장, 내용을 화술, 표정, 몸짓을 통해 보다 자연스럽게 효과적으로 외연화하기 위해 요구되는 선행 조건이 될 것이다¹⁴⁾.

4. '말하는 신체도식'을 위한 신체 활용 수업의 예시

그렇다면, 이제 의사소통의 장에서 요구되는 신체도식의 구성에 활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 인위적인 상황극의 부여는 말하기 수업 전 신체의 표현 능력을 강화하는 신체도식의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일례로 2012년부터 프랑스

14) 발표 혹은 면접 상황에서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발표와 면접 전 자신의 자세를 최대한 거만하게 유지하기를 권고하는 심리학에서의 연구 결과는 바로 의사소통 상황에서 요구되는 신체도식 형성의 한 예가 될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거만한 혹은 자신감 있는 자세(파워 포즈)의 유지는 발표 및 면접의 초기 상황에서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부여하는 선-의식적 체험을 선사한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체화된 인지(embodied cognition)'이라고 부르는 바 메를로-퐁티의 신체도식과 육화된 의식(conscience incarnée)의 개념과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하버드 경영대 사회심리학자인 에이미 커디 교수의 <https://youtu.be/v84Am4Nj3Fc>의 강연을 참조할 것.

스트라스부르크 대학에서는 본교의 박사 과정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formation-collegedoctoral)이 실시되고 있으며, 이중 ‘목소리(La voix)’라는 수업은 박사 과정생들의 발표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 교양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¹⁵⁾.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 수업의 진행 방식인데, 국내에서의 발표 수업과 다르게 수업은 학생들의 신체 활용의 향상에 주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예를 들어, 수업 초반 교수자는 학생들 모두를 바닥에 눕게 한 후, 최대한 몸의 힘을 빼는 방법을 가르친다던가, 각자 특정한 동물의 행동을 흉내내도록 한다던가, 일상적으로 취하지 않는 동작(이를테면 무용과 같은 동작)을 취하게 한다던가, 혹은 평상시 내지 않는 소리 혹은 발성을 연습한다던가 하는 방식의 교육을 진행한다. 이때 학생들은 이러한 수업의 방식에 낯설어 하나 이내 신체의 활용에 적응하며 자유로운 신체적 활용에 적응되는 순간 자신의 표현이 타인에게 전달된다는 사실 자체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게 된다. 수업에서의 주된 스피치 연습은 신체의 자유로운 활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압박감에서의 탈출(대중 앞에서 말하기에 나타나는 심리적 압박감에서의 탈출) 이후에 진행되며, 이때 스피치 훈련의 주된 내용은 유명한 연사의 말투 및 단어 선택 분석, 발언과 몸짓 활용의 일치 등으로 구성된다. 이 수업의 예에서 살펴볼 때, 학생들의 대중 앞에서의 표현에 대한 부담감 해소란 곧 신체의 다양한 활용을 통해 의사소통의 상황에 적합한 신체도식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심리적 부담감을 신체적 차원에서 해소하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신체의 활용을 통한 의사소통 신체도식의 형성은 이른바 ‘연극놀이(Dramatic Play)’로 통칭되는 연극활용교육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계될 수 있다. 국내 대학에서의 연극활용 표현 교육은 “1997년 고시된 ‘7차 교육과정’의 ‘창의적 사고력’ 조항¹⁶⁾을 통해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15) 스트라스부르크 대학의 박사과정 교양프로그램에 대해서는 https://www. formations-collegedoctoral.unistra.fr/fileadmin/upload/unistra/recherche/formation_doctorale/formations_transversales/Catalogue_2019_2020.pdf. 참조.

‘DIE(Drama in Education)’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연극놀이란 연극이라는 활동을 통해 지적능력의 향상(희곡분석과 상황이해, 인물탐구 등), 공감능력의 향상(인물의 내면상황에 대한 접근 등), 신체적 표현능력의 향상(내면의 풍경을 화술, 표정, 제스처, 행동을 통해 외화하는 작업 등)이라는 전인적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고려된다.¹⁷⁾ 즉, 연극이라는 신체의 활용을 통해 가상적 상황에서의 표현 역량 강화를 지향하는 이러한 수업은 다양한 상황에서의 표현을 체득해 봄으로써 다양한 의사소통의 장에 적합한 신체도식을 형성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인의 표현 역량을 확장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할 수 있다.

5. 결론 : 새로운 가치관의 성립과 신체의 자유

지금까지 본 논고는 교양교육의 목적과 가치에 있어서 상이한 입장차를 드러내는 현대 대학 교양교육의 논쟁을 전통 교양 교과목으로 인정되는 수사학의 현대적 변용이라 할 수 있는 말하기 수업의 목적과 방법을 통해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로 대립되는 교양 교과목의 목적과 가치란 사실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것임을, 또한 말하기 수업을 통해 융합될 수 있는 그 두 가치란 신체의 표현 능력 강화, 즉 의사소통을 위한 신체도식의 형성을 통해 보다 구체화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신체의 활용에 대한 연구가 왜 교양 교육의 강화와 효율성 향상을 위해 요구되는지를 밝히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교양교과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하버드의 교양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교양교육의 목표는 (1)추정된 사실들을 동요시키고, (2)익숙한 것을 낯설게 만들며, (3)현상들 밑에, 그리고 그 배후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폭로하고, (4)젊은이들의 방향감각을 혼란시켜,

16) 백승무, 앞의 논문, 124쪽.

17) 백승무, 앞의 논문, 126쪽.

(5) 그들이 다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길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¹⁸⁾ 이는 교양교육이란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가치관의 설립을 위해 전통과 독단으로부터 벗어나는 혼란을 감수하며, 그러한 혼란 속에서 자유인으로서의 시민으로 성장하는 능력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때 교양교육의 궁극적 목적으로서 제시되는 ‘새로운 방향(가치관)’의 설립을 위해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고, 또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의 견해로 그것은 무엇보다 기존의 틀에 구애됨이 없는 자유로운 정신이며, 메를로-퐁티에게 있어 자유로운 정신이란 세계의 의미를 확장하는 개방된 혹은 기능적인 신체도식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¹⁹⁾ 따라서 신체의 현상학, 지각의 현상학적 관점에서 새로운 가치관의 가능성이란 곧 나의 신체의 세계에 대한 확장의 가능성과 일맥상통한다. 특히, 원초적인 언어로 파악되는 신체의 활용, 즉 몸짓은 세계의 의미를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파악하여 표현하는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말해진 말(parole parlée)’ 이전의 ‘말하는 말(parole parlante)’이며²⁰⁾, 따라서 일반적 의미에서의 ‘표현’, 특히 ‘창조적 표현’을 위한 기본 전제이기도 하다.

자유로운 상황 속에서의 다양성의 확립이란 역사가 증명하는 하나의 법칙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가 의사소통의 상황 속에서 신체를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체화된 의식의 자율성이라고 해석해도 무방하며,

18) 2007년 하버드 대학의 학부 교육과정 개편 보고서, 박규철, 「〈칼 포퍼의 비판적 합리주의와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논평」, 『민주시민교육과 철학의 기여』, 한국동서철학회, 2019, 71쪽에서 재인용.

19) 물론 세계의 선형성을 이야기하는 메를로-퐁티에게 있어서 자유란 언제나 한계를 갖는 자유라는 해석이 가능하며 그러한 해석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신체도식의 개방성은 바로 그러한 한계 지워진 자유 속에서 창조적 의미를 발견하게 하는 동기가 되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즉 의미의 잔여물(le restant du sens)은 세계를 향한 열린 의미의 추적을 가능하게 하는 신체도식의 가능성이기도 하다.

20) 메를로-퐁티에게 있어 ‘말해진 말’이란 관습화된 언어 사용의 반복으로서의 말, 즉 문법적이고 정형화된 말이며, 이에 반해 ‘말하는 말’이란 창조적 의미를 드러내는 개방적 말을 지칭한다. 이에 대해서는 *Phénoménologie de la perception*, Ibid, p. 229.

체화된 의식의 자율성이란 곧 자기검열을 초월하는 사유의 자율성이기도 하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점의 강조와 더불어 말하기 수업에서의 신체 상황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때, 보다 의미 있고 효율적인 말하기 수업의 설계가 가능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경애, 『어떻게 연극은 학습인가?』, 학이시습, 2013.
- 박규철, 「〈칼 포퍼의 비판적 합리주의와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논평」, 『민주시민교육과 철학의 기여』, 한국동서철학회, 2019.
- 백승무, 「대학 교양연극의 활용가치와 그 실현방」, 『겨레어문학 54권 0호』, 겨레어문학회, 2015.
- 손동현, 「교양교육의 새로운 위상과 그 강화 방책」, 『교양교육연구 3(2)』, 한국교양교육학회, 2009.
- 유인영, 김정우, 「대학생의 건강관련 교양수업참여에 따른 신체구성 및 신체적 자기개념」, 『한국체육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 한국체육교육학회, 2013.
- 이기라, 「프랑스 교양교육의 역사와 이념 : 공교육을 통한 시민교육과 한국적 함의」, 『한국교양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교양교육학회, 2012.
- 장소진, 「공감적 소통을 위한 수사적 전략」, 『한민족어문학 82권0호』, 한민족어문학회, 2018.
-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시학』, 천병희 옮김, 숲, 2018.
- 호세 안토니오 에르난데스 게레로, 마리아 델 카르멘 가르시아 테헤라, 『수사학의 역사』, 강필운 옮김, 문학과 지성사, 2001.
- Merleau-Ponty, Phénoménologie de la perception, Paris, Gallimard, NRF, 1945.

■ 국문초록

현대 우리 사회에서의 대학교육의 특이성이란 그것이 지향하는 바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대학의 존재 가치, 즉 이른바 상아탑이라는 대학의 가치에 의해 양산되는 지적 인재 양성이라는 목적에 더해, 사회의 생산성에 기여할 수 있는 효율적 인력 양성이라는 보다 현실적인 목적이 투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려는 이 시대의 이러한 대학 교육의 지향점은 필연적으로 자유인, 혹은 교양인 양성이란 하는 전통적 의미에서의 교양 교육의 목적에 투영되며, 따라서 현대 우리 사회의 대학 교양 교육 또한 보다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설계되고 운영되고 있는 실정을 부정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여러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양 교육의 전통적 가치의 강화 양상은 그러한 효율적 역량 강화를 지향하는 교양 교육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사례라는 것 또한 사실이며, 따라서 현대 대학교양 교육의 고민이란 결국 지적 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 의미에서의 '교양인 양성'과 실제적인 역량을 기반으로 하는 현대적 의미에서의 '효용적 생산인 양성'이라는 두 갈래 길에서의 주저라고 정의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고에서는 이러한 고민을 문제의식 삼아 다음의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진다. 첫째, 그 두 갈래 길이 과연 서로 다른 길인가라는 것. 둘째, 만일 서로 다르게 보이는 그 두 지향점이 결국 하나의 지향점으로 귀결된다면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해 요구되는 보다 효과적인 교양 교육의 방식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이 그것이다. 이때 우리는 그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교양 교육의 핵심을 '말하기', 즉 수사학적 역량의 강화라고 전제하며, 교양 교육의 핵심 역량으로서의 수사학적 능력의 배양을 위한 방편으로서 신체를 활용한 수업의 이점을 메를로-퐁티의 지각의 현상학적 관점을 통해 구체화 한다.

주제어 ● 교양교육, 말하기, 메를로-퐁티, 지각의 현상학, 신체도식

■ Abstract

“Parler” comme objectif de l'enseignement des arts libéraux et l'importance des cours d'utilisation du corps pour améliorer les compétences de présentation : recherches par le point de vue dans la Phénoménologie de la perception de Merleau-Ponty

Han, Woo-Sub

La particularité de l'enseignement supérieur dans notre société n'est pas seulement qu'il vise à cultiver des talents intellectuels des élèves, qui sont la valeur de l'université au sens traditionnel, mais aussi qu'il vise à favoriser des ressources humaines efficaces qui peuvent contribuer à la productivité de la société. Le but de cet enseignement universitaire pour l'adaptation aux changements de la société contemporaine est inévitablement projeté sur la visée de l'enseignement des arts libéraux aux sens traditionnels de cultiver les citoyens libres, par conséquent, l'enseignement des arts libéraux dans la société coréenne est également conçu et géré en mettant l'accent sur un renforcement des capacités plus pratique et concret.

Néanmoins, il est également vrai que l'aspect du renforcement des valeurs traditionnelles de l'enseignement des arts libéraux actuellement pratiqué dans diverses universités est un exemple qui révèle les limites de l'enseignement des arts libéraux visant à renforcer ces capacités efficaces. Donc, la préoccupation pédagogique des arts libéraux dans l'enseignement universitaire est dite comme

une hésitation entre deux manières : «cultiver des personnes cultivées» au sens traditionnel basé sur la capacité intellectuelle et «cultiver des producteurs efficaces» au sens contemporaines basé sur la compétence pratique.

Dans cet article, nous prenons ces préoccupations en question et posons deux questions; tout d'abord, est-ce que les deux chemins bifurqués sont vraiment différents? Deuxièmement, si les deux orientations apparemment différentes aboutissent finalement à une seule orientation, quel est le moyen le plus efficace d'éducation artistique libérale nécessaire pour atteindre cet objectif?

Pour répondre à ces questions, nous supposons que le cœur de l'enseignement des arts libéraux est de «parler» , c'est-à-dire de renforcer la compétence rhétorique et nous incarnons aussi les mérites du cours basé sur le corps comme un moyen pour améliorer la compétence rhétorique en tant que compétence de base de l'enseignement des arts libéraux par le point de vue de la Phénoménologie de la perception de Merleau-Pânty.

Keyword ● Arts libéraux, Parler, Merleau-Ponty, Phénoménologie de la perception, schéma corporel

▮ 논문투고일 : 2020. 04. 28. ▮ 심사완료일 : 2020. 05. 20 ▮ 게재확정일 : 2020. 05. 25

논문투고 규정

2018년 3월 1일 제정

제1조(학술지 명칭)

- 1) 본 학술지는 <지식과 교양>이라 칭한다.
- 2) 본 학술지는 교양교육과 융복합, 지식의 대중화, 학문간 통섭 등에 관한 논문을 발간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의 학술지 <지식과 교양>의 투고·편집 및 발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발간회수 및 시기)

- 1) 본 학술지는 연 2회 발행한다.
- 2) 본 학술지의 발행일은 5월 30일, 11월30일로 정하되, 편집위원회와 학술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발간회수를 조정할 수 있다.
- 3) 학술지의 논문 접수 마감일은 매년 1호 학술지는 4월 20일까지, 2호 학술지는 10월 20일까지로 한다.
- 4) 본 학술지에 게재가 결정된 논문은 투고일자(접수일자), 심사(수정)일자, 게재확정일자를 논문 마지막에 명기한다.

제4조(투고자의 연구윤리규정 준수)

논문투고자는 <지식과 교양>의 연구윤리규정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에 의거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5조(게재불가논문)

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는 원고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항에 속하는 논문이 투고되었을 경우 심사과정 이전에 투고를 제한할 수 있다.

- 1) 본 학술지의 논문주제 영역에 부합하지 않은 논문
- 2) 기존에 이미 게재되었던 논문과 이와 유사한 논문
- 3) 외국저서, 논문, 저널의 단순한 번역 논문
- 4) 석·박사 학위 논문을 단순 축약한 논문
※ 석·박사 학위 논문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보완, 발전시킨 논문의 경우 투고 가능하다. 단, 각주를 통해 그 사실을 반드시 사전에 적시해야 한다. 적시하지 않은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투고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5) 이전 학술지 논문심사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을 제목이나 내용의 수정을 가하지 않고 투고한 논문
- 6) 이전 호에서 '게재철회'를 요청한 논문은 제목이나 내용을 수정했다고 하더라도 <지식과 교양>에 재투고할 수 없다.
- 7) 부득이하게 게재확정 이후 이상이 확인된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투고자의 논문투고자격을 향후 5년간 박탈할 수 있다.

제6조(논문투고 방법)

투고자는 원고 마감일 이전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 1) 이메일 접수는 kl@mokwon.ac.kr로 투고한다.
- 2) 온라인 논문투고는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홈페이지 (<http://liberalarts.mokwon.ac.kr>)의 '논문투고 안내'에 따라, 투고 논문을 직접 업로드한다.
- 3) 모든 투고자는 <지식과 교양>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논문투고신청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 4) 원고마감 일자를 경과한 논문은 해당 투고자의 동의하에 다음 호의 투고 대상으로 삼는다.

제7조(투고자 논문작성 양식)

논문 투고자는 다음의 논문작성 요령에 따라 논문을 작성해야 한다.

- 1) 논문은 <지식과 교양> 논문편집양식(제6조 6항 참조) 기준 10매~ 20매(국·영문 초록, 그림·각주 포함) 내외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논문의 총 매수는 <지식과 교양> 논문편집양식 기준 30매를 초과할 수 없다. 기준 매수를 초과할 경우 장당 1만원의 추가 게재료를 부과한다.
- 2) 원고 작성 시 사용할 소프트웨어는 '한글2007' 이상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 3) 논문은 한국어·영어·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단, 영어 이외의 외국어를 사용해 작성한 원고는 한국어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논문 투고자의 국적이 외국일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외국어의 전문가에게 한국어 번역본을 의뢰하여 작성한다. 이때 편집위원회는 소정의 번역료를 지불한다.
- 4) 원고는 논문제목, 성명과 소속 및 직책, 목차, 본문, 참고문헌,

국문초록 및 주제어, 영문초록, 영문제목, 영문성명, 영문 키워드, 부록(외국어 논문인 경우 국문요약문 등)의 순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 5)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주저자(제1저자)와 부저자(교신저자, 참여저자 등)를 구분하여 주저자가 첫 번째로, 부저자는 두 번째 이후로 표기한다.
- 6) 논문의 세부 편집양식은 아래와 같다.

(1) 작성 용지 설정

- ① 용지 종류 : A4용지(210×297mm)
- ② 용지 여백 : 위쪽 46, 아래 42.5 왼쪽, 오른쪽 각 50, 머리말, 꼬리말 각 10

(2) 글자 모양

- ① 글꼴 : 나눔명조(논문제목, 소제목, 필자이름 및 소속은 진한 글자로)
- ② 크기 : 논문제목 18, 성명 9.5, 소속 9, 목차 9, 본문 10.5, 각주번호 9, 각주본문 9, 참고문헌 9.5, 국문초록 10.5, 주제어 9.5, 영문(외국어)초록 10.5
- ③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각 항목별 작성 방식을 참조한다.

(3) 문단모양

- ① 본문 : 줄간격 160, 들여쓰기 2
- ② 각주 : 줄간격 130, 들여쓰기 2
- ③ 참고문헌 : 줄간격 130, 왼쪽여백 6, 내어쓰기 6
- ④ 국문 및 영문초록 : 줄간격 130, 왼쪽여백 2, 오른쪽여백 2

(4) 각 항목별 작성 방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논문제목 : 글자크기 18, 진하게, 가운데 정렬
- ② 성명 : 글자크기 9.5, 진하게, 가운데 정렬(논문제목과 이름 사이 한줄 땀)
- ③ 소속 : 글자크기 9, 진하게, 가운데 정렬, 괄호 안에 소속을 명기
- ④ 소제목 : 글자크기 10.5, 정렬방식 왼쪽, 진하게
- ⑤ 본문 : 글자크기 10.5, 정렬방식 양쪽정렬

(5) 원고의 번호 붙임은 아래와 같이 한다.

- 1단계 : I. II. III.....(2줄 띄고, 14p, 중고딕, 가운데, 진하게)
- 2단계 : 1. 2. 3.....(1줄 띄고, 1칸에서 시작, 11p, 중고딕, 진하게)
- 3단계 : 1) 2) 3).....(4칸에서 시작, 10p, 신명조, 진하게)
- 4단계 : (1) (2) (3).....(4칸에서 시작, 10p, 신명조)
- 5단계 : ① ② ③.....(4칸에서 시작, 10p, 신명조)

(6) 논문에서 사용되는 기호는 아래와 같이 한다.

- ① 영화/영상/웹툰 작품의 경우는 < >를, 문학작품인 경우는 『 』를, 음악관련 작품인 경우는 ≪ ≫를 사용한다.
- ② 강조 및 간접인용의 경우에는 홑따옴표 ‘ ’를, 직접인용의 경우에는 겹따옴표 “ ”를 사용한다.

(7) 논문의 각주 작성 요령

- ① 각주는 본문의 하단에 저자명, 저서명, 출판사명, 출판사 소재지(외국어일 경우), 출판연도, 인용쪽수 등의 순서로 표기한다.

② 각주는 각 언어권 학술문헌의 일반적인 예를 따른다.

-한국어 저서인 경우 다음의 순서로 작성한다.

저자, 『저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쪽수

예) 홍길동, 『교양교육의 역사』, 한바퀴, 2005, 78쪽.

-한국어 논문(학술지 및 학위)인 경우 다음의 순서로 작성한다.

저자, 「논문명」, 『학술지』권/호,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쪽수.

예) 홍길동, 「교육연구의 궤적」, 『교양연구』 24집, 2009, 21쪽.

-번역서인 경우 다음의 순서로 작성한다.

저자, 번역자, 『저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쪽수.

저자, 번역자, 「논문명」, 『저서명/학술지』권/호,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쪽수.

예) 잭 우드 저, 홍길동 역, 『교양교육』, 한바퀴, 2005, 81쪽.

-영문(외국어)인 경우 저서는 이탤릭체로, 논문은 “ ”로 표기한다.

Jack Wood, Social effectiveness: on some Asian College's education in the 1980s, trans. Celia Britton. Annwyl Williams, Ben Brewster, and Alfred Guzzetti (London: HumanArts, 1982), p.23.

Kimberly Woods, "Social effectiveness: on some Asian College's education in the 1980s", Education, vol. 30, no. 3 (1989), pp.51-65.

Michael Woods, Social effectiveness: on some Asian College's education in the 1980s, Liberal Arts and Society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1995), pp.106-121.

-신문기사의 경우 작성자, “기사명”, 《신문/잡지명》, 기사날짜 순으로 작성한다.

예) 홍길동, “2000년대 대학교육 현황”, 《교양일보》,

2011.05.21.

- 인터넷 사이트를 참조할 경우 사이트 명, 사이트 주소, 자료 확인 날짜순으로 표기한다.

예) <지식과 교양>, www.mokwon.or.kr, 2011.05.21.

③ 중복된 참고문헌을 인용할 경우 다음 표기의 예를 따른다.

- 한국어인 경우 바로 위의 주(註)에서 인용한 참고문헌을 다시 인용할 때는 위의 책, 위의 논문 이라 표기한다.

예) 위의 책(위의 논문), 21쪽. 또한 바로 앞이 아닌 그 앞의 주(註)에서 인용된 참고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는 저자명을 먼저 명기한 후 앞의 책, 앞의 논문 이라 표기한다.

예) 홍길동, 앞의 책(앞의 논문), 21쪽.

- 영문(외국어)인 경우 바로 위의 주(註)에서 인용한 참고문헌을 다시 인용할 때는 Ibid., 로 표기한다.

예) Ibid., pp.20-21. 또한 바로 앞이 아닌 그 앞의 주(註)에서 인용된 참고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는 저자명을 먼저 명기한 후 op. cit.,로 표기한다. 예) Michael, op. cit., p.21.

④ 참고문헌 작성요령: 글자크기 9.5 (단, 제목은 10, 진하게)

-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 정보를 수록하되,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또한 본문과 각주에서 인용된 쪽수 및 페이지 수는 명기하지 않고 생략한다.

- 참고문헌은 국내문헌을 먼저 표기하고 영어, 외국어 순으로 작성하되, 단행본, 논문, 신문기사, 인터넷 사이트로 나누어 표기한다. 국내문헌은 저자 이름에 따라 가나다 순서로, 영어 및 외국어 문헌은 저자 이름에 따라 알파벳 순서로 배열한다.

- 영문(외국어) 서적의 경우는 이탤릭체로 하고, 국문 서적은 『 』를 사용하고 학술지의 경우는 권, 쪽 수 순으로 작성한다.

-참고문헌 작성 시 다음의 예를 참고한다.

홍길동, 『교양교육의 역사』, 교양과 교육사, 2005.

Bergstrom, Johns. ed. Human Arts: Culture and Society, Arts Histories.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9.

Donald, Stephen. Questions of Liberal Art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9.

Lacan, Jacques. "The mirror stage as formative of the function of the 'I.'" In Ecrits: a selection. Trans. Alan Sheridan. New York : Norton, 1977.

Silverman, Kaja. The Subject of Semiotic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3.

Walker, Janet. Couching resistance : women, art, and psychoanalytic psychiatry.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3.

⑤ 국문·영문(외국어)초록 및 국문요약문 작성요령: 글자크기 10.5(단, 제목은 진하게)

-국문초록은 논문의 전체요지를 최소 1,000자 이상, A4 1매 내외의 분량으로 작성하고 국문으로 된 5개 이상의 주제어를 국문초록 다음에 반드시 첨부한다. 영문(외국어) 논문의 경우에도 국문 논문과 동일하게 국문 초록 및 국문 주제어를 명기한다.

-영문(외국어)초록은 논문의 마지막에 본문과 다른 영문(외국어)으로 최소 1,000자 이상, A4 1매 내외의 분량으로 작성하고 영문(외국어)로 된 5개 이상의 주제어(Keyword)를 반드시 첨부한다.

-영어 이외의 외국어를 사용해 작성한 원고는 본문의 언어 종류에

관계없이 영문 초록을 반드시 첨부한다. 단, 이때의 영문 초록은 국문 논문의 영문 초록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또한 최소 1,000자 이상, A4 2매 내외의 분량의 한국어 번역본을 함께 제출한다.

제8조(투고자 논문심사)

투고된 논문은 본 연구소의 논문심사 규정에 따라 심사과정을 거친다. 단, 편집위원회가 기획, 의뢰한 논문의 경우 게재의 우선권을 부여하되, 일반논문과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친다.

제9조(논문 수정)

- 1)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투고자에게 논문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 요구 후 10일이 지나도록 저자로부터 회신 없이 없으면 해당호의 논문게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2) 논문 심사를 통과한 논문은 편집규정에 근거하여 그 편집형식을 편집위원회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
- 3) 논문제목 및 내용 수정은 1차 수정본 제출 이후로는 변경할 수 없다.

제10조(논문 책임) 게재 논문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해당 논문의 저자가 진다.

제11조(심사료와 게재료)

투고자는 논문투고와 동시에 본인의 논문에 대한 심사비를 납부한다.

- 1)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비는 6만원으로 한다. 논문 심사료는 일반논문과 연구지원논문 모두 동일하게 부과된다.

2) 심사 후 원고 게재가 확정된 경우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게재료는 아래와 같다.

- 일반 논문: 전임 10만원 / 비전임 5만원

- 연구비 수혜논문: 전임 30만원 / 비전임 20만원

※ 논문편집양식(제7조 6항 참조) 기준보다 분량이 초과될 경우 소정의 추가 게재료를 부과할 수 있다(제7조 1항 참조).

※ 투고자가 해당 논문에 대해 '게재철회'를 요청한 경우라도 심사 후 원고 '게재가 확정'된 경우 투고자는 '게재철회'와 관계없이 해당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12조(저작권)

1) 게재된 모든 논문은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홈페이지 (<http://liberalarts.mokwon.ac.kr>)를 통한 원문 공개 등 기타 학술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2) 투고자는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을 다른 공동연구자와 함께 <지식과 교양>에 위임할 것을 '논문투고신청서'를 통해 사전에 서약하여야 한다. 단 12조 1)항을 제외한 목적으로 논문을 사용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저자의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한다.

제13조(기타)

본 세부 규정에 미비된 사항은 사안별로 본 편집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제13조(개정)

본 규정은 <지식과 교양>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부 칙

제14조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논문심사 규정

2018년 3월 1일 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지식과 교양>에 투고할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위원회 구성 및 연구윤리규정 심사)

- 1) 본 <지식과 교양>의 논문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 10인 내외로 구성됨을 원칙으로 한다.
- 3)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을 구성하기 전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투고 논문의 영역과 게재의 적합성, 연구윤리규정의 준수 여부, 논문투고규정의 준수 여부 등을 검토, 해당 투고 논문의 심사여부를 결정한다.
- 4)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3조(심사 및 판정)

- 1) 편집위원회를 통해 심사대상으로 확정된 투고 논문은 편집위

원회와 편집위원이 위촉한 2인의 전문 심사위원의 심사를 받는다.

- 2)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성명 및 소속을 삭제한 심사용 논문과 심사서 양식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심사위원에게 발송한다.
- 3) 투고자와 동일한 소속기관인 경우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 4) 심사위원은 심사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초심인 경우 10일 이내, 재심인 경우 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5)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을 심사서에 제시된 논문 평가항목을 참조하여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의 4 등급으로 판정한다.
- 6) 심사위원의 판정은 80점 이상 '게재', 70점 이상 '수정 후 게재', 60점 이상 '수정 후 재심', 59점 이하 '게재 불가'로 한다.
- 7)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의 판정을 내렸을 경우, 심사위원은 심사서에 평가 항목에 따른 구체적인 수정요구 사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 8) 심사위원 2인의 판정을 종합한 결과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당 호의 <지식과 교양>에 게재한다.
- 9) 기타 판정에 관한 결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견에 따른다.

제4조(이의 심사)

- 1) 논문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논문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2)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는 '게재불가'로 판정이 난 논문 투고자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

- 3) 이의 제기는 결과 통지 후 1달 이내에 접수되어야 한다.
- 4) 접수된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편집위원 전체가 검토하도록 하며 편집위원회에서 이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해당 논문의 저자에게 통지한다.
- 5) 편집위원회가 이의를 인정하게 되었을 경우 변경된 평가 결과를 논문 투고자에게 1주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제반 절차를 바로 진행하도록 한다.

제5조(기타)

- 1)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지식과 교양>이 소유한다.
- 2) 논문의 심사 및 편집·출판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기타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논의를 거친 후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한다.
- 3)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개정)

본 규정은 <지식과 교양>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부 칙

제7조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윤리 규정

2018년 03월 01일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지식과 교양〉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18호)을 준수한다. 본 규정은 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에서 발행하는 〈지식과 교양〉에 수록되는 학술발표와 논문 등 저작물의 투고, 심사윤리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본 규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우선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서약)

- 1) 〈지식과 교양〉의 편집위원 및 학술운영위원, 논문 심사위원, 투고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하여야 한다.
- 2) 〈지식과 교양〉의 편집위원회는 원고모집을 공고할 때 본 규정을 함께 공고하여야 하고, 심사자는 심사를 승낙할 때 본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하여야 한다.

제3조(저자의 투고윤리기준)

- 1) 독창성을 갖는 저작물이어야 하며, 다른 정기학술지나 단행본에 이미 발표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 2) 타인의 저작물을 표절한 내용이 담겨져서는 아니 된다. 타인의 저작물은 문서를 포함한 이미지 자료도 포함된다. 표절의 기준은 국가기관 혹은 이에 준하는 기관이 정한 표절의 기준을 따른다.
- 3)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를 재인용하는 경우 반드시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이미지 자료 인용 역시 문서의 재인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그 출처를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 4) 자신이 이미 발표한 저작물을 부분적으로 활용하며 새로운 학술적 논점을 추가시켜 분석하고 있는 저작물은 <지식과 교양>에 수록될 수 있다. 단, 이때 그 작성경과를 반드시 저작물에 적시하여야 한다.
- 5) 단행본이나 정기학술지에 출간되지 않은 자신의 석, 박사 학위 논문의 일부를 활용하여 작성된 저작물에 대하여도 제4항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 6) 연구자료나 연구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한 저작물이어서는 아니 된다.
- 7) 타인의 외국어 간행물의 번역을 투고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서면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8) 수록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 저작물을 <지식과 교양>을 포함한 여러 정기학술지에 중복 투고하는 경우, 최초의 수록 통지를 받아 이를 수락한 즉시 필자는 중복 게재를 방지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9)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

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10)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 저자의 역할을 표시하여야 한다. 연구와 논문작성에 있어서 가장 많은 기여를 한 저자를 “주저자”로, 논문의 투고, 심사, 출간 과정에서 <지식과 교양> 편집위원회, 혹은 학술운영위원회 등과 연락을 담당한 저자를 “교신저자”로 표시한다.

제4조(편집위원의 편집윤리기준)

- 1)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심사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하며, 투고된 저작물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
- 2)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저작물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 및 심사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3)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의 심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심사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 4)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저작물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되고, 저자의 인격과 학문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자의 심사윤리기준)

- 1) 심사자는 편집위원회가 심사 의뢰하는 저작물을 심사기준이 정한 바에 따라 성실하게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신이 해당 저작물의 내용을 평가하는 데에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편집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2) 심사자는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저작물을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자는 저자의 인격과 학문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고,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또는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게재불가 또는 수정 후 게재로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 3) 심사자가 투고된 저작물이 제3조의 각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 및 제6조에 의한 윤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4) 심사자는 심사를 의뢰받은 사실, 심사대상 저작물의 모든 사항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저작물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 2 장 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윤리위원회의 설치, 구성)

- 1) 본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식과 교양>의 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 2) 윤리위원회는 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편집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여 5인 내외의 인사로 구성한다.

제7조(회의)

-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

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4) 회의는 비공개로 원칙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 1)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2) 위원회는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3)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 장 위반행위의 조사

제9조(위반행위의 조사 개시)

- 1)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본 규정 위반행위(이하 '위반행위'라고 한다)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2) 위원장은 편집위원장과 협의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1) 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 2)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 1)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 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신원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 2) 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 3)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등 조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제척, 기피, 회피)

- 1)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조사 및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조사 및 심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 3)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이의제기 및 진술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반론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4조(판정)

- 1) 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반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한다.
-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피조사 사실과 관련한 피조사자의 행위가 위반행위임을 확인하는 판정을 한다.

제 4 장 조사 이후의 조치

제15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 1) 윤리위원회가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부과하여야 한다.
 - (1) 본 규정에 위반된 저작물이 <지식과 교양>에 게재된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게재의 소급적 무효화 및 논문목록에서 삭제
 - (2) 향후 10년 이상 <지식과 교양> 투고 금지
 - (3) 본 규정의 위반 사실을 <지식과 교양> 및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홈페이지에 공지
 - (4) 본 규정의 위반 사실을 한국연구재단에 통보
 - (5) 기타 윤리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사안으로서 윤리위원회가 정하는 제재사항
- 2) 전항 제3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의 수록 권·호수,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6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제17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16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 1)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2) 판정이 끝난 이후 결과는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지식과 교양> 학술운영위원회와 편집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다만, 제보자, 조사위원,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의 결의로 그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 5 장 보 칙

제20조(개정)

본 규정은 <지식과 교양>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부 칙

제21조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편집위원회 규정

2018.3.1. 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학술지 〈지식과 교양〉 편집위원회 업무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업무)

편집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학회지 투고논문 심사와 편집
- 2) 학술도서 기획과 편집
- 3) 각종 학술자료 수집 및 정리
- 4) 기타 학회의 편집 관련 업무

제3조(구성 및 임기)

편집위원회 구성 및 임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 1)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센터장이 위촉하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센터장이 위촉한다.
- 2) 편집위원회는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 3) 편집위원은 각 분야에서 대내외적 지명도가 높고 학술적 성과가 우수한 이로 하며,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연구자들이

고루 선임될 수 있도록 한다.

- 4) 심사 및 편집 실무를 위해 약간 명의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 5)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회의 개최)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투고 마감 이후 심사위원 선정과 위촉을 위한 편집회의를 개최하며, 심사가 일단락된 후 심사결과 판정과 학회지 편집을 위한 편집회의를 개최한다. 편집회의는 필요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5조(결정 사항)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편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 1) 학회지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위촉
- 2) 투고 논문 심사결과의 검토와 판정

◇ 연구소장 : 현승훈

◇ 편집위원장 : 서정일

◇ 편집 위원 :

구진희(목원대), 김요한(영남대), 김혜정(경인교대), 문성호(중앙대), 서
유석(경상대), 서태원(목원대), 송석량(목원대), 유경아(목원대),
최혜진(목원대), 홍태한(전북대)

지식과 교양 *Knowledge & Liberal Arts*

2020년 5월 30일 / 30 May 2020

통권 제5호 / No.5

발행인 현승훈

발행처 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발행일 2020년 5월 30일

(우편번호 35349)

대전시 서구 도안북로 88 목원대학교 캠퍼스타운 1층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Tel 042-829-8198

E-mail kl@mokwon.ac.kr

Homepage: <http://liberalarts.mokwon.ac.kr>

인쇄처 씨앤피

전화: 042-824-0701